

星武



Vol.46
2017. July

» 논단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군력 건설 방안
사관학교 교육에서 인문학의 의미와 역할

» 기념 소회

성무대, 반세기 내 삶의 마음의 고향

» 역사 탐방

최용덕 장군의 중국군 경력 관련 단상





대한민국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트레일러, 레일형 (4000A trailer, rail type / 1730-37-526-7798)

▶ 지난 30여년 간,
한국치공구는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자 꾸준히 역량을 다져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을 내다보고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Test Fixtures



T/FA-50 전기제 지상시험장비 개발

Major Structures



천공(M-SAM) 다기능레이더 셀러 및 플랫폼 개발

Conventional Assembly Jigs



항공기 날개, 동체 등 조립을 위한 조립치공구 개발

All ways t'way

고객이 원하는 항공사의 All Everything이 되기 위해
All ways, 티웨이항공



티웨이항공

www.twayair.com T. 1688-8686



아이폰



안드로이드



5세대 전투기 F-35 차세대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

록히드 마틴은 더 나은 미래를 연구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한국과 함께 온 록히드 마틴은 한국의 안보와 지속적인 성장, 역동성을 위해 계속해서 헌신을 멈추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록히드 마틴의 이러한 약속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선보이는 F-35 라이트닝 II 프로그램으로 더욱 공고해집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프로그램은 독보적인 방위력을 갖춘 F-35로 더욱 강력해집니다. 록히드 마틴과의 파트너십은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고용 창출을 이뤄낼 뿐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방위와 안보에서 수많은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lmaero.c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F-35 LIGHTNING II

NORTHROP GRUMMAN | BAE SYSTEMS | PRATT & WHITNEY
— LOCKHEED MARTIN —



일등 한화의 힘은 혁신입니다.

자체기술로 10년이 걸리는 개발기간을
4년 6개월로 단축해 세상을 놀라게 한 천무!
(주)한화는 도전과 혁신의 힘을 믿습니다.

혁신적인 Defense Solution을 제공하는 신뢰받는
글로벌 파트너로 자주국방과 인류평화에 기여합니다.

(주)한화/방산

1st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 국방을 위해 세계 최고의 기술과 함께합니다

아시아의 지정학적 여건상 안보와 국방의 부담을 안고 있는 한반도,
노스롭 그루먼은 최첨단 기술로 대한민국의 국토방위를 빈틈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는 물론 최첨단 C4ISR 기능과 미사일 방어까지,
노스롭 그루먼은 혁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신뢰받는 파트너로 계속 자리할 것입니다.
21세기 방위산업의 가장 앞서가는 리더- 노스롭 그루먼입니다.

THE VALUE OF PERFORMANCE.

NORTHROP GRUMMAN

CONTENTS

2017 July Vol.46

소식

- 10 총동창회 소식
- 22 공군소식
- 26 모교소식
- 30 이임사
- 32 취임사
- 34 축사

회원 논단

- 40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인 공군력 건설 방안 | 권영근
- 50 스테이트크래프트와 국가안전보장 | 강진석
- 58 Human Error에 의한 비행사고 예방 방안 | 박준홍
- 64 사관학교 교육에서 인문학의 의미와 역할 | 이재강

회원 기고

기념 소회·회고

- 86 졸업 및 임관 50주년 기념사 | 차정열
- 88 성무대, 반세기 내 삶의 마음의 고향 | 최용환
- 94 성무대탑이 건립되기까지 | 최성열

역사 탐방

- 99 최용덕 장군의 중국군 경력 관련 단상 | 이수철
- 105 난중 호남제일 전주성 방어의 이야기 | 최병운

봉사·여행기

- 114 필리핀 GITEC 자원봉사 강사 활동을 마치고 | 김원규
- 117 인도네시아에서의 새로운 삶 | 신영덕

- 121 나의 사랑 파라과이 | 유원봉
- 132 배낭 하나 달랑 메고 다녀온 순례길 | 금기연

사회 도전기

- 140 전역 후 소프트웨어 개발자 되기 | 김태연

현역 코너

- 144 Red Flag 훈련 참가 후기 | 전창범
- 154 여성 전투비행대장이 되기까지 | 박지원

단상·소고

- 157 군사고전과 직업군인의 양성 | 이종학
- 162 베테랑 리더십 | 이근재
- 166 3대를 이어가는 우정 | 백승웅
- 173 10기 산우회와 하늘사랑 장학재단 | 김한용
- 178 Ring Knocker의 유래 | 정창욱
- 182 얼굴에 대한 책임 | 김동기

우정 기고

- 186 신사의 자리 | 우선희
- 191 성무대를 추억하며 | 신현상

창작(시)

- 198 유월이 오면 | 강임구
- 199 하늘 성(城) | 이영순
- 200 독수리에게 | 조환기

동정

- 204 동문 소식
- 208 화제의 인물
- 210 신간 소개

공사 평가관리실

- 212 공군사관학교 입시제도 소개

총동창회 알림

- 221 정기총회
- 226 회비 납부 안내
- 227 평생회비 납부 현황
- 232 공군사관학교 발전기금 현황
- 237 전역자 현황
- 240 각 기생회 임원 현황
- 241 편집후기/기고안내



발행일 : 2017년 7월 (통권 46호)
발행인 : 박중현
발행처 : 공사총동창회
(전화 : 02-823-1091, 군 : 923-7570)
편집·디자인·인쇄 : 씨앤톡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사총동창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교가

작사 최용덕
작곡 김성태



1.우 리_는 피 끓_는 배 달 의_아_ 들
2.우 리_는 하 늘_을 배 우 는_젊은 이



높 고 빛 나 는 한 배 님 정 신 이 어_받 아 서
높 고 참 다 운 군 대 의 정 신 새 로_이 룩 해



누 리에 떨_ 치 고 자 하 늘 로 솟 나 니
나 라를 지_ 키 는 힘 하 늘 로 달 린 다



우 리들 영 혼 의 기 지 공 군 사 관 학 교
우 리들 충 성 의 원 천 공 군 사 관 학 교



하_ 늘 은 우 리 의 일 터 요 싸 움 터



하 늘 에 살 면_서 하 늘 에 목 숨 바 친 다

교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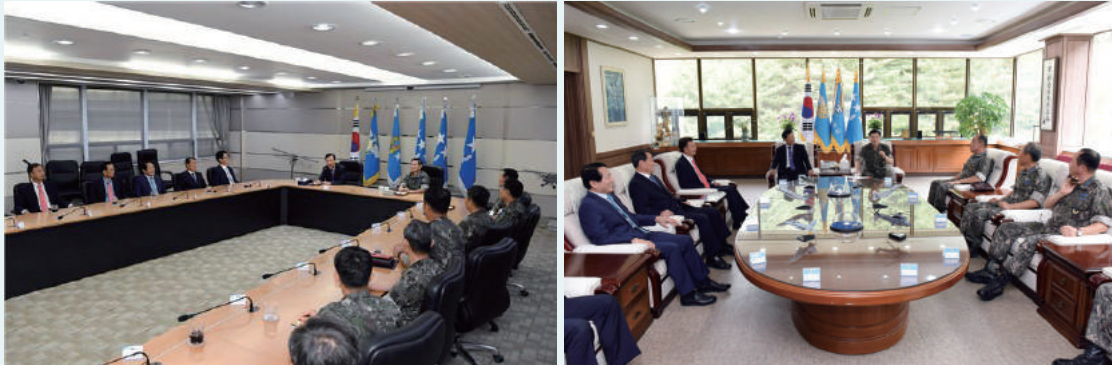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

공사십훈

용의단정(容儀端正)하라
청렴결백(清廉潔白)하라
성심복종(誠心服從)하라
책임완수(責任完遂)하라
신의일관(信義一貫)하라
공평무사(公平無私)하라
침착과감(沈着果敢)하라
신상필벌(信賞必罰)하라
솔선수범(率先垂範)하라
은위겸비(恩威兼備)하라



공군본부·공군사관학교 예방 (2016.7.25)



신임 총동창회 회장단은 공군본부와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제24차년도 이사회 (2016.7.27)



16~44기 총동창회 이사들이 참석하여 '회원 상호간 친목과 상부상조 및 모교 발전에 기여'를 24차년도 운영중점으로 정하고, 한 해 동안 추진할 사업과 예산을 통과시켰다.

자문위원 간담회 (2016.9.7)



5~23기 역대 회장 및 사무총장을 모시고, 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사 간담회 (2016.9.21,27)



16~23기 선배기수 임원진과 25~32기 후배기수 임원진을 초청하여 체력단련장에서 운동과 만찬을 갖고, 총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성무인 가을축제 (2016.11.4)



본회는 생도들을 위한 400만원 상당의 자전거와 텀테이블을 전달하고, 모교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하였다. 또한 행사에 참가한 회원 및 가족들은 생도들과 함께 오찬과 축제를 즐기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친선 바둑대회 (2016.11.8)



본회는 공군회관에서 제14회 친선바둑대회를 개최하였다. 기우회원 및 진행요원 60여명이 참석하여 화기애애하면서도 열띤 대회를 진행하였으며, 시상결과는 아래와 같다.

- 개인전 우승 A조:강영진(8기), B조:정광섭(22기), C조:신동열(14기), D조:김수기(14기), E조:김규식(20기)
 단체전 우승 A조:윤춘현(5기), 정지수(11기), B조:정구호(17기), 배종수(17기), C조:서철수(9기), 이규형(11기)
 D조:이수전(5기), 조희열(9기), E조:이한호(17기), 손준영(20기)

순조회 초청행사 (2016.12.2)



본회와 공군전우회는 공군회관에서 연말을 맞아 공군 순직조종사부인회 회원 40명을 초청하여 위로행사를 실시하였다.

65기 졸업생도 격려 및 특강 (2017.1.24)



박종헌 회장은 65기 졸업생도를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실시하고, 졸업선물로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전달하며 격려 및 축하의 뜻을 전하였다.

성무보라매상 시상 (2017.2.24)



65기 졸업·학위수여식에서 총동창회장상인 성무보라매상을 이현 생도에게 수여하고, 부상으로 태블릿 PC를 전달하였다.

총동창회 등산대회 (2017.5.17)



서울대공원에서 4~27기 220여명의 동문이 참가하여 등산과 오찬을 함께 즐기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공군 전방부대 격려 방문 (2017.2.24)



본회 회장단은 공군 전방부대인 제537방공유도탄포대와 제3방공관제대를 방문하여, 일선에서 영공방위를 위해 수고하는 장병들을 격려하였다.

졸업·입관 기념행사 (2017.5.27)



모교 성무연병장에서 졸업·입관기념 동문 및 가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하였다. 각 동기회 및 개인회원, 유가족이 총 1억3천4백만원의 모교 발전기금을 기탁하였고, 다채로운 볼거리와 참여 행사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5기 동문 - 50주년



25기 동문 - 40주년



35기 동문 - 30주년



45기 동문 - 20주년



55기 동문 - 10주년



하늘사랑 장학재단 장학금 기부 (2017.6.7)



제24차년도 공사총동창회 임원진은 공군본부 방문하여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하였다.

공사총동창회 정기총회 (2017.6.21)



본회는 공군회관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1년 동안의 주요 업무 및 결산 보고 후 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제25차년도 회장으로는 윤학수 (예)중장이 선임되었고, 25기 사관이 총동창회 운영을 맡게 됨으로써 앞으로 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제25차년도 총동창회 운영임원

- 회장 윤학수
- 부회장 고경윤(선임), 강대희, 강진석, 고덕천, 김용전, 김종수, 김찬환, 류홍규, 문성균, 박기호, 백문현, 서상철, 성신모, 송명진, 양해구, 윤성현, 윤양로, 이상우, 이천상, 임종호, 장희태, 조남일, 최미락, 하왕규, 한영철
- 감사 김규철, 윤정진
- 사무총장 김영근
- 후원 공사 25기 사관 일동



한길씨앤씨주식회사는 **국방 M&S, 항공전자시스템, VR/AR 증강현실기반 임무훈련체계, 시뮬레이터 및 교육훈련 콘텐츠**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최첨단 국방기술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공군 사이버방호센터 설치



(2016.7.1) 공군의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사이버방호센터'가 창설되었다.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와 방산기업·군 전산망 해킹 등의 위협으로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이 증가한 가운데, 적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태세를 한층 강화시켰다.

'자랑스러운 공군, 공군인' 영문판 발간



(2016.8.3) 공군역사기록관리단은 공군 최초의 영문 공군사 소개서 'Untold Korean Airmen in the Modern Age'를 발간하였다. 이 영문판은 외국군 장병·국의 유학생에 배포하고, 공군사관학교, 항공과학교등학교 학생들의 영어참고교재 겸 역사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군과 함께하는 2016 사천에어쇼



(2016.10.20) 공군과 사천시의 공동 주최로 '공군과 함께하는 2016 사천에어쇼'를 개최하였다. 국민에게 항공우주력에 대한 이해증진과 신뢰받는 공군의 모습을 선보이는 에어쇼 및 축하 공연과 항공관련 체험프로그램으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졌다.

항공훈련기관 인증 획득



(2016.10.26)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훈련센터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부기관 및 민간 조종사를 대상으로 비행환경적응 훈련을 운영하는 '항공훈련기관' 인증을 획득하였다.

2016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



(2016.10.26) 2016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에서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6대가 참가하여 10시간 가량 논스톱으로 비행하며 미 알래스카 아이슬 공군 기지로 전개했으며, 다국적 연합공군과 공중종합 전투기동 훈련을 실시하여 최고의 공중작전 수행 능력을 한층 높였다.

공군 18전비, 무스탕 전투기 복원



(2016.11.2)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은 6.25전쟁에서 활약했던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전투기 F-51D 무스탕 전투기의 복원 사업을 완료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다양한 역사 자료 참고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총 4개월에 걸쳐 진행된 복원 작업으로 F-51D는 1950년 7월 최초 도입 당시의 모습으로 완벽히 재탄생하였다.

항안단, 재난안전 전문교육과정 개설



(2016.11.29) 공군 항공안전단은 정부기관 및 민간분야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난안전 전문교육과정'을 군 최초로 개설하여 운영중이다.

국제공인 JTAC 교육과정 인증 획득



(2016.12.20) 공군 전술항공통제단 공지합동작전학교는 미국 합동참모본부 합동화력지원 시행감독위원회(JFS ESC)로부터 아시아에서 2번째로 '국제공인 합동최종공격통제관(JTAC) 과정' 인증을 획득하였다.

타우러스(TAURUS) 전력화



(2016.12.22) 공군은 제11전투비행단에서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타우러스'의 전력화를 기념하는 행사를 거행하였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적의 전략표적에 대한 즉시 정밀 타격이 가능하며, 킬 체인(Kill Chain)의 핵심전력이 될 전망이다.

제2회 공군역사 UCC공모전



(2016.12.27) 공군역사기록관리단은 제2회 공군역사 UCC공모전을 개최하고, 최우수상 '안창남 비행사의 생애와 활약상' 비롯한 총 19편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공군은 최우수작과 공모전 우수작을 수정 보완해 역사 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하고 공군사관학교 공군박물관에서 정기적으로 상영할 계획이다.

딘 헤스 대령 공적기념비 제막식 거행



(2017.3.9) 공군은 6·25전쟁 항공전의 영웅이자 '전쟁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딘 헤스 미 공군 대령의 서거 2주기를 맞아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 '딘 헤스 대령 공적기념비'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2017 전반기 Soaring Eagle 훈련



(2017.3.10~17) 한국공군 단독 대규모 전역급 공중전투훈련인 '소링이글(Soaring Eagle)' 훈련을 실시하였다. 키리졸브(Key Resolve)연습과 연계하여 연습시나리오와 동일한 전장상황 속에서 기종별 전시 전투수행능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높은 훈련 성과를 거두었다.

블랙이글스, 말레이시아 LIMA '17 활약



(2017.3.21) 대한민국 공군 블랙이글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방위산업전시회인 말레이시아 LIMA '17에서 에어쇼 5회, 특별비행 2회, 우정비행 1회 등 총 8번의 비행을 실시함으로써 국산 항공기 T-50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2017 Max Thunder 훈련



(2017.4.14~28) 한미 공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대규모 항공전역 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을 실시하였다. 항공기 100여대 및 1,200여명의 장병이 투입된 이번 훈련은 실전적 공중전투 훈련으로 전투기량과 한미동맹을 강화하였다.

공군기상단, 수치예보체계 2호기 전력화



(2017.5.2) 공군기상단이 수치예보체계 2호기를 전력화 하였다. 공군은 7년전 도입한 슈퍼컴퓨터 1호기보다 22배 빠른 계산 능력을 보유한 2호기 도입으로 북한지역과 해외 파병지역 등 국군 작전범위에 대한 신뢰도 높은 실시간 수치예보 생산이 가능해졌다.

공군 8전비, 장병 헌혈증 5,000장 기부



(2017.5.4) 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지난 5년간 장병들이 모은 5,000장의 헌혈증을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에 기부했다. 8전비는 지난 2011년부터 '혈액은행제도'를 시행하여 약 10,000장의 헌혈증을 기증받아 어려움 처한 장병과 군가족, 지역주민 등을 지원하고 있다.

창석관 개관



(2016.6.15) 기존 하늘관에 있던 당구장, 노래방, 면회 공간 등 생도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창석관으로 옮겨졌다. 사관 생도들은 기존 하늘관보다 가까운 창석관에서 쾌적하게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6.25 및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초청행사



(2016.6.28) 공군사관학교는 6.25 및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초청행사를 거행하였으며, 박물관 견학을 비롯한 기지 투어를 진행하였다.

국제 군사과학기술 경진대회 최우수상



(2016.8.21) 공군사관학교 기초과학과 이문식(중령)·강순부(중령) 교수가 2016 국제 군사과학기술 경진대회 학술논문 분야에서 '접근 제어 가능한 다중 기관의 속성 기반 암호 전송 알고리즘'을 주제로 제출한 논문으로 최우수상인 방위사업청장상을 수상하였다.

순조회 자녀 초청 항공우주캠프



(2016.9.2)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한 순조회 자녀 10명은 영원한 빛 참배, 위국헌신로·박물관 견학 등 안보의식을 고취하였으며, 드론 시범 및 풍동실험실 견학, 천문대 야간관측을 통해 항공우주원리를 탐구하였다.

보라매문 준공식



(2016.9.9) 보라매문이 생도의 기상과 자긍심을 형상화하며 현재의 웅장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학교장은 새로운 보라매문의 준공을 축하하는 커팅식을 진행하였다.

성무 책마루 작은 도서관 개관



(2016.9.28) 성무 책마루 도서관은 사단법인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과 국민은행의 지원으로 개관하게 되었으며, 관사지역 관사관리반 사무실 옆에 위치하여 군 가족과 장병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독서공간이다.

Space Challenge 2016 본선대회



(2016.9.10) 이번 스페이스 챌린지 본선대회에서는 야외 무대 공연, 군악·의장 퍼레이드, VR시뮬레이션 등 예년보다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했으며, 총 8,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예년의 수치를 상회하는 등 성공적으로 마쳤다.

나라 사랑 항공우주캠프 신설



(2016.10.4) 청소년 안보현장교육의 일환으로 진로 탐색, 건전한 인성 함양, 나라 사랑 정신 고취 등을 나라 사랑 항공우주캠프를 신설해 정기 운영한다. 캠프 일정은 한 달 전 인터넷을 통해 공지되며,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afa.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6 공사 심포지엄



(2016.10.31) '무인시스템 중심의 항공우주기술 발전과 이해'를 주제로 2016 공군사관학교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1부 기초강연, 2부 분과별 학술 발표/토론, 3부 무인시스템 전시/비행시연을 진행하였다.

제48·49대 공군사관학교장 이·취임식



(2016.11.7) 공군사관학교 교장으로 황성진(공사33기) 중장의 취임식 및 박재복(공사29기) 중장의 이임식이 거행되었다. 신임 학교장은 취임사를 통해 "사관학교가 꿈과 자아 실현의 도장이 될 수 있도록 지휘관심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016 성무제



(2016.11.2) 안중근홀에서 2016 성무제 PRISM 작품개관식이 열렸다. 이 날 서예작가 장상두 교수의 서예 퍼포먼스가 펼쳐졌으며, '학업을 증진시켜 조국 영공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라'는 뜻을 담아 '교학상장 영공방위'를 사자하였다.

사관생도 기본예절교육



(2016.12.16) 안중근홀에서 건양사이버대학교 문화경영학과장 김미주 교수가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글로벌리더로서의 기본예절' 강연을 진행하였다.

69기 사관생도 입학식



(17.2.17) 4주간의 강도 높은 기초군사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184명의 69기 입학생도들은 학교장과 학부모 친지 앞에서 능률한 모습으로 입학선서를 함으로써 사관학교 정식 입학을 알렸다.

해외항법훈련



(2017.4.23~28) 4학년 생도 70명은 미국 괌에서 하와이까지 C-130J 수송기에 탑승해 장거리 비행 임무 체험, 태평양공군사령부, 앤더슨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과 전사적지를 견학하며 한미 군사교류와 우호를 증진하고, 동문국 전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글로벌 리더로서의 안목과 자질을 함양했다.

65기 졸업·학위수여식



(2017.2.24) 여생도 14명과 외국군 수탁생도 4명을 포함한 총 155명의 생도에게 학위가 수여되었으며, 졸업식을 마친 생도들은 3월 8일 계룡대에서 장교 임관식을 거행하며 공군을 이끌어갈 주역으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공군사관학교 인터내셔널 위크



(2017.5.24~28) 세계 각국의 사관생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호를 다지고 정보를 교류하는 뜻깊은 국제 교류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해외 10개국 20명의 사관생도가 참가하였으며, 참가국은 호주,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페루, 스웨덴, 태국이다.



박중헌
이임 총동창회장

존경하는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저희 24기가 명예와 전통에 빛나는 공사 총동창회 운영을 맡은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 25기에게 운영을 인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24기가 총동창회를 운영하면서 '회원 상호간 친목과 상부상조 및 모교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부회장단과 감사 등이 주축이 된 임원진과 함께 중지를 모아 치적보다는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중점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지난 1년은 아쉬움도 있었지만 선·후배 동문님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는 총동창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에 임관한 막내 65기들이 졸업과 동시에 평생회비를 완납해 주셨고, 32기, 33기, 34기, 59기가 완납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회원님들께서 평생회비를 납부해 주셔서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공사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총동창회 운영을 25기에게 넘겨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25기 사관은 지난 한 해 동안 모든 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셨고, 윤학수 회장과 김영근 사무총장이 총동창회 사무실을 수시 방문하여 총동창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향후 1

년 동안 총동창회를 더욱 잘 운영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총동창회장직을 마치면서 지난 1년간 총동창회의 운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24기 동기생 일동, 헌신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은 37명의 부회장단, 2명의 감사, 이남진 사무총장 그리고 조용하면서도 업무에는 열정을 가지고 수고해준 설민진 실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저와 24기 용비 동기생들에게 우리 총동창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회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우리의 모교 공군사관학교와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21일

이임 총동창회장 박중헌



윤학수
신임 총동창회장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친애하는 후배님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의 모교 공군사관학교의 총동창회 운영 책임을 함께 물려받은 사랑하는 동기생 여러분!

우리들 영혼의 기지 공군사관학교는 지난 70년 가까운 긴 세월동안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는 교훈 아래, 대한민국의 하늘을 완벽하게 수호해 온 호국의 간성들을 무수히 배출한 학교이고, 우리들 모두는 이 학교가 있었기에 나의 오늘이 있음을 늘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군사관학교 졸업생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드높이며, 나아가 학교 발전에 기여하는 총동창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없이 중요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총동창회장이라는 영예로운 책임을 맡겨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후배 회원 여러분!

저는 오늘 총동창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지난 긴 세월동안 우리 총동창회를 잘 이끌어주시고 발전시켜 오신 선배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재정의 확충을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23기, 24기 선배 회장단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니다.

우리 25기 휘운 동기생들은 선배님들의 뒤를 이어 총동창회와 모교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선·후배 회원 여러분!

우리 25기는 앞으로 1년 동안의 총동창회 활동을 위해 지난 10년 동안 착실히 준비해왔습니다. 모든 동기생들이 자발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총동창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적립하였으며, 총동창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논의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 총동창회가 대부분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지만, 보다 큰 발전을 위해서는 선·후배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해야 할 문제점들도 몇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역이나 젊은 회원들의 참여 확대 방안, 현재 20억을 목표로 열심히 쌓아가고 있는 적립금의 현실적 대안 모색, 그리고 공사총동창회의 위상 제고 방안 등은 심층 논의를 필요로 하는 중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앞으로 일년간 저를 비롯한 25기 회장단은 기존에 잘 운영되어 오던 친목도모와 선·후배간 소

통 강화 활동을 지속 발전시키는 동시에, 이와 같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들을 공론화해서 모두에게 유익한 슬기로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 기수 선·후배님들은 물론이고, 모든 회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조언과 충고를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1년간 총동창회를 훌륭하게 오신 박종헌 회장님과 24기 선배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저와 우리 휘운 25기에게 봉사의 기회를 주신 선·후배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회원님들 모두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셔서 우리 총동창회 활동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21일

신임 총동창회장 윤학수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존경하옵는 역대 참모총장님을 비롯한 원로 선배님!
그리고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공군 전 장병과 군무원을 대표해서 2017년도 공사 총동창회 정기 총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공군을 향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동안 공사 총동창회와 우리 공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고 이임하시는 박종현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새로이 선출되신 윤학수 신임 회장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군사관학교는 1949년 개교 이래 수많은 공중전투전문가와 인재를 배출하며, 공군 발전과 조국 영공수호의 핵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7월 임관하신 제1기 선배님들은 모든 것이 열악했던 창군 초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1952년 12월 13일부터 첫 출격을 개시하여 목숨 걸고 조국 영공을 수호하였습니다.

이후 60여 년의 세월 동안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는 교훈 아래 수많은 선배님과 동기생, 후배 장교들의 한결같은 헌신과 노력으로 창군 68년을 맞은 올해 우리 공군은 완벽한 공중전투임무 수행에 필수적인 전투기, 공중기동기, 정밀유도무기 뿐만 아니라 제1·제2MCRC, KTMO-Cell, KICC 등 네트워크 중

심전을 실행할 수 있는 세계적 강군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는 갓 입학한 제69기 사관생도들이 새롭게 특성화된 교육체계 속에서 곧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날개짓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이 젊은 후배들이 40~50년 후의 미래 전장을 이끌며 어떤 적과 싸워도 이길 수 있도록 첨단 항공우주력 건설과 운영 시스템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선배님들께서 물려주신 공군의 빛나는 역사와 전통 또한 더욱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항상 후배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공사 총동창회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공군과 공군사관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고 이임하시는 박종현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안하심과 윤학수 신임 회장님이 이끄시는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21일
공군참모총장 대장 정경두

EASTAR JET 10th

2007 - 2017
이스타항공 창립 10주년

이스타항공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국민항공사 이스타항공”



www.eastarjet.com

예약문의 1544-0080

기술



이 모든 요구에 신뢰로 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프랫&휘트니의 힘.

준비태세



믿음



전세계 34 개국의 군이 8,500 여 개의 프랫&휘트니 엔진을 사용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pw.utc.com 참조.



A United Technologies Company

Connect with us



회원논단

*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 소견으로 총동창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인 공군력 건설 방안 | 권영근
2. 스테이트크래프트와 국가안전보장 | 강진석
3. Human Error에 의한 비행사고 예방 방안 | 박준홍
4. 사관학교 교육에서 인문학의 의미와 역할 | 이재강





권영근
26기
한국국방개혁
연구소장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인 공군력 건설 방안

I 현대전과 항공력

전쟁사에서 항공기만큼 많은 변혁을 초래한 무기체계는 역사상 없을 것이다. 공기보다 무거운 비행체를 라이트형제가 최초로 시험 비행한 1903년 12월 17일 이후 항공기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1914년의 탄넨베르크 전투에서 15만 명에 불과했던 독일군이 60만 명에 달했던 러시아군을 궤멸시켰는데 독일군 장군 힌덴부르크는 탄

넨베르크에서의 승리를 독일군의 항공정찰 능력으로 돌렸다. 자신은 상대방 국가의 군사 활동을 공중에서 정찰하는 반면 상대방 국가는 이처럼 하지 못하도록 항공기들 간에 공중전이 벌어졌다. 그 후 항공기를 이용하여 전선 너머의 적군은 물론 주요 산업시설과 병참시설 등을 공격했다. 마찬가지로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조잡한 수준의 항공기에 의해 대영제국의 거대 함정이 도버 해협에서 지속해서 수장되었다. 1917년에는 독일군 폭격기가 런던을 공습하자, 1918년 영국군은 해군과 육군의 항공력 조직을 통합하여 공군을 창설했다.¹

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면서 주요 국가들은 항공력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유럽의 경우 연합군의 폭격기 때문에 쾰른과 같은 독일의 주요 도시가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아이젠하워 장군의 해군 참모는 “항공전은 현대적 형태의 전쟁이다. 이런 전쟁에서 공중은 지상 및 해상 전력의 ‘측방(Flank)’에 해당한다.”²고 기술했다. “공중우세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면 우

5개 분쟁에서 미군 항공기의 손실률과 쓰티 비율

전쟁	전투 쓰티	손실	쓰티 기준 손실률	손실 비율 (%)
제1차 세계대전	28,000	289	.010	1.0
제2차 세계대전	1,746,568	18,369	.010	1.0
6.25 전쟁	341,269	605	.0017	0.17
월남전	1,992,000	1,606	.00081	0.081
컬프전	29,393	14	.00047	0.047

출처 : Richard Hallion/ 백문현, 권영근 번역,
『현대전의 알파와 오메가』(서울 : 연경문화사, 2001), p. 327.

리는 여기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³고 노르망디 해안을 따라 달리는 차 안에서 아이젠하워 장군은 자기 아들에게 말한 바 있다. 태평양에서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투하한 두 발의 핵무기로 인해 전쟁이 종료되었다.

1950년 6월에 발발한 6.25 전쟁 시 항공력은 지상 작전을 근접항공 지원할 목적으로 운용되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73년까지 지속한 베트남전쟁에서도 항공력은 투입한 노력에 비하여 효과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모든 전쟁에서 항공력은 결정적인 전력은 아니었

1 Zachary J. Zweigle Through Adversity to the Stars: The Development of an Autonomous British Royal Air Force(Create 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2009), pp. 28-32.

2 Friedrich Ruge, Rommel in Normandy: Reminiscences by Friedrich Ruge(San Rafael, Calif.: Presidio Press, 1979), p. 187.

3 John S. D. Eisenhower, Strictly Personal(Garden City., N.Y.: Doubleday, 1974), p. 72.

지만, 항공력이 없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그러한 형태가 되었다.

이 같은 항공력은 데이터통신과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1980년대의 정보혁명을 거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정보기술에 기반을 둔 혁신으로 인해 지상 및 해상 무기 또한 크게 발전했지만, 항공력의 발전에 비유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정보화로 인해 무기가 정밀해지면서 6.25 전쟁 당시 수천 발을 투하해야 파괴할 수 있었던 교량을, 1991년의 걸프전에서는 1발의 미사일로 정확히 파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6.25 전쟁 당시 교량 파괴를 목적으로 수백 대의 전투기가 동원되었다면, 1991년의 걸프전에서는 1대의 전투기가 이륙하여 수십 개의 교량을 동시에 정확히 파괴할 수 있었다. 이는 6.25 전쟁 당시와 비교하여 1991년의 걸프전 당시 항공력의 효율성이 수천 배로 증대되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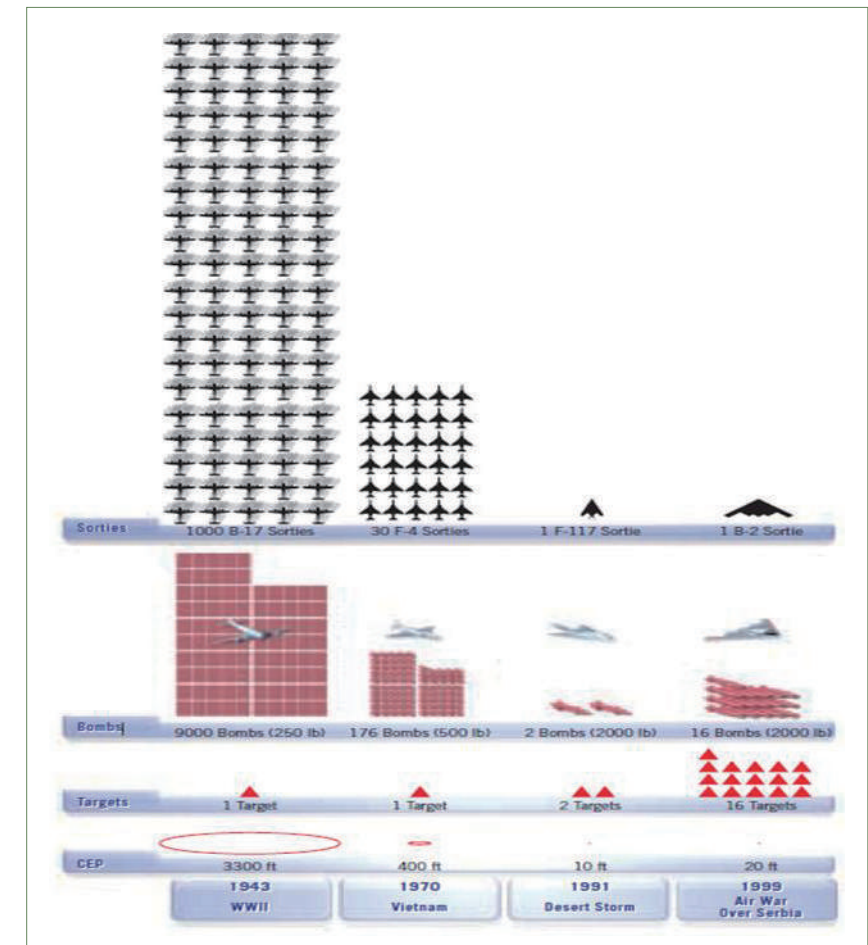
[그림 1]에서 보듯이 1943년 당시 하나의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1,000대의 폭격기가 동원되었고, 각각의 폭격기에는 10명 정도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9발의 폭탄이 탑재되어 있었다. 1999년의 코소보 전쟁에서는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하고 16대의 폭탄을 탑재하고 있는 1대의 폭격기가 이륙하여 16개의 표적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었다. 전투효율 측면에서 보면 16,000

배 효율이 높아진 것이며, 전투 요원 측면에서 보면 5,000배 효율이 높아진 것이다. 폭탄 효율 측면에서도 9,000배 개선된 것이다. 1943년 당시와 비교하여 1999년의 코소보 전쟁에 사용된 지상 및 해상 무기도 발전했지만, 이 같은 항공력의 발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6.25 전쟁 당시 전투기가 34만 회 출격한 데 비하여 걸프전 당시에는 3만회 정도 출격했지만, 이 기간에 전투기의 작전 효율이 16,000배 이상 높아졌다. 이러한 점에서 6.25 전쟁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6.25 전쟁 당시 3년 동안 34만 회 출격했다면 100일 동안 진행된 1991년의 걸프전에는 4억 8천만 대의 전투기가 출격했음을 의미한다. 전쟁 결과를 항공력이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 같은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지구상 각국은 자군의 항공력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그 이유는 지상 및 해상 전력의 우수성 정도에 무관하게 상대방과 비교하여 미흡한 수준의 항공력을 보유하는 경우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불어 동일 국방예산을 투입하여 얻을 수 있는 전투 효율 측면에서 항공력이 지상 및 해상 전력과 비교하여 단연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 외에 오늘날의 항공력은 첨단 과



[그림2] 시대별 항공기의 성능 비교(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쟁, 1991년 걸프전, 코소보전쟁)

출처 : Brigadier General David A. Deptula, "Effects-Based Operations : Change in the Nature of Warfare", Aerospace Education Foundation(Arlington, Virginia : 2001), p. 8.

학기술의 총아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오늘날의 첨단 전투기는 수십 대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운용되며, 이들 전투기에는 오늘날 과학의 총아로 지칭되는 엄청난 규모의 소프트웨어가 내장

되어 있다. 이외에도 첨단 레이더 등 오늘날 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들이 항공기에 내장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경우 항공산업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인 상황이 된 것이다.

2. 한국공군의 실태

현대전에서 항공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전작권 조건부 전환에서 요구하는 군사적 부분, 킬체인과 미사일방어 체계 구축은 공군의 공격작전(Attack Operation)과 ‘미사일 및 항공기 방어 작전’의 부분집합이다. 즉 항공력에 관한 것으로서, 전작권을 전환하려면 강력한 항공력을 구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작권 전환이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던 2000년대 중반 미국은 한국군의 정보(Intelligence) 능력과 항공력 증진을 요구했다.⁴

전작권 전환 측면에서 국방부는 킬체인 등을 구축한다고 요란스럽게 말하고 있다. 북한이 핵 무기를 사용할 징조가 보이면 선제 타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현실은 어떠한가? 국방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말과 행동이 다른 듯 보인다. 한국공군의 현실은 어렵기만 하다. 도태되는 전투기를 제대로 구입할 수도 없는 실정

이다. 결과적으로 적의 표적을 식별하기 위한 정찰 및 감시 수단은 물론이고 항공 폭탄도 제대로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공군의 참담한 현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한국공군의 F-15 전투기는 공대지 폭탄이 없어 전시(戰時)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시(展示) 목적이란 것이다.

“2002년에 기종이 결정되고 2005년부터 공군에 인도되기 시작한 공군의 주력 F-15K 전투기는, 실제론 ‘미사일 없는 전투기’로 드러났다. 2002년 당시 이 전투기가 한국군의 주력 전투기로 선정된 데에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SLAM-ER를 핵심으로 한 탁월한 무장으로 한반도 절대 방위권(주변 500km)을 수호할 수 있는 원거리에서의 작전능력에서 후한 평가가 작용했다. 이런 성능을 충족하려면 이 전투기는 공대지 미사일을 8소티(1 소티는 전투기의 1회 작전을 의미) 분량인 960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도입량은 소요량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11년째 추가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나마도 이런 극소량의 공대지 미사일은 전시비축물자로 분류되어 평시에는 진공 포장된 상태로 창고에서 냉장 보관한 채로 모셔져 있다. 이 때문에 조종사들

4 Bruce E. Bechtol Jr, "Force Restructuring in the ROK-US Military Alliance : Challenges and Implic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X, no. 2(Fall/Winter 2006), p. 22.

은, 이 공대지 미사일을 구경조차 한 적이 없다. 지난 11년 동안 단 두 발을 시험 발사하였는데, 그중 한 발은 바다에 떨어져 분실되어 제대로 시험한 사례는 단 한 발이 전부다.”

조선일보에 기고한 10월 4일의 “육군에 치우친 ‘킬체인’ 무기… 北 이동발사대 못 잡는다”란 제목의 글에서 유용원 기자는, 킬체인 목적의 탄약 가운데 90%가 육군인 반면, 진정 킬체인 체계의 핵심인 항공 탄약은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지대지미사일, 순항미사일은 북한 지하갱도 타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적의 전파 교란에 대단히 취약하다. 킬체인의 핵심은 공군 전투기이며, 탄약은 공중에서 투하하는 공대지미사일이다. 그런데도 배정된 킬체인 탄약 예산의 90%가 육군에 배정되었다고 한다.

2016년 6월 17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주최 발표에서 숭실대학교의 김태형 교수는 오늘날의 전쟁에서 우주 전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일본, 이스라엘과 같은 국가들이 우주 전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우주 전력 건설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지금도 주변국과 대한민국의 우주 전력 격차가 상당

한 수준이지만, 2020년 이후에는 이 같은 격차가 더욱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형적인 특성에 더불어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단일민족 간의 전쟁이란 점으로 인해 항공력이 또 다른 한반도 전쟁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며 주변국들이 항공력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 한국공군의 현실이 이처럼 어려운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이는 한국공군에 배정되는 예산, 국방비 가운데 25% 정도의 예산으로는 기본적으로 매년 도태되는 전투기를 구입하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3. 한미동맹과 한국공군

그러면 왜 공군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는 것일까? 근본 원인은 한미 역할분담에 기인하고 있다. 지상전은 한국군이, 해전과 공중전은 미군이 주도한다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 때문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 노력에 자극받은 미국은 한국군을 전쟁을 도발할 수 없는 군대로 만들기 결정했다. 미군의 지원이 있어야만 제대로 기능하는 군대로 만들기 한 것이다. 한국군을 육군 중심, 특히 보병 중심으로 양성하여 공군 전력

증강을 억제하기로 했다. 공세적 전력인 공군력이 막강해지는 경우 한국정부가 북진통일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한미합의의사록에서 미국은 72만 명, 한국군 가운데 육군 65만여 명, 해군 4만여 명, 공군 1만 6천 5백 명을 유지하도록 만들었다.

이 같은 병력 측면에서의 심각한 비대칭성에 더불어 미국은 한국의 항공력 건설 자체를 억제했다. 이 같은 미국의 노력은 6.25 전쟁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항공의 경종”이란 제목의 자서전에서 초대 공군참모총장 김정렬 장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미국 무관에게 진정서를 보내어 전투기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대답은 역시 ‘No’였다. ...당시 김포비행장에는 미군 소속 B-26 경폭격기 30대가 있었는데, 마침 미군 당국은 이를 해체하여 팔려고 했다. 비행기를 해체하지 말고 한국군에 인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미국 측은 ‘우리의 방침은 이들 비행기를 해체하는 것이지, 한국군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도끼로 이들 비행기를 부숴 고철로 팔아 버리고 말았다. ...민간 채널을 통하여 미국 무기 구매를 교섭했지만 반응은 의외로 부정적이었다. ...미국 정부의 정책이니 별수 없다는 것이었

다. ...”⁵

6.25 전쟁이 종료된 이후에도 미국은 한국공군의 전력 증강을 의도적으로 막았다. “Ideas and Concepts : The South Korean Air Force and U.S. Korea Policy, 1946~1956,”란 제목의 영국 King’s College London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예비역 공군 중장 서진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은 한국군이 공세적 능력을 구비하지 못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군이 강력한 항공력을 구비하는 경우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적대행위를 제기할 가능성을 미국은 우려하고 있었다.”⁶

1961년 5월 16일부터 1979년 10월에 이르는 재임 기간 내내 박정희 대통령은 공군력 증강을 강조했는데 이는 현대전에서 항공력이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의도적으로 항공력 발전을 저지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1961년 11월 14일과 15일 케네디 대통령과의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북한군과 비교하여 해군과 육군은 대등한 수준인 반면 공군은 북한군 전력의 1/4 수준이라

5 김정렬 회고록, 『항공의 경종』(서울 : 대화출판사, 2010), pp. 118-119.
6 So Chin Tae, Ideas and Concepts : The South Korean Air Force and U.S. Korea Policy, 1946~1956, (Seoul : ROK Air Force Academy Press, 2004), pp. 160, 174-183.

고 말했다.⁷ 1967년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에 팬텀기를 요구했다.⁸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부근에 침투한 무장공비 사건과 그 후 3일 뒤에 있었던 원산 앞바다 공해상에서 나포된 푸에블로호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1억\$를 특별 원조해주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여기서 많은 부분을 팬텀기 1개 대대 구입 목적으로 할애하였다. 1969년 4월 1일 아이젠하워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한 육군참모총장 출신의 정일권 국무총리는 닉슨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과거 박정희 의장과 유사한 내용으로 말하면서 한국공군의 전력 증강을 요구했다.⁹

그러나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해 한국군이 전력을 건설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미국이 항공력 건설을 저지했다는 점에서 한국공군은 제대로 전력을 건설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면 국민의 세금으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전력 증강을 추진하던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7 Chae-Jin Lee, A Troubled Peace : U.S. Policy and the Two Koreas (Baltimore :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6), p. 49.
8 Rostow’s memorandum to President Johnson, December 29, 1967 in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4-1968, vol. 29, pt. 1(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0), pp. 305-306.
9 Memorandum of Conversation, Foreign Relation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 Washington, April 1, 1969.

오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왜 한국공군은 제대로 전력을 건설하지 못했을까?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아직도 미국이 한국군 항공력의 발전을 의도적으로 막았기 때문이다. 한미연합사령부에 근무했던 몇몇 육군 장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미국은 공군 전투기 구입할 예산이 있으면 육군 헬리콥터를 대거 구입하라고 말했다고 한다.¹⁰ 육군 입장에서 보아도 미국이 한국군의 전력 증강 방향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헬리콥터의 경우 한반도 작전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전시 사용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성격이란 점이 문제였다.

둘째는, 한국군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파워가 막강한 육군이 공군과 무관하게 대거 항공력을 획득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반 이후 몇 년 동안 미 육군이 항공력 획득을 위한 논리로 군단장이 전구 항공력을 지휘 통제하며 전쟁을 수행한다는 의미의, 그리고 육군이 여건조성 차원에서 헬리콥터 및 지대지미사일과 같은 자체 항공력을 대거 운용해야 한다는 의미의

10 이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다. 그러나 미국이 왜 공군 전투기를 중심으로 한 공군 전력 발전을 지속적으로 막고자 했는지에 관해서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공지전투(Airland Battle) 교리를 정립했다. 이 같은 공지 전투 교리를 한국육군이 그대로 수용했다. 문제는 1986년도의 골드워터-니콜스 법을 계기로 미 육군도 공지전투 교리를 포기한 채 전구의 모든 항공력을 공군 구성군사령관이 통합적으로 지휘 통제해야 한다는 공지작전(Airland Operation) 교리를 수용했다는 사실이다.¹¹

한반도 공중전은 전구항공력을 공군 구성군사령관이 통합적으로 지휘 통제한다는 개념에 입각하여 수행될 것이다. 이는 모든 미군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도 한국육군은 육군이 공중전을 주도한다는 잘못된 개념에 입각하여 헬리콥터와 지대지미사일의 대거 획득을 추구했다. 여기에 더불어 해군도 함대공 미사일 등 한반도 공중전 가운데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자 노력했다. 여타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국방비 가운데 항공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이다.¹² 우리의 경우 매년 공군이 25%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해군과 육군이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군은 인공위성과 같은 정찰 및

감시 수단은 물론이고 공대지미사일과 같은 필수 탄약도 제대로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육군과 해군이 미사일과 같은 자군 중심의 무기를 대거 획득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반면, 25% 정도의 공군 전력증강 예산으로는 도태되는 전투기 획득도 곤란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육군과 해군이 구입하는 항공무기가 공군 무기체계와 비교하여 효과나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전시 사용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육군과 해군이 대거 항공력을 구입하면서 육군과 해군은 공군 항공력은 미군에 의존하면 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전략권 전환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경우 공군 전력을 대거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1950년대 이후 미국이 추구해온 한반도 국방정책, 한국군의 경우 지상전만을 주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미국의 한반도 국방정책으로 인해 공군 전력 증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서글픈 사실이다. 자국의 세계전략으로 인해 한국공군의 전력 신장을 저지해야 할 것이라는 1950년대 당시의 미국의 한반도 국방정책이, 군사원조를 벗어나 대한민국이 국민의 혈세로 전력을 획득하여 운용하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명위를 떨치고 있다.

11 Morrison Taw, Robert C. Leicht, The Doctrinal Renaissance of Operations Short of War?, RAND(1992), pp. 23, 31-32

12 Barry R. Posen, The Source of Military Doctrine(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4), p. 31.

4. 결론 및 제언

오늘날 한국 육군, 해군 및 공군은 상당한 규모의 항공력을 독자적으로 획득하여 운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올바른 방안이 아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육군과 해군이 평시 지대지미사일 등 많은 항공력을 획득하고 있지만, 전시 이들 전력을 육군과 해군이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군 구성군사령부가 통합적으로 운용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지대지 미사일, 헬리콥터, 함대지 미사일과 같은 항공무기의 경우 육군과 해군 입장에서 보면 우선순위가 높을 수 있지만, 한국군 전체를 놓고 보면 인공위성, 공군의 전투기와 같은 체계들과 비교하여 우선순위가 높을 수 없다. 국방예산 부족으로 인공위성, 공군의 전투기와 같은 한반도 전쟁에서 핵심적인 체계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효율성과 효과

성이 떨어지는 무기를 대거 구입하는 전략은 큰 문제가 있어보인다. 특히 전시에도 이들 무기 사용 권한도 갖고 있지 않은 육군과 해군이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전시 공군 구성군사령부에서 이들 무기를 통합적으로 운용하는데, 한반도 공역(空域)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효과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들 무기는 전시에 운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왜냐하면, 이들 무기를 대거 운용하는 경우 공중 공역에 교통 체증이 발생하여 공군의 전투기와 같은 효율적인 무기의 운용이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군은 헬리콥터, 지대지미사일, 해군 정찰 및 감시기 등 한반도의 모든 항공력 관련 조직을 통폐합한 후, 한반도 전쟁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체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획득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전략이 최우선으로 진행되도록 간절히 바란다. ☒



강진석
25기
명지대학교
객원교수



스테이트크라프트(Statecraft)와 국가안정보장

- 리더십 철학과 국가안보의 핵심으로서 항공우주력에 대한 이해 -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 대통령이 선출되어 격동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촛불혁명과 태극기 집회를 보면서 역사는 냉엄하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모든 국민들은 나름대로 소회와 느낌이 크다.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면서 과연 '대통령의 자격은 무엇인가',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모든 국민들이 이번처럼 심각하게 해본 적이

없다. 또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진보성향의 새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서 기대반 우려반 걱정이 큰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번에 치러진 선거에서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이 크고 따라서 헌법 개정이라는 큰 화두를 두고 전개되었다. 어떻게든 이번에는 87년 체제를 종결짓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자는 것에는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있고 그러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시기에 짚어보아야 할 것은 과연 어떤 대통령이 이 시대에 요구되는가 하는 것이다. 즉 '대통령의 자질은 무엇인가', '어떤 능력을 구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과 주변 강대국들의 국수주의적 태도가 고조되는 시기라 더욱 그렇다.

그동안 리더십은 과학적, 실증주의적 이론 중심으로 발전한 결과 성과 극대화를 위한 조직의 효과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경영·심리학적 측면에서 발전되었고 이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다 보니 목적 가치와 윤리성의 결여로 방향을 상실하여 현대는 '리더십 위기의 시대'로까지 불리고 있다. 인류문명의 대전환기에서 과학과 실증주의만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인간 중심, 원칙 중심 그리고 정의와 윤리와 도덕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로에 선 대한민국 리더십의 위기

는 리더십 스킬의 부재가 아니라 리더십 본질에 대한 철학의 부재에 있다. 통일의 시대를 이끌어 갈 미래 지도자들은 어떻게 리더십 철학을 실천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끝없는 탐구가 요구된다.

한국적 리더십 모델이 요구되며 개인 차원, 사회 차원, 기업 차원, 국가 차원 그리고 국가영도 역량(Statecraft)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통하여 21세기 통일 한국 지도자 육성을 위한 과제와 실천 방법론이 요구된다.

이러한 대통령 자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연구된 것은 없다. 2013년 윤여준이 쓴 '스테이트크라프트'가 유일하다. 여기서는 개괄적인 문제 제기 차원에서 한국적 스테이트크라프트 모형을 구상해 보기로 한다.¹

1. 리더십 철학과 대통령 리더십 연구방법

일반적으로 리더십이란 영향력을 말하며 조직 차원, 인적자원 차원 그리고 관리 차원으로 그 영역이 구분된다. 조직 차원은 기본적인 조직 성원

¹ 자세한 내용은 강진석, 「리더십 철학」(동인, 서울, 2014), 참조.

과 지도자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한 영향력 행사를 말하며 공적, 개인적, 일반적인 조직이 그 예이다. 인적자원 차원에서는 순수 인간관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리더십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군 리더십이 대표적인 예이며, 관리 차원은 조직경영 및 관리 차원의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권력과 영향력의 관계로서 기업경영 차원에서 CEO의 예를 들 수 있다.

정치적 리더십은 일반적인 리더십과 또 구분된다. 정치란 정치사회를 구성하는 성원에게 공통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적절한 정책을 입안하여 결정하는 일이 정치의 중심적 기능이다. 따라서 정치지도자의 과제는 정치사회가 놓여있는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추구하여야 할 목표 가치를 식별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일반 대중에게 뚜렷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정치적 리더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역량이 식별될 수 있다.

최근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역량은 무엇인가?'하는 데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역량은 일반적인 리더십 역량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일반조직 또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역량과는 다르다. 이점은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바 있고, 최근 진행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논란의 핵심적 사안이다.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Statecraft는 일반적인 리더십과 정치적 리더십과는 또 다르다. 물론 대통령이 정치적 충원 과정을 통해서 선출되기는 하지만 일반 정치적 리더와 구별되는 특별한 영역이 존재한다.

대통령연구방법에는 법적 제도적 접근방법, 정치 권력(Political Power)적 접근 방법, 심리학적 접근 방법, 스테이트크래프트 연구 방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연구 방법인 법적 제도적 차원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심리적 차원의 연구와 리더십 역량 차원의 스테이트크래프트 연구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2. 스테이트크래프트 접근법

Statecraft는 흔히 통치술로 번역하거나 외교적 용어로서 외교술 또는 외교정책을 의미하는 용어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와는 다른 차원이다. 윤여준은 Statecraft를 '국가를 다스리는 실천지(實薦智, Prudence)로서 특히 근대국민국가라는 특수유형의 정치공동체를 창설, 유지,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집단적 결정과 그 실행을 관

리 감독하는 실천적 능력'으로 정의했다.

statecraft는 국가위기 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리더십이다. Statecraft는 정치적 복잡성과 상호관련되어 그 관계는 각 이슈들의 세부사항을 단순히 통합하는 것 이상의 특별한 논리의 지배를 받는다. 그 이슈들에 각각의 명확성을 부여하는 문법이자 그것들을 연계시키는 논리와 법칙, 이것이 바로 포괄적이고 타당한 의미의 Statecraft이다.

따라서 그 특징은 '분별력 있는 실천지'로서 첫째, 여러 목표 간, 그리고 현재와 미래 목표 간의 균형을 중시한다. 둘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측면 특히 상황적 맥락을 중시한다. 셋째, 정책적 선택은 기본적으로 딜레마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과감한 결정이 요구된다.

국내에서 그간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었지만 한국적 Statecraft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연구는 없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윤여준이 2011년의 저서 『대통령의 자격』에서 이 같은 접근을 통해 한국대통령의 Statecraft를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저술은 학술적 연구가 아니어서 이론적 논거가 부족하다.

3. 한국적 스테이트크래프트 모형

한국적 스테이트크래프트 모형은 어떻게 구상할 수 있을까. 우선 윤여준은 한국의 미래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인간에 대한 믿음과 이를 바탕으로 자아의 완성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려는 자기 철학의 정립이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겸허한 태도가 요구된다. 대통령으로서 자질과 능력 보유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①언어 구사 능력 ②언어의 일관성 여부 ③언행의 일치 ④금도(襟度)의 준수 여부이다.

둘째, 건전한 사회관: 사회에 대한 이해 혹은 사회관 내지 시민관도 중요한 요소이다. 올바른 사회관의 식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요구된다. ①가부장적, 남성 중심, 전체를 위해 부분적 희생을 강요하는 유기체적 가치관 ②인간의 사회적, 공동체적 성격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경향, 경제적 효율성이나 법치주의만 앞세우며 약자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하는 정치세력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 ③사회영역과 국가영역의 구분이 중요하다. 사회는 연대성과 공동체를 생명으로 하지만 자율성 위에서 확보되어야 한다. 국가의 공권력이나 강제력을 통해서 공동체성이

나 연대성을 제고하려 해서는 안 된다.

셋째, 균형 잡힌 국가관: Statecraft의 핵심으로서 무엇보다도 헌법적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 헌법적 제도적 가치가 특정 이념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넷째, 건전한 통일관: 국가와 민족에 대한 기본 입장이 중요하다. 민족통일은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국가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데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 동포와 북한 당국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다섯째, 고도의 식견(암묵지): 국정운영의 전문성으로서 특정 분야의 기술자적 전문성이 아니라 한 분야에 정통해지는 과정에서 획득한 국가 사

회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그 운영 능력을 의미한다. 암묵지로서 고도의 식견이 필요한 것이 경제와 안보 분야 문제이다.

여섯째, 조직의 관리능력과 경력 및 도덕성: ① 전문성과 더불어 사람과 조직의 관리능력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리더십과 공공리더십은 다르며 차이가 있다. 국가의 공공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관리능력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 지도자가 국정운영의 책임자로 선출되는 것은 위험하다. ② 경력과 도덕성에 있어 비전이 중요하며 지도자의 경력을 포함한 전 생애를 통해 구현된 가치체계가 비전이라 할 수 있다. 비도덕적 수단으로 지도자가 되면 국정운영에서도 부

미래통일한국지도자	조화안보통일 리더십 역량	
	국가관리/공공리더십 역량, 정치적 리더십 역량, 안보/통일 리더십 역량	
정치/안보 지도자	정치적 리더십 역량	안보/통일 리더십 역량
	공공성(정의성)과 도덕성 올바른 역사관과 사명감 비전과 통찰력 이슈창출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조직력 건강과 폭넓은 식견 책임감과 국민에 대한 진솔한 애정	건전한 안보관(전쟁철학과 평화관) 건전한 국가관/통일관 정의의 실현 의지 노블레스 오블리주 분별지의 균형 및 실천
국가관리/공공지도자	국가관리/공공리더십 역량	
	그린(Green)리더십 역량, 창조리더십 역량, 융합리더십 역량, 완성된 리더십(THE Leadership)	
지도자 교육/훈련 시스템		

도덕한 짓을 일삼고 각종 물의를 야기하며 국민 정서와 기풍을 타락시킨다.

윤여준이 제시한 이러한 Statecraft 덕목은 미래 통일한국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적용해야 할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덕목 중에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나 건전한 사회관, 조직의 관리능력, 경제에 관한 식견 등은 일반 정치 지도자 역량에 속한 것들이며 건전한 국가관, 통일관, 안보관 등은 안보·통일에 관한 역량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화 통일(Harmony Unification)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에게 요구되는 한국적 Statecraft 모델은 다음과 같이 구상해 볼 수 있다. 각 요소들에 대한 분석과 설명이 요구되나 지면 관계상 여기에서는 분석 결과만 제시하기로 한다.²

4. 스테이트크래프트와 국가안전보장

한국적 Statecraft 모델에서 제시된 건전한 안보관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분별력 있는 건전한(Prudential) 전쟁철학과 평화관이다. 전쟁철학은 3가지로 구성되는데 그것은 ①전쟁과 평화 ②전략의 철학 ③전쟁과 정의(正義)이며 이 중에서

전략의 철학은 어떻게 건전한 전쟁/군사전략으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³

한국의 미래 정치 지도자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식견은 안전보장 문제와 경제 문제이다. 여기서는 한반도 안전보장 문제만 다루기로 한다. 한반도 안전보장 문제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한반도 문제는 3가지로 구성된다. 그것은 첫째 북한의 핵문제. 둘째, 통일문제. 셋째,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문제이다. 이 세 가지 문제는 각기 다른 사안이면서도 하나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다. 기묘한 삼위일체를 이룬다. 마치 클라우제비츠가 말하는 현실 전쟁이 인적요소(국민), 우연의 요소(군사, 군대), 지적 요소(정부)가 각기 경향으로서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다. 따라서 이것은 어느 하나만 독립적으로 해법이 있을 수 없다. 더욱이 북한이 핵 무장을 하고 그것을 빌미로 핵군축을 주장하고 나선 마당에서는 더욱 그렇다.

핵 무장이 완료됨으로써 그간의 비핵화를 전제로 했던 모든 대북 안보 통일 정책들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2 자세한 내용은 강진석, 앞의 책, pp. 330-397, 참조.

3 전쟁철학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강진석, 『현대 전쟁의 논리와 철학』 (동인, 서울, 2012) 참조.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게 되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것은 안보 통일 정책 전반에 걸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의 면밀한 검토와 조정이 요구된다. 그간의 통일 정책은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한 채찍과 당근 정책으로서 햇볕정책(포괄적 상호주의 적용)과 비 햇볕 정책(엄격한 상호주의 적용)으로 논란을 벌여왔다. 그러나 두 정책 모두 안보는 대북 우세를 전제로 한 비교적 여유 있는 정책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북한보다 우월한 군사력과 대비태세로 국가의 안전보장 문제는 없는 것으로서 군사적 안전을 전제로 한 정책 들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핵 무장을 하게 됨으로써 그러한 정책들은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제 핵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한 우리의 안전보장 문제가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북한은 핵 보유를 헌법에 명기하는 등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전제로 군축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핵으로 안전을 담보하고 통일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통일전선전술을 전개해서 적화통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오랜 준비와 노력의 결실을 맺고자 단계적인 접근을 하며 이제 한 단계 높여 대남전술을 구사할 것이며 그것은 군사적 압박과 대대적인 평화공세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5차원 3원 전략이 요구

된다. 필자가 최근의 저서 ‘현대 전쟁의 논리와 철학’ 그리고 ‘클라우제비츠와 한반도 평화와 전쟁’에서 밝힌 바 있듯이 다섯 가지 차원의 삼위일체 전략은

첫째, 국민의 건전한 전쟁철학과 안보관 정립이 요구된다. 전쟁과 정치에 있어서 평화의 확고한 개념. 전쟁과 군사에 있어서 억제와 군비통제 그리고 비살상 정밀타격전의 제한전을 통한 정치적 목적수행으로 제한되는 전략의 철학 정립. 그리고 전쟁과 윤리 도덕적 측면의 유스 에드 벨룸(Jus ad Bellum, 전쟁개시의 정의), 유스 인 벨로(Jus in Bello, 전쟁 수행의 정의), 유스 파스트 벨룸(Jus Post Bellum, 전쟁 종결의 정의) 3가지 차원의 정의관이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국제체제 안보를 확립해야 한다. 국제체제 안보는 사회체제안보, 국제체제안보, 개별국가의 안보로 구성된다.

셋째, 철저한 기반안보를 확보해야 한다. 기반 안보는 정부대책, 군사대책 그리고 국민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넷째, 북한과 한반도 문제(핵문제, 통일문제, 평화체제 구축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 협력안보를 촉진하며 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 북한에 대하여 핵을 포기하는 대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한 안보를 우리 스스로 제공하는 안보-안보교

환의 상호주의를 발전시켜 신뢰구축을 토대로 단계적 통일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 가치의 정립이 요구된다. 그것은 ‘성통광명(性通光明), 제세이화(制世理化), 홍익인간(弘益人間)의 단군정신으로서 우리민족의 정체성(Identity)과 국제성 그리고 인륜의 이념이 농축된 한(韓)철학과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라 할 수 있다. 국가가치로부터 국가이익이 식별되고 이로부터 국가목표 및 국가정책과 전략이 추구될 수 있으며 목표-가치 접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확고한 국가가치를 정립하고 국민이 혼연일체 되어 북한과의 정치 사상전에서 승리할 때, 안전하고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5. 국가안전보장과 국방개혁의 핵심으로서 항공우주력에 대한 이해: 실전 기반 억제와 ‘신속결정정밀타격체제’(Kill Chain)

북한 핵에 대한 군사 대책으로 제시된 것이 실전 기반 억제로서 킬체인이다. 킬체인은 조기경

보정밀타격체제(C4ISR PGM)에서 타격중심 체제를 말하는 것으로서 탐지-식별-분석-평가-타격-결과분석(F2T2EA)의 ‘신속결정정밀타격체제’를 말한다. 국방부의 대책은 초점이 미사일에 맞추어져 있고 지대지 미사일 구매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항공력이 핵심이다. 미사일에 의한 정밀 공격 능력은 후사면 공격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로 제한되고 국방부가 목표로 하는 북 핵의 공격 움직임 탐지 30분 이내 타격 목표 달성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 있어 항공기에 의한 정밀공격이 유일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북 핵 억제와 안전하고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공우주력 건설이 중요하다. 그동안 공군이 국방개혁의 핵심으로서 항공우주력 건설을 주창해 왔는데 그것의 진실성이 북 핵 억제 및 타격 대책의 유용한 대안으로서 증명된 셈이다. 북한 핵에 대한 억제 실패 시 무력화 대책으로서 미사일과 공군력에 의한 정밀타격이며 이를 위해서는 항공우주무기체계 전력의 체계적 조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



박준홍
24기
항공안전단
자문위원



Human Error에 의한 비행사고 예방 방안

- 레질리언스 4대 기능 요소를 중심으로 -

I. 시작하며

안전(Safety)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겠지만 공군은 인명의 사상 또는 물자 파괴 등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저해하는 위협에 직면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나 현실적으로 위협이 없는 상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조직이나 체제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위협이 존재하는 상태라고 정의하며, 안전관리

목표는 공군의 인적, 물적, 환경적 제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무위의 전력 손실을 방지하고 최대 전투력을 발휘하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안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화적 안전관리를 지속 적용·발전시킴으로써 사고예방에 획기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2014, 15년에는 2년 연속 비행무사고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1980년부터 2015년까지의 비행사고 통계를 요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인적오류(Human Error)에 의한 사고가 약 70%를 차지하며 최근에는 100%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비행 사고를 예방하려면 Human Error에 의한 사고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라 여겨진다.

2014년 12월 'Flight Safety Seminar for

CAAs and Operators'에서 Denmark의 Erik Hollnagel 교수가 발표한 "A New Approach To Safety Management : From Safety Management To Resilience Engineering" 과 2015년 11월 제21회 '항공안전과 Human Factors 세미나'에서 KAIST 윤완철 교수가 발표한 "시스템 안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레질리언스 공학"이 인적 요인(Human Factors) 사고 예방에는 아주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되어 그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 공군비행 안전관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16년간의 사고조사와 안전 분야 근무 경험을 토대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인적오류(Human Error) 비행 사고에 대한 이해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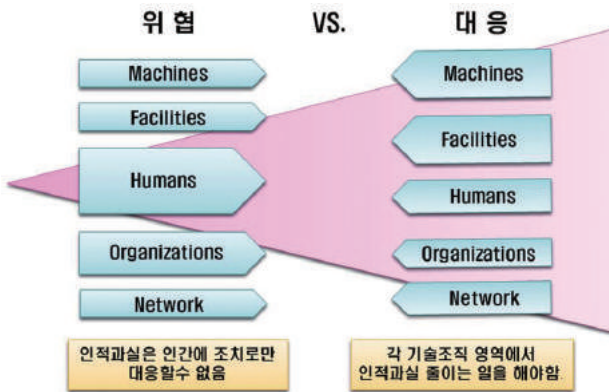
비행 사고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조종사 인적요인(Human Factors) 중에는 기재 취급 실수, 조작과실 등과 같은 사고 원인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다. 과거 사고조사 시에는 인적오류(Human Error)가 기재되어 있다고 밝혀지면 사고 원인이 규명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여기에 등장하는 실수 또는 Error가 어떤 의미로 표상되고 그 영향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면 국어사전

비행사고 통계

구분	인적요인	자재요인	환경	기타	계
'10년대 ('10~'15)	8 (100%)	0	0	0	8
'00년대 ('00~'09)	17 (71%)	6	1	0	24
'90년대 ('90~'99)	20 (65%)	11	0	0	31
'80년대 ('80~'89)	33 (70%)	13	0	1	47
소계	78 (71%)	30 (27%)	1 (1%)	1 (1%)	110

에 실수는 '조심하지 아니하여 잘못함 또는 그 행위'로 정의되어 있고, 그와 비슷한 용어인 과실이나 과오는 '부주의나 태만 따위에서 비롯된 잘못이나 허물'로 정의한다. 사전적 의미로 사고 원인을 적용하면 사고의 근본 원인이 사고를 당한 한 조종사 요인으로 한정되고 유사 사고 예방 대책도 한정될 수밖에 없다. 과연 올바른 조사결과이며 예방대책일까?

'실수 또는 과실'과 동의어로 생각하는 영어의 Error는 영한사전에 의하면 '무의식중에 저지른 실수'로 풀이되고 그와 유사한 Mistake는 '원칙, 규칙 등에 대한 무지, 판단의 오류, 오해 등으로 일어나는 잘못'으로 정의하고 있어 우리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Error는 지식의 부족, 기억의 실패, 판단의 오류 등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즉 인간의 특성이나 한계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사고 조사는 잘못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하게 하였는가를 찾아야 한다. 특히 최신 무기체계는 기술사회의 복잡성과 결합밀도 속에 예측 불가한 실패가 이미 심겨 있고 복잡한 시스템은 그 자체로 위협하며 너무 안전한 시스템의 위협성은 연구하거나 심지어 의식하기도 어렵다고들 한다. 반면에 인간은 많은 훈련과 숙련도에도 불구하고 오류를 범하기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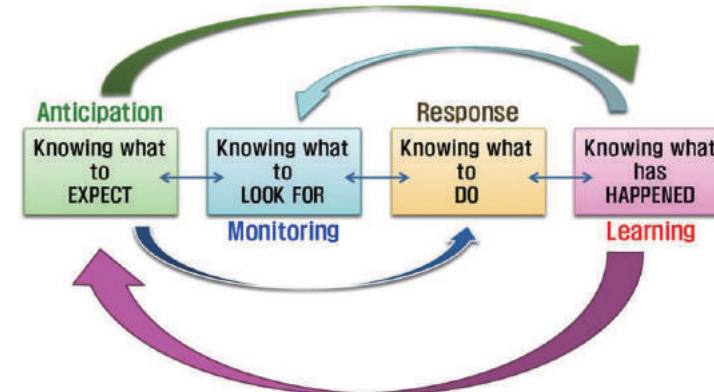


출처 : KAIST 윤완철 교수 세미나 발표('15.11)자료

(Human Error)를 인간에 대한 조치로만 대응할 수 없고 아래 표와 같이 Machines, Facilities, Humans, Organizations, Network의 각 기술 조직영역에서 인적오류(Human Error)를 줄이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III. 레질리언스(Resilience) 4대 기능요소 활용

레질리언스(Resilience) 공학은 성공과 실패를 같은 동전의 양면으로 보며 안전시스템 관리의 기존 접근법에 대한 주요 대안, 특히 Human Error 사고 대응 대안으로 등장했으며, 정상적인 수행상태란 조직이나 개인이 효율성과 완전성을 늘 절충하면서 이루어 내는 것이라는 것이다.



출처 : KAIST 윤완철 교수 세미나 발표('15.11)자료

레질리언스(Resilience) 4대 기능요소와 상호 연관은 아래 도표와 같으며 이를 매일 잘 활용하는 것이 인적오류(Human Error)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다.

Learning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며 왜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으로 이는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 비행 비화 자료 및 교범에 명시된 공통과실, 사고로 연결되지 않은 실수에 대한 정보의 교환을 통해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풍부한 정보를 획득 이해한 사람은 주어진 임무에 대한 위협들을 식별해 낼 수 있고 이를 토대로 Monitoring도 Anticipation도 정확히 적시에 할 수 있다.

Response는 효율적이며 유연한 방법으로 표준 및 비표준 상황에 민감히 반응하는 것으로 하

나의 잘못이 식별되면 더 큰 사고로까지 발전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또는 한 개인, 한 부품에만 국한된 것인가? 전체에까지 내포된 것인가? 전체에까지 내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2016년 F-16D 1대가 비행 중 엔진이 정지되어 추락한 사고가 있었는데 조사결과 원인

은 잘못 생산된 한 종류의 엔진 부품이 장착되어 운영 중에 파단된 것이었으며 유사 계열 엔진 부품에서도 동일하게 사고를 일으킬 결함이 발견되었다. 이 결함은 2012년 외국에서 사고로까지 발전되지는 않았지만 동일 부품의 파단이 최초 식별되었음에도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한 부품의 문제라고 종결함으로써 우리의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Response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Monitoring은 단기간의 전개 상황이나 위협들을 모니터하여 Risk Models를 수정해가며 적용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 공군이 운영하는 GPS ACMI System이 Monitoring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비행기록 장치(Flight Data Recorder, 비디오/음성 녹음자료 등)를 비행 후에 분



석하여 위협요소들을 식별한 후 다음 비행에 반영하는 것이다. Monitoring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착안점을 가지고 모니터할 것인가?’ 인데 이는 Learning에서 얻은 정보들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Monitoring을 잘 활용하였으면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었던 사례로 2008년 7월 정찰기인 R-4C(현재는 도태된 항공기)가 공중 전투기동 중에 조종불능 상태에 진입되어 회복하지 못한 사고를 들 수 있는데, 당시 조종사는 우수한 기량 소유자였으며 대체로 기동을 제한하고 있는 항공기 최대 성능 영역에서 전투기동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Monitoring이 되지 않음에 따라 이 위협이 식별되지 않고 Risk 관리가 안되어 결국 사고로까지 발전된 것이었다.

Anticipation은 장기간의 위협들이나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예견하는 것으로 획득된 정보들은 Response에 반영되고 또 Learning 자료로도 Feed Back 되어야 한다. Anticipation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필자는 사령부 안전 참모로 근무할 때 위협을 예견하고도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뼈아픈 경험을 하였는데 이를 소개하여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1998년 5월 8일은 Black Eagles Air Show의 모든 과정을 국내 민간 방송사가 주관하여 공중 촬영하는 날이었기에 사령부 차원의 안전관리가 필요하였다. 안전 참모로서 어떤 위협을 예견하고 관리하도록 해야 할까? 고심하던 중 안전관리 자료에서 외국 공군의 ‘공중촬영 임무 중 공중충돌 사고’ 사례를 발견하고 우리도 이런 사고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중충돌 예방에 대한 관리를 잘하면서 비행하도록 임무요원들에게 당부하였다.

그러나 이륙 약 24분 후 Leader인 1번기와 2번기가 공중 충돌하여 Leader가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면 왜 공중충돌을 예견하고도 사고를 차단하지 못하였을까? 사고는 비행중 항공기 점검 및 조종사 긴장 완화 등을 위한 점검시간 없이 촬영에만 몰입하여 연속비행함으로써 2번기 조종사에게 비행착각이 유발되어 일

어났다.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속비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관리까지도 해야만 했다. 이러한 Anticipation이 어렵기는 하지만 Learning을 통해 획득한 정보가 세부적이고 깊이가 있으면 정확히 적시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제기한 것같이 레질리언스(Resilience) 4대 기능요소를 잘 활용하면 규정·절차에 입각한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수 있기에 안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은 말

레질리언스(Resilience) 4대 기능요소를 누가, 언제, 어떻게 활용하면 더욱 효율적일까? 우리 공군은 이미 이를 위한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고 일부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정착시킬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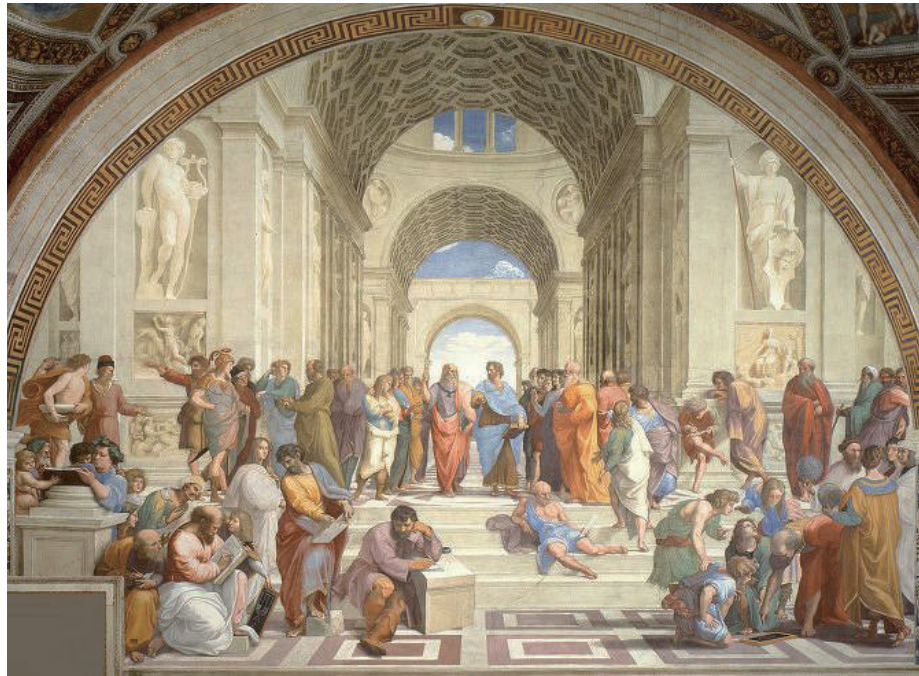
먼저 비행대대 조종사들과 정비부서 요원들은 매일 부여된 비행과 정비가 절차에 맞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Monitoring 하여 잘못되고 있는 것이 식별되면 수립된 절차의 문제인지, 교육의 잘못인지, 개인 또는 공동의 문제인지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조치하고, 비행단·사령부·공군

본부의 안전조직 근무 요원은 각 부서 차원에서 Monitoring과 Anticipation을 하여 Machines, Facilities, Humans, Organizations, Network의 각 기술 조직영역에서 개선하고 보완되도록 조치함으로써 인적오류(Human Error)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혹여 인적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사고로까지는 발전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레질리언스(Resilience) 4대 기능요소 활용을 위한 활동은 매일 꾸준히 연속성 있게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인적오류(Human Error)에 의한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공감대와 열정이 관련 요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더욱 좋은 안전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활용하기 위한 활동 중에 잘못이나 미흡 사항이 식별되더라도 이것으로 인한 문책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전은 이런 정보가 쉽게 교류되어야 하는데 문책이 이루어지면 더 큰 사고 위협이 있더라도 노출되지 않고 숨겨져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가 전문적으로 글 쓰는 사람이 아니기에 둔한 필체로 쓴 글이지만 누군가는 읽고 안전 공감대를 가져줄 것이라 믿으며 기대해 본다. ✕



이재강
24기
아주대
겸임교수



사관학교 교육에서 인문학의 의미와 역할

1. 들어가기

학문에 임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두 가지 기본 조건이 있다. 하나는 각 학문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그 학문이 발전해 온 과정 즉 그 학문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관학교 교육에서 인문학의 의미와 역할’이라는 주제를 논하려 하니, 앞의 두 가지 사항을 어느 정도 정리하여야만 논의가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다. 인문학에 관련된 용어의 정의가 너무 다양하고, 이러한 개념은 시대적 변천에 따라 그 의미가 끊임없이 변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인문학의 개념을 정리한 다음, 시대적으로 인문학이 어떻게 사회 진보에 기여해 왔으며, 군사 목적 대학인 사관학교에서 인문학의 의의와 역할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1. 인문학의 정의

인문학의 의미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인문학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영어 ‘humanities’의 번역어로서 한자로는 人文學이라고 적는다. 한자문화권에서는 선비가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으로서 문학(文)·역사(史)·철학(哲)을 보통 인문학의 간단한 정의로 본다(최장순, 2016).

한편, 서울대학교 김영식 교수는 인문학을 ‘인문학과 과학’이라는 시각으로 고찰하였다(김영식,

2009). 오늘날 인문학과 과학은 흔히 서로 상반되고 대립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문과와 이과를 엄격히 구분하는데, 인문학과 과학은 반드시 두 가지가 상반되거나 대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인문학이 ‘인문학’이라고 불리는 것은 지식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공부와 연구의 방법과 정신으로 보면서 ‘학’이라기보다는 ‘방법’, ‘정신’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고대 그리스 소피스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인문학에 이르기까지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인문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하나는 인문학을 사람을 위한 학문,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학문이요, 사람을 교양인으로 만드는 학문이며, 사람을 분별력 있게 만드는 학문이라는 뜻이다. 다른 하나는 인간에 관한 학문, 인간을 주제로 한 방법론으로서의 학문”이란 뜻이다.

2. 인문학의 의의

그렇다면 과연 인문학의 존립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인문학의 목적은 전문지식을 일상생활과 연결하는데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과 같은 사람은 인문학을 법률가·의사·상인이 되기 위한 기본과정으로,

‘사람이 최대의 자산’이라고 주장한 현대 경영학의 대부 드러커(Peter F. Drucker)는 경영학이 일종의 기술이기도 하지만, 또한 인간의 성장발달이나 가치관을 다루는 학문이라 하였다.

하지만 인문학은 특정 분야의 일꾼으로서의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게 하기에 앞서, 먼저 ‘사람됨’을 깨우치고 ‘사람답게 사는 법’을 깨닫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도 한다. 삶의 내재적 목적인 자아실현을 위해 어떤 인간이 되려고 하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기 위한 지적 시도가 바로 인문학이다. 한 마디로 인문학의 목적은 인간의 자기인식에 있다.

인문학의 참된 의미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닫는 것과 삶의 과정을 통해 지향해야 할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마음을 주고받는 소통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인문학적 사고란 문학적 상상력, 역사적 추정력, 철학적 사변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문학적 사고가 사회를 움직이게 하고, 생명력 있게 하고, 꿈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간다고 본다.

인문학적 사고가 없으면, 주어진 현상에 그대로 머무르게 될 뿐, 민주주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개념들을 이해할 수 없다. 시민성이라든지, 남녀 성 평등, 군대에서의 명령과 복종, 국가관, 사생관 등 가치를 자기의 것으로 체화할 수가 없다.

또한, 인문학적 사고가 없으면, 조직을 새로운 방향, 이상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갈 힘이 없고 그렇게 되면 조직은 정체될 수밖에 없다.

II. 인문학의 발달 과정

1. 서양의 인문학

가. 르네상스 시기의 인문 교양교육(liberal education)

인문학의 서양적 어원 ‘후마니타스(humanitas)’ 개념이 되살아 난 것은 14세기 말 이탈리아의 학자들에 의해서이고, 이 개념이 본격적으로 널리 사용된 것은 15세기 초에 이르러서다. 르네상스 시기 인문주의자들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전통을 모범 삼아 ‘인간다움’을 따르고자 개인적으로는 고전문학으로 대표되는 과목들을 통해 교양 있는 사람을, 사회적으로는 자유의식과 책임의식이 조화된 건전한 시민을 기르고자 하였다.

중세의 교양교육은 15세기 말 초급단계인 라틴어 학교, 중급단계인 김나지움, 그리고 고급단계인 대학 등 3단계 학제가 형성되면서 교양교육 교과도 세분화 되었다. 라틴어 학교에서는 읽기, 쓰기, 라틴어 문법, 음악, 종교 등을 교육하고, 김나지움에서는 변증법, 수사학, 시학, 수학, 그리스어, 윤리, 역사 등을 교육하고, 대학에서는 신학

부, 법학부, 의학부, 철학부 등 총 4개의 학부로 나누어 교육하였다. 덕의 실천적 면이 감소되고 세부 교과목의 인식론적 체계가 강화된 셈이다.

나. 19세기 영국의 인문교양교육

19세기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의 결과 개인들의 생활이 여유로워졌고, 과학기술과 산업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교육적 변화에의 열망이 뜨거웠다. 그때까지의 대학은 성직자와 법률가 양성에 주력하였으나, 국가와 사회는 보다 다양한 전문 지식인이 필요했다. 이는 결국 전통인문교육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고, 비판의 대안으로 근대 과학에 입각한 새로운 형태의 지식과 근대사상을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이 생겨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19세기 영국의 인문교양교육을 주도한 사상이 중 총체적 학문으로의 단초를 제공한 인물로는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을 꼽을 수 있다. 밀의 인문교양교육에서 문학과 예술만큼 강조한 또 하나의 분야는 자연과학이다. 밀은 인간을 둘러싼 우주를 알지 못하고는 인간을 알 수 없다고 보고, 자연과학을 통해 외적 세계에 대한 탐구를 해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자연과학으로부터 우리는 가설의 설정, 관찰과 실험, 추론 등을 통해서 진리로 다가갈 방법을 터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19세기 영국의

인문교양교육에 있어 밀의 관점은 자연과학과 예술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면서 인문학의 외연을 르네상스 시기보다 확장했다는 점이다.

다. 20세기 미국 존 듀이(John Dewey)의 인문학

인문교양교육에 있어서 존 듀이의 기여는 고대부터 내려온 플라톤의 이분법적 간극을 허무는 것이다. 인문교양교육과 실제적인 직업교육이 분리되기보다는 오히려 통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생활에 유용한 노동을 준비시켜 주는 교육(professional and industrial education)과 여가를 위한 인문교양교육(liberal education) 간의 간극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문교양교육이 그 자체로 목적이면서 수단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 방법은 ‘실천적 활동’을 학교의 체제 속으로 끌어들이 ‘삶의 방법’이 되도록 하여, 학교는 인간의 삶이 일어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듀이는 교육과정에서도 순수 이론과 응용기술, 인문학과 자연과학 등의 이분법적 분리에 갇혀서는 안 되고, 인문학은 이들을 서로 연결하여 외연을 확장하고 ‘총체성의 학문으로서의 인문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19세기 영국의 밀의 경우처럼 인문교양교육을 위해 자연과학과 예술을 적극적으로 포함하고, 나아가서는 현대인

의 삶의 바탕이 되고 있는 정보기술과 의료기술 까지 인문학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이로써 문·사·철 위주의 협의의 인문학이 아니라, ‘총체적 학문으로서의 인문학’으로 나아가야만 본래적 의미의 인간의 가치와 조건을 탐색할 수 있다고 본다.

라.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디지털 인문학

정보화 시대의 출현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인문학계는 ‘디지털 인문학(digital humanities)’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연구방법론에 주목하고 있다. 디지털 인문학이란, 정보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방식으로 수행하는 인문학 연구와 교육, 그리고 이와 관계된 창조적인 지적 활동을 일컫는 말이다.

구미의 인문학 교육·연구자들은 디지털 인문학’적 교육·연구 방법을 이해하고 실천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디지털 기술에 관한 이론 교육에 머물지 않고, 인문학자가 직접 컴퓨팅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상에서 역사, 지리, 문학, 예술 등 자신의 전문지식을 직접 가공할 수 있는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서 인문학 교육·연구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디지털 기술과 인문학을 응용한 인문융합 교육을 진

행할 인력을 배출하여,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은 차세대 인문지식 연구자들에게 디지털 환경에서 인문지식을 다루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인문학 발달 과정

가. 삼국시대 교육

인문학이 곧 학문의 전부였던 우리나라 삼국시대에서 처음으로 교육기관을 설립한 고대 국가는 고구려이다. 고구려는 국가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태학]을 세워 중앙의 귀족 자제를 대상으로 한 관리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최초의 사학으로서 초등교육기관인[경당]을 세워 지방 평민 자제를 대상으로 교육은 유교 경전과 활쏘기 등을 가르쳤다.

신라에서는, 귀족 출신의 청소년인 화랑들에게 신체단련과 더불어, ‘세속오계’등 불교교리를 통하여 품성 도야와 감성교육을 가르쳤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유(儒)·불(佛)·선(仙) 3교의 종교이념을 고루 받아들였는데, 그중에서 유교가 학문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국가최고교육기관인 [국학]을 세워, 진골이나 6두품 이상의 귀족 자제들에게 논어, 효경 등 유교 경전과 기술 교과로서 의학, 천문학 등을 가르쳤다.

나. 고려 시대의 교육

고려시대에는 관학으로서 종합대학 성격의 [국자감], 중등교육 단계의 [동서학당] 등을 세워, 인재 양성과 관리 등용을 위한 교육을 하였으며, 사학으로서 사립 고등교육 기관인 [십이도]와 사립 초등교육 기관으로서 [서당]이 설치되어, 유교 경전인 사서오경과 기술교과를 가르쳤다.

광종 때에, 이러한 교육내용을 토대로 당나라 제도를 본 뜬 우리나라 최초의 과거제도를 설치하여, 장차 관리로서의 자격과 자질을 평가하여 인재를 선발하였다. 유교 경전 중심의 이런 공식 교육과는 별도로 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여, 불교 교리가 왕실에서는 통치이념으로, 평민들에게는 민간 신앙으로 자리 잡았다. 결국, 고려는 제도로서의 유교 교리와 종교로서의 불교 교리가 혼재하게 되었다.

다. 조선 시대의 교육

조선 시대에는 관학으로서 고려 시대 국자감이 발전한 국가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과 중등교육 기관인 [사부학당]이 중앙에 설치되었으며, 지방에 학문과 덕행을 연마하는 사설 교육 기관으로서 [서원]이,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사설 초등교육 기관으로서 [서당]이 설치되었다. 교육 내용으로는, 유교 경전을 배우고 가르치는 ‘경당’

과 공자와 그의 제자들을 기리며 제사하는 ‘문묘’로 구성되었다.

조선 시대의 인문학의 중심교과인 유교 경전은 성리학으로 더욱 발전하여, 통치원리로서 인의(仁義)를, 사회질서 유지의 기제로서 삼강(三綱)과 오륜(五倫)이 도덕원리로 자리 잡았다. 특히, 공자가 그리던 이상사회의 지도자의 핵심 덕목으로, ‘자기를 수양한 후에 남을 교화하여야 한다.’는 수기치인(修己治人), ‘안으로는 성인이며 밖으로는 임금의 덕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의 ‘내성외왕(內聖外王)’을 강조하였다.

라. 우리나라 근대교육

우리나라에 근대적 학제가 도입된 것은 19세기 말이라 볼 수 있다.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서양의 산업 문명에 접하게 된 계기로 신지식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해 근대적인 서양식 학교 제도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는 원산주민들과 지방유지들이 세운 원산학사(1883)이며, 정부 차원에서는 통역관 양성을 위한 동문학(1883)과 신지식을 지닌 지도자 양성을 위해 육영공원(1886)을 설립하였다. 그 외에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 배재학당, 이화학당 등과 같은 근대학교가 설립됨으로써 기독교 정신과 아울러 교육 평등사상이 이를 통하여 교육의 보편화와 함

게 근대적 지식이 보급되었다.

신학제가 실시된 것은 1895년 갑오개혁 이후 고종이 발표한 '교육입국조서'를 통해서인데, 정부는 근대적 학문과 근대교육을 널리 보급할 것을 계획하고, 근대적인 학교 관제와 규칙을 제정·공포하였다. 일본 강점 시대로 접어들면서 일본은 식민정책의 수행을 위해 학교 교육은 우민화 정책과 동화정책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일제 교육의 특징은 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중등과정부터 문과(文科)와 이과(理科)를 구분하여 실시하고, 노동력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하여 실업교육을 장려한 점이다. 물론 문·이·실 공통으로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사회에 순응시키기 위한 교과로서 도덕 교과에 해당하는 수신(修身)을 개설하여 교양인과 황국신민을 꾀하였다.

마. 우리나라 현대교육

1945년 광복 이후 우리의 교육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교육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1949년 12월에 [교육법]에 따라 교육의 보편화와 평등화가 법적으로 명시되었으며, 1951년 전쟁 중에 교육법 개정을 통하여 6-3-3-4제가 한국 학교 제도의 기틀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 미 군정을 통하여 새로운 학제와 교과가 개설되었으나, 중등교육과정부터 일

제의 잔재인 문·이과 구분은 여전하였으며, 산업의 발달과 국민의 수요 증가에 따라 고등교육이 보편화 되어 대학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역사를 시대별로 관통하여 공통점을 찾아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문식(文識)이나 문필(文筆)과 관계가 있는 문과(文科)는 역사적으로 군자의 통치덕목과 관리 등용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군자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사서삼경(四書三經) 등 경전을 학습하도록 하여 인(仁)·의(義)·예(禮)·지(智)를 깨우쳤으며, 지도자의 덕목으로 신(身)·언(言)·서(書)·판(判)을, 인문학적 소양으로 시(詩)·서(書)·예(藝)·악(樂)을 지향하였다. 또한, 유럽에서도 인문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교육자, 정부관리, 사회지도자로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이나 유럽의 전통에서는 인문학은 관리 등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현실대응의 실제적 지혜를 제공해 주는 분야로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인문학은 과학기술문명과 경제력이 우세해진 현대에 이르러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적 영향력은 쇠퇴하여 지도자양성이라는 전통적 특권은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식론적·방법론적인 면에서 탄력성을 잃고 존립 이유조차 애매해졌다. 현대사회는 문명과 문화의 기반인 위대한 전통에 무지(無知)한 그저 '교육받은 야만인



(schooled barbarians)' 즉, 학교는 다녔지만 교양 없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바. 한국 디지털 인문학 교육

한국에서는 1996년 문화관광부 산하에 문화산업국이 설치되고, 2001년 문화콘텐츠 진흥원이 설립되며 '문화콘텐츠'의 이름으로 인문학과 정보기술의 융합을 주도하였다. 2002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의 "문화콘텐츠학과"와 2003년 한신대학교 인문대학 문화정보학부 '디지털문

화콘텐츠학과'의 설립을 시작으로, 2003년도에는 7개, 2008년도에는 32개, 2013년에는 58개가 개설되어 있다.

이렇듯 가시적으로 디지털 인문학이 발달한 것처럼 보이나, 따지고 보면 '문화콘텐츠'학과에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거나 다양한 방식의 융합보다는, 기존 전공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문화콘텐츠'는 인문학의 산업화라는 인문학의 응용영역에서 많은 연구 성과를 보이나, 인문학 연구 자체의 새

로운 방법론 모색에서는 성과가 저조한 편이다.

III. 사관학교 교육에서 인문학의 필요성과 역할

사관학교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에 관한 논쟁은 서구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속하여왔다. 흔히 “Sparta or Athens?”로 은유 되는 교육과정 논쟁이다. 장차 직업군인이 될 사람들에게 직접 필요한 군사전문지식과 훈련 위주의 교육과정(Sparta)이나, 아니면 군 지도자는 물론 사회의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일반교양교육(Athens)이냐의 논쟁이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은 사관학교를 전문직업교육 기관으로써 군사전문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군사전문가에 필요한 기초 군사지식과 교양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학사학위 수준의 일반학의 균형으로 매듭지어졌다.

한국의 사관학교는 미국의 사관학교를 모형으로 하여 변천해 왔다. 우리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모형은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의 교육과정이 기초가 되었다. 해방 후 특정한 군사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훈련은 일본식 제도를, 일반학에서부터 명예제도까지 교육과정은 웨스트포인트를 모형으로 한 것이다. 그 후 70여 년의 기간 동안 교육과정에 관하여 많

은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의 중심에 일반학 특히 인문학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장차 군사지도자가 될 사관생도들에게 인문학이 왜 필요한가?

1.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의 단초 제공

인문학의 실용성을 논하기에 앞서, 인간에게는 과학 이전에 문학으로서의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꿈의 존재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카로스(Icarus)의 이야기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날뿔 설계의 모티브가 되었으며, 이후 몽골피에르의 기구의 발명을 거쳐, 월버와 오빌 라이트 형제의 키티 호크 기적을 만들어 내게 하였다. 이렇듯, 인류역사에 족적을 남긴 많은 과학적 산물들이 엉뚱한 인문학적 상상이 단초가 된 예가 많다.

가장 실용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첨단기업에서도 인문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스티브 잡스는 2010년 1월 아이패드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인문학과 기술이 만나는 지점에 애플이 존재한다.”고 강조하였다.

앞으로 우주 항공 시대를 견인할 공군사관생도들에게 당장에 실생활에 적용할 과학의 산물이 아니라도, 인간의 존재의의와 공직자의 사회적 책무성을 깨닫게 해주는 인문학적 상상이 필



요하다. 프랑스의 조종사이자 소설가인 생텍쥐페리가 장편 소설 『야간비행(Vol de Nuit)』을 통하여 극도로 긴장된 상황에서 조종사의 동료애와 사명감을 일깨우는 것이나,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심오한 역사 인식과 문학적 상상력으로 쓴 『제2차 세계대전 회고록』을 통하여 전쟁이 빚어내는 인류의 비극을 고발한 것도 전략적·전술적 가치 못지않은 교훈을 준다.

2. 자기 존재 인식과 자아존중감 고양

자기 존재의 올바른 인식은 자기 존중감(self-esteem)으로 나타난다. 자기 존중감이란, “자신의 품위를 높이고 긍지를 가지며, 자신감을 느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아개념”이다. 이는 각자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의 느낌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전체적 평가로서, 자기 자신의 그 특별한 됴됨이를 스스로가 얼마나 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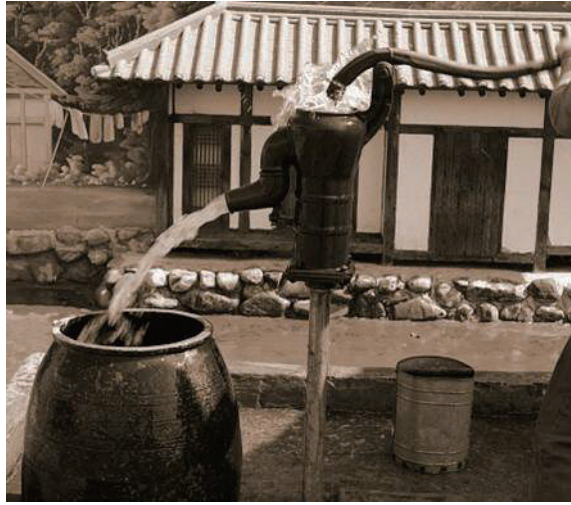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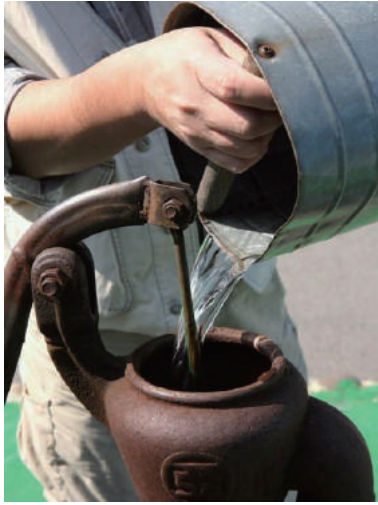
아하고 있느냐에 대한 인식이기도 하다.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인생의 맛을 안다. ‘멋’은 ‘맛’에서 나왔다고 하니, 인생의 맛을 아는 사람은 멋을 아는 사람이다. 사관생도의 품격은 멋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멋은 타고난 신체조건이나 단정한 제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 이유에 대한 성찰과 진리탐구로 형성한 내면의 인격까지를 포함하는 멋이다. 군인을 양성하는 사관학교의 ‘사’자가 선비 ‘사(士)’자라는 점이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인문학은 낮은 자기 존중감의 행동특성을 개선, 향상해 품격 있는 생도, 멋진 생도를 만들어 줄 것이다.

3. 군인의 핵심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가. 명령-복종의 개념

군대가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군기 곧 기강이 생명처럼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 기강의 핵심이 바로 명령에 대한 복종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사항은, 군대 윤리에서 그토록 중요한 복종이 기계적 수준이라면 군대의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인간의 순응 행태에 대한 에치오니(Ezioni)의 세 가지 힘의 유형 중에 강제적(coercive) 힘이나 보수적(remunerative)힘이 아



닌, 규범적(normative) 힘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규범적인 힘은 위협이나 손해를 보기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므로 복종하게 만드는 도덕적 힘이다. 전통적 군대의 사고 방식에 따르면, 군대에서 명령에 대한 복종은 절대적이다. 복종의 원천은 명령을 내리는 상관으로 여기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는 급박한 전쟁 상황을 상정해서 만든 규율이다. 하지만, 평소 명령에 대한 복종의 우선순위는 맨 아래 단계가 상관이고, 그 위가 소속부대이며, 그 이상이 소속군이고, 점차 군대, 국가, 인류사회 순으로 고차적 가치의 순서를 따라 그 위계를 형성한다. 국가 차원에서의 우선순위는 첫째, 헌법, 법률, 규정 등 원칙, 둘째, 군인에게 부과되는 임무, 목표 등 목적

의 달성, 셋째, 사람이다. 인문학은 바로 충성과 복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지혜의 원천을 제공한다.

나. 지도자의 도덕적 진실성

효과적인 지휘는 그저 강요로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일깨워지고, 부하의 마음을 사로잡아 얻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다름 아닌 도덕적 진실성(moral integrity)이다. 즉, 상급자의 도덕적 진실성이야말로 진정한 충성과 자발적 복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의 참모총장이었던 존 라이언 대장(Gen. John D. Ryan)이 “진실성을 훼손하는 어떤 행동도 합법적일 수 없다”고 한 말은 군대 윤리에서 갖는

의미가 크며, 미 공군이 추구하는 핵심가치(core values) 중에 ‘진실성(integrity)’이 맨 앞자리에 위치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실질적·합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미국군대에서 비윤리적 상황에서 전개되는 전쟁을 수행할 장교들에게 진실성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전쟁에서 도덕적 진실성의 위반 사례로 꼽히는 사건이 1968년에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에 의해 일어난 밀라이(My-Lai) 촌 학살 사건인데, 이 사건 이후 미국은 사관학교를 비롯한 장교양성 과정에 윤리학 등 인문학을 보강하여 새로운 세대의 장교(a new breed of officers) 양성에 노력하였다.

다. 역사적 통찰력

도덕적 진실성을 갖춘 지휘관의 명령에 부하가 자발적이고 충성스러운 복종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그 도덕적 판단 속에는 행위 주체들의 역사 인식 또는 역사지식이 그 밑바탕일 이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역사지식에 기초한 도덕적 판단에서 기꺼이 복종을 결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리를 불태우라”는 히틀러의 명령을 거부하여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한 파리지구 독일군 총사령관 디트리히 폰 쉘트츠(Dietrich Von Choltitz) 장군의 지혜나, 6·25전쟁 중에 “해인사를 폭격하라”는 명령을 거부하여 팔만대장경을 보호한 우리 공군의 김영환 대령의 용단은 반드시

시 지켜야 하는 당위적 규범 외에 군인이 가져야 할 역사적 통찰력의 좋은 예이다.

4. 의사소통 능력과 리더십 향상

가. 의사소통

흔히 리더십에서 리더가 갖춰야 할 요소로 의사소통 능력을 꼽는다. 아무리 다른 자질을 갖추어도 소통 능력이 없으면 조직을 제대로 이끌 수 없다. 그 소통능력의 기본조건이 말하기 능력이다. 하지만, 현재의 변혁적 리더십이 주도하는 시대에는 소통능력이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말하기 전에 우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聽) 정보자료나 상대의 마음을 잘 읽고(讀), 자기의 생각을 잘 표현해서 쓰고(筆),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자기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는(言) 능력이 필요하다. 대학에서 이를 위한 교양학부나 교양교육원의 편성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나. 판단력과 의사결정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지도자의 덕목으로, 신(身)·언(言)·서(書)와 함께 판단력을 의미하는 판(判)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서양에서도 관리 양성 기관에서 논리성과 합리성을 통해 사태에 대한 판단능력을 형성했다. 판단력은 의사결정의 요체로서, 정치에서는 정치지도자의 판단력이 정

세를 좌우하고, 전쟁에서는 군사지도자의 판단력이 전세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지도자의 판단력은 다양하고 심도 깊은 지식과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다. 그러려면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추구해 들어가 진리를 밝혀내야 하는데, 이는 인문학의 영역이자 또한 자연과학의 영역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여 얻은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안을 선택하는 합리적이고 순리적 의사결정은 결국 성찰의 과정을 거치는데, 성찰적 사유는 곧 인문학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5. 미래 전장 상황의 이해 증진

가. 미래 전장 환경

전쟁은 인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행해야 할 어려운 일 중의 하나다. 만일의 하나 일어날지도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여 전쟁준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장에서 전개되는 그대로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미래에 대한 통찰(insight)이다. 전쟁은 교리, 작전, 정보, 무기체계 운용, 병참, 군구조 등 군사에 관한 많은 요소가 결합하여 수행되지만, 이를 종합하는 것은 결국 인문학 영역에 속한다.

미래학자 앨빈과 하이디 토플러(Alvin & Heidi

Toffler)가 저서 [전쟁과 반전쟁]을 통해 미래전의 양상을 예고한 것은 그들의 과학에 대한 지식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현상을 융합하여 예측한 그들의 인문학적 배경에 기인한 바가 크다. 군사전문가가 아닌 그들이 지금까지의 전쟁 양상인 '공지 전투(air-land battle)'에서 현대전의 '항공전(air operations)'을, 미래전의 양상을 첨단과학전으로 상정한 것은 인문학적 통찰에 기인한 바 크다고 하겠다.

나. 작전 기획 능력

군사전문가로서 장교를 업무수행 단계별로 분류한 유형이 있다. 흔히 위관을 임무형 장교(mission officer), 영관을 기획형 장교(planning officer), 장군을 지휘형 장교(commanding officer)로 유형화하기도 한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사관학교 교육의 계급적 목표를 중령급 기획형 장교에 두고 있는데, 이 중령급 장교의 역할이 바로 기획력이다.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에서 가장 유능한 작전참모는 바로 루덴돌프 중령이었으며, 아이젠하워가 육군대학 교관을 마치고 유럽 전선에서 능력을 인정받게 된 시기도 영관장교 시절이었다. 걸프 전쟁과 이라크전쟁에서 치밀한 작전계획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군도 영관급 장교, 그중에서도 중령급 장교들이었다.

작전계획 수립에 관여하는 계급이 주로 영관급 장교이다. 인문학은 이들 중견 장교들에게 작전의 개념 체계를 일깨워 줄 수 있는 기초학문 분야이다.

다. 합동성 개념

우리나라 지정학적 특성과 군구조의 특성상 필요한 것은 대외적으로 한미 연합작전(combined operations) 능력이지만, 대내적으로는 육·해·공군의 합동작전(joint operations) 능력이다. 그런데, 합동작전 능력을 발휘하기 이전에 교리, 군구조, 지휘체계, 무기체계, 지원체계 등이 결합한 총체적인 합동성의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러한 합동성의 이해는 이공학적 접근만으로는 어렵고, 문화인류학적 소양을 포함한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국방개혁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합동성 강화'의 개념도 군사교리를 포함한 인문학적 지식 없이는 접근하기 어렵다.

IV. 새로운 전장 환경에서 사관학교 인문학의 발전 방향

지금까지 여러 관점과 역량을 종합하고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전장환경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역량 등을 필자 나름대로 정리하여 보았다. 젊은 세대 특히 공군사관생도가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 인간상을, 교양인, 애국인, 전문인, 국제인, 창조인, 학습인으로 제시하여, 사관학교 교육이 지향해야 할 준거로 삼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관학교 인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을 지향하는 인문학 교육과정의 강화

앞에서 제시한 대로 사관생도는 사관생도라는 특수목적 대학 구성원으로서의 신분 이전에 하나의 '인간'이다. 따라서 장차 직업군인으로서의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한 군인사회화(military socialization) 과정에서 요구하는 특수가치를 논하기 전에, 인간이 공통으로 갖추어야 할 보편가치를 견지해야 한다. 어떤 직업집단의 사람이라도 공통으로 요구되는 정직성, 성실성, 근면성, 사회성, 창의성 등이 그것이다. 흔히, "훌륭한 인간이면 사관생도로서도 절반은 성공이다"라는 격언이 말해주듯, 훌륭한 군인이 되기 이전에 훌륭한 직업인, 훌륭한 직업인 이전에 훌륭한 인간이 되는 사회화 과정에 인문학이 역할을 해야 한다.

사관생도가 훌륭한 직업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아존중감이 중요하다. 자기에 대

한 존중은 공군사관생도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은 당당함을 견지한다. 흔히, 사관생도는 '제복의 멋'이라고 하지만, 내실이 없는 외양은 물거품처럼 금방 꺼지게 된다. 인문학의 역할은, 바로 깊은 성찰을 통해 내공을 쌓고, 외부의 감시나 평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가 행동의 준거가 되게 하는 자양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관학교에서 인문학은 건전한 보편가치 위에 직업군인으로서의 특수가치를 내면화하는 총체적인 인문 교양과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가치관 형성의 기제로서의 인문 교양 지향

사관생도에게는 장차 군사전문가로서 요구되는 특수가치를 내면화해야 한다. 군인에게 특별히 더욱 요구되는 도덕적 진실성(moral integrity), 충성심(loyalty), 책무성(accountability), 역사적 통찰력(historical insight), 창의성(creativity) 등이 그것인데, 이러한 가치들은 대개 인문학의 영역에서 다루는 개념들이다. 사변적이고 문약하게 들리는 윤리학적 성찰을 통해 도덕적 진실성을, 당위의 규범을 강조하는 군대 윤리에서 충성심과 공인의 책무성을, 시대와 장소를 관통하는 역사 의식을 통해 역사적 통찰력을, 공허하고 감상적

으로 들리는 문학에서 창의성을 키우게 된다.

특히, '조종'이라는 국가방위의 수단 가치를 통해 지원동기가 유발되는 공군사관학교에서는 가치관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하다. "비행기나 배가 좋아 들어오는 공사나 해사 생도들에 비해,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병과를 나중에 생각하는 육사 생도들이 애국심이 더 하다"는 어느 육사 교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국가방위라는 목적 가치보다는 '비행기'라는 매력적인 수단 가치에 이끌려오기 쉬운 우리 공군사관학교 교육이 곱씹어 볼 화두라고 생각한다.

3. 학문간 통섭의 교량으로서의 인문학의 역할 증대

인문학이라고 하면 흔히 문학(文)·역사(史)·철학(哲) 등 인문 교과를 떠올린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문학은, 인간에 관련된 모든 학문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정신 영역을 다루는 이러한 교과는 물론이고, 인간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사회과학, 심미안과 감상을 다루는 예술, 인간의 생물적·물리적 조건을 다루는 자연과학도 확대해서 보면 인문학의 영역이라 볼 수 있다. 어떤 점에서는 철학, 천문학, 음악, 수학, 의학 등이 한데 어우러진 고대 그리스 철학이나 19세기 영국의 인문학이 진정한 인문학의 모형이라 할 수 있다.

현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인문학은 융복합 학문으로서의 인문학이다. '융복합'이라는 학문적 용어는 과학에서 나온 개념이고, 인문학에서 나온 개념은 '통섭'이라는 개념이 더 적합하다. 전통적 인문학에서 출발하여 사회과학으로, 그다음으로 예술로, 더 나아가 자연과학으로 확대하는 '총체론적 학문'으로서의 인문학을 말함이다.

공군사관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할 때, 철학, 역사, 문학, 전쟁 윤리 등 전통적인 인문학과 심리학, 리더십 등 리더십 관련 과목 간의 융합이 필요하고, 철학, 역사, 문학 등의 여러 인문학 분야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시각화 등 폭넓은 ICT 분야의 융합학문의 개설이 필요하다. 즉, 인문학과 사회과학,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단계적 통섭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중심으로 추동할 인문교양학부로의 편제 개편도 논의해 볼 사항이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일반대학에서 '문화콘텐츠'의 이름으로 개설한 인문학과 정보기술의 융합 학과를 벤치마킹하여, 단순히 교과의 통합이 아닌 인문·사회 계열과 이·공학 계열 공히 이수할 수 있는 리더십 관련 통섭의 디지털 인문학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군사학과 체육 등 군사전문가로서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교과의 콘텐츠와 학습방법을 현대화할 필요도 있다.

4. 미래의 전쟁 개념에 부합하는 체험적 인문학 환경 조성

미래학자 앨빈과 하이디 토폴러(Alvin & Heidi Toffler)가 제시한 항공작전 위주의 현대전에서는 병력과 화력의 집중 운용이 중요한데, 전략군인 공군이 전쟁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전쟁 양상에도 한국의 국방개념으로 끊임없이 제기 되어 온 것이 전력의 통합 운용이다. 이에 논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합동성의 개념 이해, 통합지휘역량 등 공군이 구비해야 할 능력과 자질이 만만치 않다. 이러한 능력과 자질과 관련된 학문 분야가 인문학 분야로서, 개념을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타군을 설득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논리성, 그리고 실제로 지휘할 수 있는 지휘통제 능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문학과 군사학에 대한 독서와 토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른 선각자들의 경험을 압축해 놓은 책을 읽고 그것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다. 유수의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교 필독도서 000선’, ‘대학교 교양도서 000선’ 등 4년 동안 읽을 독서목록은 작성하여 제시할 수도 있다. 독후감도 강제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생도가 재교기간 동안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발성이 필요하다.

교과에서 습득한 지식이나 경험을 확대하기 위

한 국내외 민간대학, 민간기업, 군 교육기관에 의 위탁 교육, 삼군사관학교 간 상호 방문, 민간 대학과의 학점교류 등도 필요하다. 고대 로마 시대에 사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에게 ‘김나지움(gymnasium)’을 통해 지식과 경험의 지평을 넓히고, 호연지기를 연마한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것이다.

V. 나가기

인문학은 그동안 개인의 인격함양이나, 유능한 관리 양성에 큰 역할을 하여왔으나, 과학기술 문명과 경제력이 우세해진 현대에 이르러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적 영향력은 쇠퇴하여 지도자양성이라는 전통적 특권은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식론적·방법론적인 면에서 탄력성을 잃고 존립 이유조차 애매해졌다. 현대사회는 문명과 문화의 기반인 위대한 전통에 무지(無知)한 그저 ‘교육받은 야만인(schooled barbarians)’ 즉, 학교는 다녔지만 교양 없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위기에서 인문학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해서는 타학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문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하는 한편, 인문학 내에

서의 노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단지 문(文)·사(史)·철(哲) 교과로서의 인문학이 아니라, 인간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학문과 통섭하는 인문학, 내용으로서의 인문학뿐만 아니라 방법론으로서의 인문학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장차 군사전문가로서 활동할 사관생도들에게는 자기 존재의 발견과 자아 존중감을 높여 자긍

심을 부여하고, 판단력과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으며, 미래 전장 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통찰력을 부여할 수 있는 자유 교양 교육이요 종합학문으로서 인문학이 되어야 할 것이다. ❏

※ 이 글은 공군사관학교 학술세미나(2017. 6. 30) 기조연설문을 정리하여 올린 글임

WORLD CLASS 300 선정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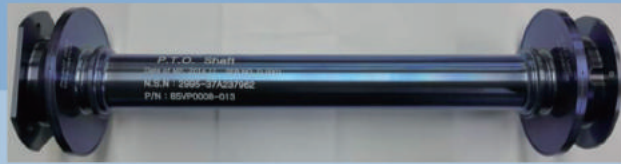
Refresh



World Best Leading Company

사람과 자연이 만나 행복한 기업, IONES

Power Take-Off Shaft



Bomb Rack Unit



2.75" Rocket Launcher



#도쿄로출근 #집으로칼퇴 #일본노선부자 #제주항공 #칭찬해♥

여행을 일상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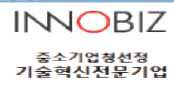
#나리타 #간사이 #후쿠오카 #나고야 #오키나와 #삿포로
#일본최다노선 #주15회 운항(2017년 6월 기준)

Follow Instagram @jejuair_official

JEJUair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안성대로 2061
홈페이지 : www.iones.co.kr Email : ssj2@iones.co.kr TEL : 02)914-9830



경기도선정
유망중소기업



ISO인증기업
(9001, 14001)



AS9100
인증기업

회원 기고

기념 소회·회고

1. 졸업 및 임관 50주년 기념사 | 차정열
2. 성무대, 반세기 내 삶의 마음의 고향 | 최용환
3. 성무대탑이 건립되기까지 | 최성열

역사 탐방

1. 최용덕 장군의 중국군 경력 관련 단상 | 이수철
2. 난중 호남제일 전주성 방어의 이야기 | 최병운

봉사·여행기

1. 필리핀 GITEC 자원봉사 강사활동을 마치고 | 김원규
2. 인도네시아에서의 새로운 삶 | 신영덕
3. 나의 사랑 파라과이 | 유원봉
4. 배낭 하나 달랑 메고 다녀온 순례길 | 금기연

사회 도전기

전역 후 소프트웨어 개발자 되기 | 김태연

현역 코너

1. Red Flag 훈련 참가 후기 | 전창범
2. 여성 전투비행대장이 되기까지 | 박지원

단상·소고

1. 서라벌에서 온 편지 7 : 군사고전과 직업군인의 양성 | 이종학
2. 베테랑 리더십 | 이근재
3. 3대를 이어가는 우정 | 백승웅
4. 10기 산우회와 하늘사랑 장학재단 | 김한용
5. Ring Knocker의 유래 | 정창욱
6. 얼굴에 대한 책임 | 김동기

우정 기고

1. 신사의 자리 | 우선희
2. 성무대를 추억하며 | 신현상

창작(시)

1. 유월이 오면 | 강임구
2. 하늘 성(城) | 이영순
3. 독수리에게 | 조환기



졸업 및 임관 50주년 기념사



차정열(15기, 동기회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공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간부를 양성하는 요람인 공군사관학교에서 15기 사관의 졸업 및 임관 50주년 기념행사와 25기, 35기, 45기, 55기 사관의 졸업 및 임관 기념행사를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공사 교장님과 공사 총동창회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근래에 학업성과 체력이 우수한 인재들이 공군사관학교에 몰려들고 있다는 소식에 큰 자부심과 공사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15기 사관이 공사의 문을 두드린 것은 54년 전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빈국 수준이어서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으나 우리는 공사 10훈을 반복해서 암송하면서 4년간의 생도 생활 후 임관한 지가 50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임관 후 군 생활은 물론이고, 전역 후 일반 시민으로서의 생활까지도 사관학교에서 받은 4년간의 교육내용이 근간이 되고 있다고 믿기에 여러분의 충실한 생도 생활을 당부합니다.

친애하는 사관생도 여러분!

67년 전 북한이 남한에 대한 공산화를 목적으로 남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만 거듭하고 있다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거의 전 국토가 유린당하는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 위협에 대비하지 못하는 나라의 존망이 얼마나 위태로운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전후 우리 국민의 피나는 노력에 의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전력을 증강하여 현재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 기술기로 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작금의 안보위협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중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 개발을 비롯하여 전쟁 무기개발에만 몰두하여 국민을 아사지경으로 만들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등 도발을 일삼는 북한 집단은 머지않아 스스로 그 수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더라도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있기에 끊임없는 외침을 받아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침략을 800회 이상 받았는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랍의 대해에서 당당히 생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예에서 보듯이 강력한 공군력의 건설과 유지로 주변국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국가 차원의 치밀한 계획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세부적인 전력 건설이나 유지운영은 여러분들이 담당해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15기 사관도 공사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공군사관학교와 공군의 발전을 성원할 것입니다.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유명을 달린 동기생들의 명복을 빌고 또한 오늘 졸업 및 임관 기념식을 함께한 25기, 35기, 45기, 55기 후배들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보냅니다.

이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준 공사 교장님과 지휘관, 참모 그리고 24기 공사총동창회 회장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공군사관학교와 우리 공군의 무궁한 발전과 생도 여러분의 건투와 무운장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무대(星武臺), 반세기 내 삶의 마음의 고향



최응환(15기, 50주년기념행사 위원장)

대부분의 사람에게서는 고향이 있다. 실제로 태어난 지리적 고향이나, 정신적 모태가 되었던 마음의 고향이 있게 마련이다. 그렇게 보면, 공군사관학교는 나의 삶에 이정표가 되었던 마음의 고향이다. 비록 내 몸이 태어난 곳은 따로 있지만, 공군사관학교는 내가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나를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던 정신적 모태이기 때문이다.

2017년 5월 27일, 나와 공사 15기 동기들은 마음의 고향 모교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리는 임관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어떤 친구는 자동차로, 또 어떤 친구는 모교에서 마련해준 버스로 행사장에 도착했지만, 하늘 높이 우뚝 솟은 성무탑을 돌아 마음의 고향 공군사관학교에 도착했을 때의 감격스러운 기분은 모두가 같았으리라!

1985년 대방동에서 정부 시책에 따라 이곳 청주캠퍼스로 이전한 공군사관학교, 이전한 다음 해에 기습적인 폭우로 법면 대부분이 유실되고, 성무문화관을 비롯한 많은 건물과 시설이



침수되었던 아픔도 있었지만, 모두가 슬기롭게 이를 극복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굴지의 군사전문교육기관으로 성장하였다. 진입로에 늘어난 은행나무며, 성무봉 아래 펼쳐진 담녹색 5월의 숲이 정작기에 접어든 청주캠퍼스의 연륜을 자랑하고 있었다.

더욱 자랑스러운 것은, 선배들의 임관 20주년, 30주년, 40주년, 50주년을 축하해 주기 위해 도열한 후배 사관생도들의 늠름한 모습이다. 우리가 사관생도 시절 입었던 미 공사를 모방한 예복 대신, 훨씬 더 독특하고 세련된 예복으로 차려입고, 우리 시절 키 작은 친구들에게는 땅에 닿을 듯 긴 M1 소총 대신, 날렵한 국산 소총을 들고 있는 모습에서 자긍심과 현대적인 세련미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더욱 자랑스러워야 할 것은, 이러한 멋진 제복 속에 감추어진 생도들의 내실이다. 대학 입시 제도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익히 알고 있듯이, 특차모집으로 학생을 뽑는 특수목적대학 중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 공군사관학교라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다소 신체 검사에 비중을 두었던 선발기준을, 첨단보조장비로 보완할 수 있는 과학 시대에 맞는 신체검사 기준으로 변경한 이후, 우수한 인재들이 더 많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한 마음 금할 수 없었다.

학교장 황성진 중장의 환영사, 박종현 총동창회장의 축사에 이어, 우리 15기 동기생을 대표하여 차정열 동기의 답사를 거치면서 행사 분위기는 고조되었으며, 말미에 펼쳐진 우리 공군 블랙 이글스의 곡예비행에서 행사의 절정을 이루



었다. 모교의 연병장 위 유난히 맑은 파란 하늘에서 우리가 만든 신예기로 펼쳐지는 세계적 수준의 공중곡예 비행은, 우리 15기뿐만 아니라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특히 곡예비행 중인 임관 10년 차 조종사 대위 두 명의 대원으로부터 축하 메시지를 들으니, 더욱 생생하고 감동적이었다.

사열대 정면 전광판에 나타나는 로고와 문구들, 그중에서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라는 교훈이 눈길을 끈다. 우리 시절의 교훈은, 최용덕 장군님의 휘호로 쓰인 '무용(武勇)'이었는데, 한글전용 시대의 취지에 맞게 이렇게 바뀐 것이다. 무관(武官)의 본분이 죽음을 불사하고 용맹을 떨쳐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점에서, 지금의 현대적 버전의 교훈이 그때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15기생들은 1963년에 대방동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1967년에 졸업하였다. 우리가 4학년이던 1966년 4월, 제4기 선배님들의 임관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공군사관학교를 성무대(星武臺)라 칭하여 하사하셨다. 별 성(星)은 하늘 높은 곳의 숭고함을 뜻하고, 군셀 무(武)는 공군의 정예 간성을 양성하는 공군사관학교의 의지와 신념, 공군사관의 무관을 상징한다.

일반적으로 별(星)은 많은 뜻을 지니고 있다. 군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최고의 반열에 오른 사람을 장성(將星)이라 하고, 주위보다 뛰어나 인기를 얻는 사람을 영어로 스타라고 한다. 고대에 별은 바다를 향해하는 뱃사람들에게 항로를 알려주는 나침반이었고, 사람의 생사길흉을 알려주는 상징이었다. 무엇보다 별은 그 순수하고 영롱한 빛 때문에 꿈을 좇는 사람들의 이상이였다. 민족시인 윤동주에게 별은 부끄러움 없는 삶이었고, 일제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조국의 독립이였다.

1958년부터 1985년까지 공군사관학교가 주둔하였던 대방동 캠퍼스 언덕,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뜨거운 염원과 의지를 상징하여 사관생도들의 성금으로 성무탑(星武塔)을 세웠다. 우리가 생



도 시절 건립한 성무탑은 이러한 청년 이상을 나타내는 공군사관학교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시인 한운사(韓雲史) 선생은 성무탑 초석에 이렇게 적었다.

하늘에 건다
드높고 푸르른 하늘에 건다
부귀와 영화에 눈을 돌 소나
세계를 품하고 나르는 의지
영겁을 지나도 찬연하여라
청춘의 숨결을 한데 모아서

성무대 언덕에 치솟는 불길
보라 어둡고 혼미한 세상에
의연히 선 불사조의 모습을

이렇듯 꿈을 먹고 살던 우리에게 벌써 임관 50주년이라니!

보통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50년은 도대체 얼마나 긴 세월일까? 과거 농경시대의 50년도 긴 기간이었는데, 지식정보 시대에 50년이란 엄청나게 긴 기간이다. 지식과 정보의 양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살아온 지난 50년이 그 전 수

천 년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었을지도 모른다. 우리 15기 기수가 사관학교를 거쳐 장교가 되고, 사회인으로 사는 동안 농경사회, 산업사회, 그리고 지식 정보사회를 다 거쳤으니, 정말 오랜 기간을 살아온 셈이다.

공군사관학교도 그 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1958년 12월 12일에 서울캠퍼스로 옮겨 제7기생부터 33기생까지 26년간 2,800여 명의 사관생도를 양성하고, 1985년 12월 21일에는 서울 대방동캠퍼스에서 청주캠퍼스로 이전하였다. 1972년 사관학교 교육과정에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져 이학사 및 공학사 학위수여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개정되었고, 1985년부터는 종래의 공학사, 이학사 학위 외에 문학사 학위가 추가되었다. 1997년 우리나라 최초로 여자사관생도를 선발하여, 2001년 제49기 졸업식에서 최초의 여자사관생도가 장교로 임관되었다. 또한 1994년부터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외국사관생도 수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선진 외국사관학교도 위탁교육을 보내고 있다. 공군사관학교는 21세기 항공우주시대를 선도함과 아울러 최첨단 항공무기체계의 교육 산실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훌륭한 모교의 모습을 자칫 잊고 살기

쉽다. 우리 공군의 특성상 모교인 공군사관학교 보다는 소속 병과나 소속됐던 비행단과 비행기종 중심으로 모이고 활동하는 경향이 있다. 직접 피부를 맞대고 살아온 사람들 간의 친밀감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동문들을 하나로 결속하는데 필요한 모티브가 있어야 하고 그 역할을 바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고향인 공군사관학교가 하여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미래 지식정보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 정보의 양이 아니라, 지식 정보의 질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군사분야의 지도자가 될 생도들은 끊임 없는 노력과 변신을 통해 미래사회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가 예견했듯, 제3의 물결 시대의 전쟁(The Third Wave Battle)은 항공전과 첨단과학전이 될 것이므로, 이에 주력군으로서 기능적으로, 심적으로 충분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민첩성과 융통성을 갖추고, 전력을 통합 운용할 수 있는 능력과 리더십을 길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사물이 변하는 것처럼 보여도, 본질적으로 변하는 것은 없다.”고 설파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파르메니데스(Parmenides)의 명제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이순신 장군은 비록 생물학적으로 소멸된 것처럼 보여도 충무공 이순신의 리더십과 애민 애국심은 관념속에 그대로 남아있듯이, 세상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고 변해서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 바로 사회 구성원이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인 것이다.

나는 시대가 변해도 변치 말아야 할 공군사관학교의 핵심가치가 정직성, 책임성, 충성심, 협동심, 도전정신이며, 앞으로도 공군사관생도가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라 여기고 있다. 이들은 가공할 무기체계를 운용하고, 사즉생(死即生)의 각오로 나라를 지켜야 하며, 시스템적으로 사고하고, 끊임

없이 미지의 세계를 탐구해야 할 미래의 공군간부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가치라고 생각한다.

우리 때보다 훨씬 발전한 모교, 훨씬 똑똑한 후배들을 뒤로 하고, 나는 다시 돌아와 거울 앞에 선다. 비록 더러 실수도 있었고 작은 실패도 있었지만, 비교적 세월의 풍파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온 지난 날의 나의 삶을 돌아본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성무대의 엄격한 기율과 포근한 숨결이 있었음을 새삼 느껴본다. 우리들의 남은 생애도 마음의 고향 성무대를 생각하며 살아가려 한다.

공군사관학교여, 도약하라!
성무대여, 영원하라! ❏

성무대탑(星武臺塔)이 건립되기까지



최성열(15기)

나의 생도 시절에 우리 학교는 서울 대방동에 있었다. 김포에서 개교해 6.25 전쟁 중 제주, 진해를 전전하다가 대방동에 현대식 건물을 지어 1958년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였다. 현대식으로 지었다고는 하나 성냥갑 같은 흰색 콘크리트 2층 건물들이 사열하듯 줄을 맞춰 서 있을 뿐이었다.

멀리 관악산만이 내려다보고 있을 뿐 주변에 울창한 숲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새로 심은 키 작은 소나무가 흰 건물 앞자락을 간신히 가리고 있었다.

그렇다고 이를 보상할만한 조형물도 눈에 띄질 않았다. 임택순 대위 동상과 보라매 동상이 있었으나 우리들의 꿈을 키우기엔 충분치 않았다. 말간 유리 안에 갇혀 있는 듯 마음을 기댈 데가 없었다.

육사 화랑대에는 곳곳에 선배들이 졸업기념으로 해놓은 조형물들이 태릉 숲과 잘 어우러져 저마다의 운치가 있었다. 해사 옥포대는 조형물이 많지 않아도 푸른 바다와 넘실대는 파도가 생도들의 마음을 달래 줄 수 있었다.

꿈 많은 청년 사관으로서 인성과 학문을 닦아

야 하는 생도 시절을 전통이 깃들어 있는 캠퍼스에서 생활하고 싶었다. 그러면 팽팽한 긴장감과 살벌한 생활이 순화될 것 같았다. 아니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점차 만들어 가는 기틀이라도 잡히면 마음에 위로라도 될 것 같았다.

새로 조성된 캠퍼스라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면서도 좀 더 웅장한 졸업기념물을 남기지 않은 선배님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한 기의 총원이 육사의 1/4에 지나지 않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해도 되었다.

1966년 4학년이 되자 나는 기념사업위원이 되었다. 후배들에게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는 기념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절실해졌다. 4개 동기회가 공동으로 졸업기념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번듯한 조형물 하나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재학 중인 15기에서 18기 생도들이 머리를 맞댔다. 공동으로 졸업기념사업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기금은 4개 기수가 균등 분할해서 총 50만 원을 만들고 각 학년 2명씩으로 기념사업위원회를 구성했다.

일단 의견을 모았으나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 아는 것도 정해진 것도 없었다. 그저 공군은 최첨단 과학군이고 학교 교정이 바둑판처럼 질서 정연하기 때문에 구상보다는 추상적인 조형물이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

우선 조형물을 구상하고 제작해 줄 조각가를 찾아 나섰다. 무턱대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찾아갔다. 교정에서 조각하는 교수님이 누구시냐고 학생들에게 물었다. 어느 한 학생이 안내해 줘 교수 한 분을 만났다. 한국 최초의 추상 철 조각가 송영수 교수였다.

송 교수께 생도들의 뜻을 말하고 작품을 의뢰했다. 얼마 후 스케치한 기념탑 그림이 왔다. 탑은 기단 위로 가운데 공간이 빈 역삼각형 3개가 120도 간격으로 V자형으로 서고 그 중심에 둥근 원이 위치했다. 원으로부터 솟아 나온 굵은 봉 끝 부분에 작은 구형이 있고 거기에서 13개의 가는 봉이 빛살처럼 퍼져 나가는 형상이었다. 학교 분위기에 적합할 것 같았다. 생도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두들 좋다고 했다.

실제 설계도를 그리고 소요비용을 산출하니 총 108만원이 나왔다. 4개 동기회가 최대 각출할 수 있는 기금의 곱절이 넘는 액수였다. 대대장과 면담했다. 학교에서 지원해줄 방법이 없을까 해서였다. 대대장이 웃으며 “최생도 내 집 팔아서 줄까? 신림동 방 3칸짜리 문화주택이라는 우리 집이 50만원이야”라고 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는 당부도 하셨다.

그러나 뜻한 것을 꼭 이루고 싶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교장실로 찾아갔다. 생도들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교장실에 불쑥 나타나 면담하겠다고 하니 비서실장이 놀라 안 된다고 했다. 면담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버텼다. 안 되더라도 후련하게 말씀이나 드려보고 싶은 심정이었다.

떼를 쓰니 비서실장이 하는 수 없이 짧게 용건만 말하고 나오라고 했다.

생도들의 취지를 간곡하게 말하고 부족한 예산을 학교에서 지원해 달라고 했다.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던 김성룡 교장님이 말했다.

“그래, 좋은 뜻으로 생도들이 애쓰는데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

설마 가능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들으니 떨 듯이 기뻐했다. 후에 짐작한 것이지만 아마 그해 초의 박정희 대통령의 성무대 명명에 대한 후속처리를 구상하다가 생도들의 계획을 보고 받고 공동사업을 생각하신 게 아닐까 싶다.

얼마 후 학교 예산이 확보되어 생도들과 학교가 사업 공동주체가 되었다. 그리고 조형물의 주제는 사관학교를 졸업하며 비상하고자 하는 생도들의 뜻을 기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공군사관학교를 성무대星武台로 명명한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했다.

이에 따라 송 교수의 작품을 포함해서 작품 공

모절차가 진행되었고 전교 여론조사결과에 따라 송영수 교수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현시는 영화“빨간 마후라” 주제곡의 작사가인 한운사 씨의 “하늘에 건다”로 선정했다.

“하늘에 건다.

드높고 푸르른 하늘에 건다
부귀와 영화에 눈을 돌소나
세계를 품하고 나르는 의지
영겁을 지나도 찬연하리라
청춘의 숨결을 한데 모아서
성무대 언덕에 치솟는 불길
보라, 어둡고 혼미한 세상에
의연히 선 불사조의 모습을”

기념탑은 정문 위병소를 헐고 그 자리에 세우게 되었다. 교장님의 각별한 배려였다. 학교로 들어오는 길 정면 오르막 끝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첫 번째로 마주치게 되어 있었다. 공사의 상징이 될 것 같았다.

송 교수에게 조형물의 형상이 무슨 의미인지를 물어 보니 주변 환경을 고려하고 공군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일 뿐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생도들이 의미를 부여해도 좋은지 물

으면서 기념탑 정상에 사방으로 퍼져 나간 뽕죽 한 침봉들이 13개인데 14개로 늘려 달라고 했다. 우리나라 14도에서 모인 젊은이들의 하늘에 대한 동경과 이상을 불태우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였다. 송 교수가 조형상 아무 문제가 없고 그 의미도 좋으니 그렇게 하자고 했다.

기념탑 제액(題額)의 액자(額字) 성무대(星武台)는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휘호였는데 무(武) 자의 빼침이 너무 길어 다른 글자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중간 부분을 조금 잘라 내고 끝을 이어 붙여 만들었다.

성무대 탑이 1966년 12월 20일에 완공되었다. 제막식은 4개 기생 공동 졸업 기념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았다.

공사신문 제44호 1967년 2월 24일(금). 전면에는“제15기 사관 졸업 및 임관”이란 제목 아래에 졸업특집 기사가 실렸다.

“동굴같이 비어버린 마음을 채우지 못하던 시절, 주위를 둘러보며 선배들의 마음을 읽고 위로 받고 싶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학교에는 선후배 간 유대를 기리는 흔적이 많지 않았다. 이에 우리 15, 16, 17, 18기생은 졸업을 기념하여 후배들을 아끼는 마음을 담아 성무대 탑을 세

운다.

(중략)

이 성무대 기념탑은 총예산 규모 108만 원으로 전장 18m, 기단 직경 5m.

독수리 날개를 상징한 탑신과 그 위에 지구를 받쳐 비상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상을 상징했으며 첨탑 끝의 가지는 14개로서 전국 14도로부터 운집한 생도들의 이상을 빛나는 별과 같이 나타내었다.”

1985년 청주 캠퍼스로 이사했다. 공사의 상징이 된 성무대 탑도 이전하려 했으나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이전 할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대방동에 있던 본 탑은 그대로 두고 실측해서 1.2배로 키워 청주에 복원했다.

1990년 1월, 졸업 후 23년 만에 생도 대장으로 모교에 다시 돌아왔다. 성무대 탑이 날개를 펴려이며 반갑게 맞이하는 듯싶었다. 옛날 모교를 사랑하고 아끼던 우리들의 마음을 되새기며 성무대 탑으로 갔다. 대방동 캠퍼스(지금은 보라매 공원)에 세워졌던 탑보다 훨씬 웅장했다. 정면 현시를 읽고 뒷면으로 돌아 우리들의 뜻을 기록한 동판을 찾았다. 그런데 없었다. 단지 새로 복원한 일시와 시공사만 적혀있을 뿐 탑을 건립한 우리들의 마음을 담은 취지문은 어디에도 없었다. 성무대 제

액도 박정희 대통령 액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글씨로 바뀌어 있었다.

선배들이 자신들의 발자취를 기리고 후배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세운 진정한 정신은 사라지고 겉모습만 옮겨 놓은 듯싶었다. 면면히 이어져야 할 전통이 단절된 듯했다. 이전할 때 학교예산으로 복원했기에 취지문을 삭제한 것이었다.

성무대 탑의 근본 뜻을 살려 전통을 이어가야 겠다고 생각하여 15, 16, 17, 18 동기회가 다시

뜻을 모았다. 학교에 건의해서 성무대 탑 기단 뒷면에 연혁과 그 뜻을 오석(烏石)에 새겨 다시 세웠다.

성무대 탑은 대붕(大鵬)의 용지를 품은 공사의 상징물로서 선후배 간의 끈끈한 유대를 기리는 표상이다. 성무인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전통이 면면히 이어질 것이고 성무대 탑은 오래도록 이를 지켜볼 것임을 우리 모두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최용덕 장군의 중국군 경력 관련 단상(斷想)



이수철(23기)

대한민국 공군의 역사에는 1920년 임시정부 시절 비행기를 이용한 독립운동을 구상했던 도산(島山) 안창호 선생, 미 캘리포니아 윌로우스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인비행학교'를 설립하여 독립전쟁을 준비한 계원(桂園) 노백린 장군, 공군 건립을 구상하고 한인 조종사를 지원한 백범(白凡) 김구 선생, 중국 공군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공군의 간부와 임정 광복군 장군으로 항일전에 참여한 창석(滄石) 최용덕 장군을 손꼽을 수 있다.

특히 최용덕 장군은 경력, 인품, 리더십 등 모든 면을 두루 갖춘 분으로, 1946년 중국에서 귀국하

자 그분을 중심으로 국내외 한인 항공인들이 오직 공군 창설이라는 대의명분 하에 결집하여 1948년 정부 수립 후 단 1년 만인 1949년 10월 1일 결실을 이룬다. 이는 미국 공군이 1903년 세계 최초로 동력 항공기를 발명한 라이트형제와 「미첼」이라는 항공선각자를 배출하였음에도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7년에 와서야 육군과 해군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군으로 창설된 것을 볼 때 실로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용덕 장군이 한국 공군사(空軍史)에서 유독 빛



나는 이유는 평생을 독립투사, 군인으로서 정의롭고 청빈하게 살았으며, ‘공군가’, ‘공군의 결의’, ‘공군사관학교가(空軍士官學校歌)’, ‘공사십훈(空士十訓)’등을 직접 작사하고 집필하여 공군이 나아가갈 정신적 지표를 제시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1948년 미 군정이 항공부대의 창설 승인 조건으로 50세의 나이에 조선경비대 보병학교 입교를 요구하자 이를 분개하는 간부들에게 “이순신 장군도 대의를 위해 백의종군하지 않았소.”하며 의연하게 설득한 일화는 그가 왜 공군의 정신적 지주로 영원히 추앙받아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최용덕 장군이 광복군 지휘관과 공군 창군 과정에서 보여준 인품과 리더십 등은 조국 독립에 대한 염원과 애국심 그리고 중국군에서의 경험 등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의 광복군 활동, 공군 창설 과정에서의 활약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중국군 경력과 관련된 사실은 공군본부에서 발간한 「하늘의 개척자 최용덕 장군」(공군본부, 1956) 중 ‘최 장군 경력’란에 아주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을 뿐이다. 그나마 가장 공신력 있는 동서(同書)에 기록된 내용도 당시 국내 언론 보도 내용이나 중국이나 대만에서 발행된 군사 서적, 회고록 등에서 확인된 내용과 다소 상이(相異)한 부분이 있다. 우선 최용덕 장군에게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할 수 있는 1920~30년대의 그의 중국군 시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는 동서(同書) 중 ‘최 장군 경력’ 내용을 당시 언론 보도와 국내외에서 발간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최용덕 장군의 중국군 관련 경력을 재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필자의 단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늘의 개척자 최용덕 장군」 책자 구성은 최용덕 장군 친필의 ‘나의 운동 목표’ 등 인생관, 사진, 연설문 순으로 되어 있으며, 마지막 쪽에 ‘재임기간 중 중요 업적’과 ‘최 장군 중요 경력’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 최용덕 장군의 중국 공군 관련 경력은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

상기 중국군 근무 경력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는데 첫째, 중국 육군 및 공군 군관학교의 구체적인 명칭과 졸업연도, 둘째, 중국 공군 지휘부 참모장 및 공군기지사령관, 중국 공군기지 학교장의 구체적인 부대 및 직책 명칭과 근무기간, 셋째, 1926년부터 1939년까지의 경력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이다.

동서(同書)에 기록된 경력을 바탕으로 필자가 국내의 자료를 통해 파악한 세부 활동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중국 육군 및 공군 군관학교 졸업과 관련하여, 최용덕 장군은 실제 북경에 위치한 국립 보정 항공학교를 졸업하였다. 당시 항공학교는 운남, 광둥, 광서, 동북 3성 등 지방의 각 성(省)에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의 중앙정부는 북경 정부였으므로, 자연히 국립 북경 항공학교(略稱 南苑航空學校)와 국립 보정 항공학교(略稱 保定航空學校)가 공군 군관학교(한국군의 ‘공군사관학교’)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육군군관학교 졸업 여부는 당시 항공학교 입교생을 현역 육군 초급장교 중 선발하였음을 고려할 때, 보정 항공학교에 입교할 수 있었다는 것은 보정 육군 군관학교를 졸업한 초급장교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동서(同書)에 중국 육군 군관학교와 공군 군관학교를 졸업했다고 기록한 것으로 본다.

최 장군 중요경력(「하늘의 개척자 최용덕 장군」, 67쪽, 1956.11.1.)

구분	경력	구분	경력
1916	중국육군군관학교졸업	1922	중국수상비행대 대장에 보직됨
1916	중국육군소대장 중대장 근무	1923	중국 공군지휘부참모장 겸 공군기지사령관에 보직됨
1919	상해,북경,봉천,안동 등지에서 독립운동	1925	중국공군기지학교장에 보직됨
1920	중국공군군관학교 졸업	1940	중국육군대학 졸업
1920	중국군관학교 교관	1940	임정 항공건설위 주임, 광복군 참모처장 등

둘째, 중국 공군 지휘부 참모장 겸 공군기지사령관, 중국 공군기지 학교장 근무 여부이다. 최용덕 장군은 남창 기지(南昌基地) 고위 간부를 역임하였는데, 당시 남창 기지에는 중국 공군의 항공서(航空署, 공군본부에 해당)가 임시로 있었다. 따라서 남창 기지의 고위 간부는 공군본부의 참모이자 지휘관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한국 공군 체계와 비교하여 중국 공군 지휘부 참모와 공군기지사령관으로 기록하였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중국 공군기지 학교장 근무 여부에 관하여는, 최용덕 장군은 중앙훈련단(中央訓練團) 육공연락훈련반(陸空連絡訓練班) 부주임(副主任)을 역임하였는데 중앙훈련단은 오늘날 교육사령부에 해당하며 육공연락훈련반을 공군기지 학교장(空軍基地學校長)이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동교(同校)는 오늘날 공지합동작전학교라 할 수 있어 최용덕 장군은 공지합동작전학교 부 교장을 역임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중국군 경력 중 명칭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이해와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동서(同書)에는 최용덕 장군의 중국 공군에서의 근무 시기와 직책이 1916년부터 1925년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1926년부터 1937년까지 북벌(北伐)과 중국 내전에 참여하여 중국 통일에 기여한 경력에 대한 기록과 1937년 중·일전

(中日戰) 발발 이후 1939년까지 중·일전 참전과 관련된 기록 등은 전무(全無)하다. 이에 대해 필자가 국내외 자료를 통해 살펴 본 바로는, 최용덕 장군은 보정 항공학교에 입교하던 해인 1924년 중국 내전(內戰)인 제2차 직봉전쟁(直奉戰爭)에 참전하였고, 1925년 초 보정 항공학교(保定航空學校)를 낙양(洛陽) 기지로 이전할 때 최용덕 장군은 학생비행장교로서 제2대장을 맡아 뛰어난 리더십으로 인원 및 장비를 성공적으로 이전하는데 기여한다. 그리고 그 해 가을 최용덕 장군을 포함한 1기생 24명이 보정 항공학교를 졸업한다. 졸업 후에는 중국 북부지역 오패부(吳佩孚) 군벌과 풍옥상(馮玉祥) 군벌 간의 전쟁인 섬군토벌전쟁(陝軍討伐戰爭), 장개석(蔣介石) 국민혁명군과 당생지(唐生智) 군벌과의 전쟁인 당군토벌전쟁(唐軍討伐戰爭), 장개석 국민혁명군이 추진한 북벌전쟁(北伐戰爭), 그리고 1928년 중국 통일 후 발발한 전쟁인 반장전쟁(反蔣戰爭)과 중원전쟁(中原戰爭) 등 중국 내전에 참전하여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출격을 한다.

이 참전 기간 중 최용덕 장군은 몇 차례 비행 사고를 겪기도 한다. 뜨거운 엔진 냉각수가 조종석으로 넘쳐 비상착륙 중에 항공기가 전도되어 후방석에서 탈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고, 임무 중 엔진결함으로 강변에 불시착한 사고, 투하되지

않은 폭탄이 착륙 시 폭발 한 사고 등이 있었으며, 이때 입은 부상으로 평생 장애를 갖게 된다. 한편 당시 중국의 군벌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離合集散)과 합종연횡(合從連橫)을 거듭하다 보니, 1925년 이후 최용덕 장군이 속했던 군벌도 먼저 오패부 군벌에서 풍옥상(馮玉祥) 군벌로, 다시 오패부(吳佩孚) 군벌, 그리고 손전방(孫傳芳) 군벌, 이종인(李宗仁) 군벌, 장개석(蔣介石) 국민혁명군 등으로 수차례 바뀐다. 중국의 내전은 1928년 국민당 장개석이 중국 통일을 완성한 이후에도 계속된다.

1929년에 발생한 반장전쟁은 장개석 정부의 감군정책(減軍政策)에 반발하여 일어났으며, 1930년에는 중원전쟁으로 확대된다. 최용덕 장군은 중화민국 정부(南京政府)의 공군 간부로서 반정부 세력과의 내전에 참전한다. 이러한 내전 상황은 1931년 일본군이 만주사변을 일으켜 동북 지역을 장악하여 만주국을 수립하는 등 침략을 노골화하자, 이에 자극받은 군벌들이 일본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되면서 내전을 자제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던 국공대립(國共對立)도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대립을 중단하고 제2차 국공합작(國共合作)으로 항일전에 공동대응하게 된다. 최용

덕 장군은 이때부터 1940년 임시정부 광복군 지휘관으로 보임될 때까지 중국공군 간부로서 항일전에 참전한다.

최용덕 장군이 치열했던 중국 내전과 중·일전에 참전했던 기간은 그에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이기도 하였는데, 그의 절통한 심정은 1956년 그의 전 역사에 다음과 같이 잘 나타나 있다. “남의 나라 군문에서 남의 나라 군복을 입고 지내면서도 몽매(蒙昧)에도 잊지 못할 소원이 있었으니 그것이야말로 골수(骨髓)에서 우러나고 혈관에서 맥박이 치는 조국에의 지성(至誠)이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공군 요람기(搖籃期)에 몇몇 동지와 담소(談笑) 중에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 염원이란, 첫째, 언제나 내 나라 군복을 입고, 내 나라 상관에게 경례하며, 내 나라 부하에게 경례를 받아 보나? 둘째, 언제나 내 영토 안에서 태극기 그린 비행기를 타고 조국의 하늘을 마음껏 날아 보나? 마지막으로 언제나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설계로 우리가 생산한 비행기를 타 보나? 춘풍추우(春風秋雨)의 40년 이역(異域)에서 겪은 하루하루에 이러한 꿈을 꾸지 않은 날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최용덕 장군이 중국군으로 활약했던 기간이 1916년부터 1940년까지인데, 그의 경력이 단지 1925년까지만 기록되어 있다는

최 장군 중요경력

구분	경력	구분	경력
1916	중국 육군군관학교 졸업	1934	중국 공군군관학교 교관
1916	중국 육군 소대장, 중대장 근무	1937	중국 공군본부 참모 겸 기지전대장
1919	상해, 북경, 봉천, 안동 등지에서 독립운동	1938	공지합동작전학교 부교장
1925	중국 공군군관학교 졸업	1940	중국 육군대학졸업
1928	중국 공군수상비행대 대장	1940	대한민국 임정 광복군 참모처장, 지휘관

점과 수상비행대장, 기지사령관, 기지학교장 등의 직책을 실제로는 1930년대에 역임했다는 사실을 앞서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기록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서는 동서(同書)를 발간한 기관인 공군본부(공군 역사기록단)에서 국내외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검토하여 최용덕 장군의 중국군 경력에 대해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방안으로 공군본부는 동서(同書) '최 장군 주요 경력'란에 대한 정오표 발행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최용덕 장군이 중국군에 참여한 시기를 보는 우리들의 관점을 바꾸어 보자는 것이다. 그 의도는 그의 중국군 참여시기가 1920년대든 1930년대든 일제강점기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용덕 장군이 중국군에 '언제 참여했느냐'는 것보다는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참여하고 생

활했느냐'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 이유는, 최용덕 장군이 망명 생활 중 지향했던 목표가 '중국군으로서 언제 무엇이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나라, 조국 하늘, 우리 비행기, 인류 평화, 항공생활'등 '조국의 독립'과 '공군 사랑'의 일생이었기 때문이다.

끝으로 필자는 최용덕 장군의 중국군 경력과 관련된 시기와 기간을 지금까지의 자료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해방 후 미국, 중국, 일본에서 활동한 모든 항공인이 최 장군을 중심으로 어떻게 왜 뭉쳐서 현 공군의 아버지가 되었는지에 강조점을 두고 중국에서의 활동사항을 맨 마지막 부분에서 공군역사단에 제언하는 형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

난중 호남제일 전주성 방어의 이야기



최병운(22기)

들어가는 말

하늘을 지키는 보라매들의 폭음소리를 조석으로 들으면서, 그때 그 시절에 박동했던 심장 소리를 느끼곤 한다. 고향에 내려와 이름을 내지 않고 조용하게 사는 중에 향리의 지사들이 모인 <희망포럼>으로부터 임진왜란의 때, 고향 완주 관내에 있었던 웅치전투의 전적지 성역화 사업을 위한 전사(戰史)를 정리하여 줄 것을 청탁받았다. 물론 원고료는 없다.

웅령(熊嶺) 또는 곰티재로 불리는 웅치(熊峙)는

전주에서 진안으로 넘어가는 완주군 경계의 동쪽 끝에 있는 고개이다.

저는 <김제군수 정담>이 전사한 웅치전투와 <천강 홍의 광재우 장군>의 의령 정암진 전투와 <호남 의병대장 고경명 장군>과 <충청 의병대장 조헌, 승장 영규>의 금산성 탈환작전, 그리고 대둔산을 넘는 완주 북쪽 이치 고개에서 <광주목사 권율과 동북현감 황진>이 일본군을 막아낸 이치 전투 및 <이순신 함대>의 옥포에서 한산도까지의 해전과, 명량, 노량해전이 모두 호남 제일 전주성 방어 작전에 연관된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



하고, 향리의 청소년과 노장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의 원고를 쓰고 있다.

임진년 당시에 흔하지 않은 전과로서 호남 제일 전주성은 수성에 성공하였다. 그 작전은 누구의 지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연히도 병법36계의 제2계인 <위위구조(圍魏救趙)>의 작전이 먹혔던 것이다. 누군가가 작전을 짰 것이라면 그는 후세에 손자와 제갈공명에 버금가는 전략가로 기억되었을 것이다. 그래도 수많은 군관민승의 순절애국인의 피를 대가로 지불했다.

정유재란의 때, 남원성을 점령하고 진격하는 일본군에 놀라 전라감사와 전주부윤은 성을 버리고 도망했다. 이때의 상황에 <전투>라는 낱말을 넣을 수 없어 <전주성의 허망한 이야기>라는 소재목으로 정리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 하늘을 지키는 보라매의 후손들을 위하여 낙향처사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시시

때때로 비행무운(飛行武運)을 기도하고 있다. 이상의 이야기를 논단의 서문으로 같음하겠다.

왜군의 정명가도와 조선 분지계획

정명가도(證明假道)란 일본이 조선의 길을 빌려 명나라를 친다는 뜻이다. 전국시대의 끝 무렵 노부나가의 뒤를 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통일 일본이 당면했던 경제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산업을 일으키기보다는 군대로 대륙을 침략하여 자기들의 영지로 삼고자 했다.

당시 중국 시장에서 은을 매개로 하는 무역이 성행하였는데, 중남미에서 생산된 은이 중국시장에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일본에서 생산한 은의 구매력이 하락하게 되어 일본의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오늘날 달러 가치의 상승과 하락에 따른 원화 가치의 변동과 같은 현상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에 따라 침략에 나선 고니

시, 가토 등의 여러 다이묘들은 대륙에 자기들의 또 다른 영지를 개척한다는 꿈으로 가슴이 뛰었을 것이다.

1592년 선조 25년 4월 14일 왜군은 부산에 상륙하여 거점을 마련한 후 전격적으로 기동하여 18일 만에 한성에 무혈 입성하였으며, 그 사이의 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서고금의 모든 나라는 <작계5027>과 같은 전시작전계획을 가지고 있다. 당시 조선의 작계는 지방 수령이 군민을 모아 일정한 거점에 집결하고 있으면 조정에서 유능한 무장을 보내어 적을 막아낸다는 개념의 <제승방략>이었다.

이 계획은 순번사 이일이 대구에 집결한 경상도 군사를 지휘하여 북상하는 일본군의 주력을 저지하는 동안, 배후인 죽령-조령-추풍령을 연결하는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작계였다. 그러나 제승방략의 창안자 이일의 부대는 상주 북천 백사장에서 사주경계 없이 훈련하다가 기습을 받고 흩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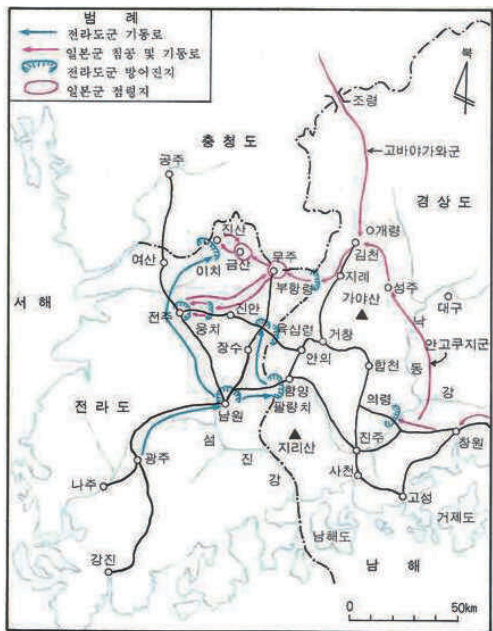
둘째, 조선의 전통적인 전법은 활로 무장한 기마부대의 돌격전법이다. 신립장군은 조령을 막지 않고 충주 탄금대 별판에서 왜군을 맞아 기마돌격전법으로 공격했다. 일본군은 <3진5진법>의 전술과 조총사격의 <3단체사전법>으로 신립의 부대에게 역공을 가했다. 특히, 3단체

사전법은 조총의 발사속도가 느린 점을 감안하여 3열 횡대로 나누어 시간차로 공격하여 화망을 구성하는 조총 운용방법이다. 모든 이야기를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적의 전법을 알지 못했던 신립은 조령을 막자는 막하 부장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탄금대 별판에서 일본군을 공격하다가 복군살장(覆軍殺將)을 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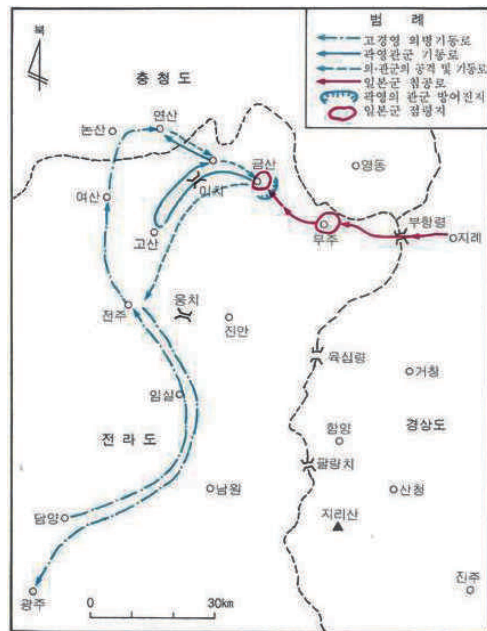
이처럼 조선의 정규군이 백주 대낮에 상주 북천 백사장과 충주 탄금대 별판에서 일본군에게 연이어 패배했다는 소식이 조정에 전해지자, 선조 임금도 북쪽으로 피난하였고, 수성장은 도주하였으며, 군사들도 흩어졌다. 조선의 백성들은 성내의 물건을 훔치다가 일본군이 들어오자, 공성계를 염려하여 망설이던 일본군을 성내로 안내했다고 한다.

5월 3일 한성 점령 후 일본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따라 선조임금을 추격하는 북부 작전과 더불어 한수 이남의 땅을 나누어 지배하는 일종의 일본군 영지화 분지계획을 착수했다.

분지계획(分地計劃)에 따라 경상도와 충청도 그리고 전라도에 일본군대가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며, 일본군이 각 지역에 들어오자 지방의 유생들은 관군이 무력한 상황에서 의병을 일으켜 치열하게 향토방위에 나섰다. 훗날의 분석이지만, 일본 침략정책의 전략적 실패는 조선과 명나라 사



전라도군의 활동



제1차 금산성 전투

이를 이간시키지 못한 것과 더불어 의병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한수 이남의 분지계획을 성공시키지 못한 것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하늘이 도운 조선의 위위구조(圍魏救趙) 방어 작전

논단이라고 하지만, 임진왜란의 작전과 전투 이야기는 논문의 독창성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은 주제이다. 자평하기를 이 글에 독창성이 조금 있다고 한다면, 여러 군사활동의 연관성을 <위위구조(圍魏救趙)>의 계책으로 분석하여 전주성 방어의 성공을 분석했다는 점일 것이다.

여러 전투의 작전 요도가 필요하지만, 지면상 두 장의 지도로 압축하였다. 위위구조의 이야기는 정비석 선생의 소설 『손자병법』 말권에 아주 흥미롭게 잘 묘사되어 있으며, 병법36계의 제2 계책으로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¹

조나라와 위나라는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제후국이었다. 위나라 도읍은 하남성 <대량>이며, 조나라 도성은 하북성 <한단>이었다. 위나라가 조나라의 도성을 포위하고 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

1 『병법36계4』 28~32쪽.

조나라의 구원요청을 받은 제나라는 조나라의 도성 한단으로 출동하여 조나라 방어를 돕지 않고, 반대로 군사가 출병하여 방비가 약해진 위나라의 도성 대량으로 신속하게 진격했다.

이 소식을 접한 위나라 군대는 조나라 도성의 포위를 풀고 자기들의 도성 대량을 지키기 위하여 황급히 회군함으로써 조나라는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게 되었는데 이 작전의 이름을 후세의 전사자들이 <위나라를 포위함으로써 조나라를 구했다>는 위위구조로 명명하는 한편, 이 계책의 본질을 일명 싸우지 않고 사람을 굴복시킨다는 不戰而屈人之兵(부전이굴인지병) 또는 避實而擊虛(피실이격허)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용하곤 했다.

제나라 지원군이 싸우지 않고 위나라 도성 방향으로 신속하게 움직인 것만으로도 위나라의 군대를 퇴각시켰기 때문이다.

분지계획에 따라 전라도 지역은 한성에 있던 고바야가와 본대와 한성-부산 병참 축선 유지에 참여하고 있던 고바야가와군의 별군 안고쿠지 부대가 진입하려고 했다.

고바야가와군의 별군 안고쿠지 부대가 창원-마산을 거쳐 전라도로 진입하려고 남강의 상류 의령 정암진에 도착했다. 선발대가 갯벌이 없는 지역에 도강할 수 있는 표시를 해두고 돌아가자

이를 보던 곽재우 장군은 야음을 타서 일본군의 표식을 갯벌이 많은 지역에 옮겨두도록 했다. 다음날 안고쿠지 부대가 정암진을 건너기 위해 행진하다가 갯벌에 빠져서 질척거릴 때 활을 쏘아 큰 피해를 줬다. 곽재우 장군의 의령 정암진 방어는 의병 전투의 가장 대표적인 전투이며, 일본군의 남원진출을 좌절시킨 전주성 방어 작전의 첫 전투라고 할 것이다.

안고쿠지 부대는 정암진을 건너 남원 축선으로 진입하지 못하자 남지-창녕-현풍-무계 방향으로 북진하여 성주-김천-지례를 거쳐 부항령을 넘어 무주로 진입하였다. 무주-지례 사이의 부항령을 지키려던 전라도 조방장 장의현 방어대가 부항령에 도착하기도 전에 안고쿠지 부대가 부항령을 먼저 선취하고 6월 19일 무주로 진입했던 것이다.

6월23일 한성에 머무르던 고바야가와 본대가 한성으로부터 충주-조령을 거쳐 금산 방향으로 진출하였다.² 금산길목에서 이들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배치된 전라 방어사 곽영부대는 일본군에게 밀려 이치고개를 넘어 완주군 고산까지 후퇴했으며, 일본군은 협로에 매복군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고산에서 추격을 중단하고 금산성으

2 『한민족전쟁통사3』, 171쪽.

로 귀환하였다. 일본군이 물러난 후 광영부대는 전라감사 이광으로부터 800명의 군사를 증원받아 금산 서쪽 진산에 포진하였다.

위나라가 조나라의 도성을 포위한 것과 같이, 일본의 고바야가와 지휘부는 7월 8일에 웅치와 이치에서 조선의 방어대를 무너트리고, 다음날 7월 9일 전주성을 양면에서 공격하기로 계획했다.

7월 7일 금산성의 고바야가와군의 본대는 진산을 거쳐 이치고개로 전개한 다음날 광주목사 권율과 동북현감 황진이 지키는 이치고개를 공격했다. 한편, 7월 7일 무주에 주둔하고 있던 안고쿠지부대는 본대의 지원을 받아 7일 용담을 거쳐 진안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7월 8일 김제군수 정담과 나주판관 이복남 등이 지키던 웅치고개를 공격했다. 7월 8일 아침부터 전라북도 완주군 동부지역 웅치고개와 북부지역 이치고개에서 동시에 일본군과 조선 방어대 사이에 치열한 교전이 있었다.

오후 늦은 시간에 이르러 이치고개를 공격하던 일본군은 많은 사상자를 내고 물러 나와 다음 공격을 준비했다. 이때 고바야가와군의 지휘부는 연산으로부터 조선의 관군과 고경명 장군의 의병연합 8천여 명이 진산으로 이동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일본군 지휘부는 이치와 웅치에 군대

를 보내어 방비가 약화된 금산성을 조선군에게 빼앗길 경우 전라도 공략의 거점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치 공격부대를 서둘러 철수시켰다. 이때 웅치에도 전령을 보내어 철수 명령을 전달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간파하신 보라매도 있겠지만, 일본군은 진산 별관에서 금산성의 일본군을 견제하던 광영 방어대와 마주치지 않았다. 그 이유는 7월 6일 광영부대가 고경명 의병대와의 합동작전을 위하여 7월 6일 연산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7월 8일 저녁 무렵 웅치고개의 일본군은 웅치고개를 돌파하고 웅치고개 아래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7월 9일 아침에 전주의 역마를 관리하던 안덕원을 지나 전주성 아래에 당도하여 몇 차례 둘러보다가 서둘러 철수하였다. 전날에 보낸 전령이 9일에 도착하였던 것이다. 또한, 7월 9일 오후 고경명 장군의 의병부대는 금산성을 공격하여 일본군에게 큰 피해를 주었으나, 일본군은 조총으로 의병의 접근을 견제할 뿐 성문을 나와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른 전투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안고쿠지부대가 무주 본진으로 철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음날 10일 고경명이 이끄는 의병 부대가 금산성을 공격했고 이에 일본군이 성을 나와 조선 관군을 공격하자 중군을 맡고 있던 광영 부대는

도주하였다. 일본군은 여세로 의병의 지휘부를 맹렬하게 공격하였고, 고경명 장군과 유팽로 등 막하 장수들과 고경명 장군의 둘째 아들 이후 선생도 전사하였다.

그 후 8월 18일 충청의병 조현과 승병 영규의 합동부대가 제2차 금산성 탈환 전투를 감행하였으나 <700의충>의 전설을 남기고 탈환에 실패하였다. 한 달 후 일본군은 옥천 방향으로 철수했으며, 정유재란 때까지 호남지역에 다시 들어오지 못했다. 이때는 명군과 일본군이 50일 평화협정을 맺어 일본군이 삼남지역으로 이동하던 때였다.

일본군이 전주성을 점령하지 못한 것을 권율 장군의 공이라 하기도 하고, 전주성 수성장 이정란 장군의 공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전술적으로 옳은 이야기이다. 그러나 작전의 성공은 모든 작전요소의 유기적 결과물이다. 여러 전투의 순절 애국인의 희생을 두고 논공을 말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필자는 전주성 방어작전의 키워드는 일종의 사석작전이 되었지만 <고경명 의병부대의 금산성 탈환을 위한 기동>에 있었다고 분석하는 입장이다. 고경명 의병장군의 금산성 탈환을 위한 기동은 마치 제나라 지원군이 위나라 도성 대량을 공략하기 위하여 기동함으로써 위군이 조나라의 도성 한단의 포위를 풀고 회군

한 것처럼, 일본군이 전주성 공격을 포기하게 했던 작전적 성공을 가져왔던 것이다.

정유년에 일본은 전라도 침공을 제1의 목표로 본국으로 철수했던 군단을 다시 조선에 상륙시켰다. 정유재란이다. 일본 우군 가토 부대는 경상우도를 통해 황석산성을 점령하고 무주를 통해서 전주로 진입했고, 일본 좌군 고니시 부대는 순천-구례를 통해서 남원성을 점령한 후 전주로 진격했다.

전라감사와 전주부윤은 일본군이 남원성을 점령한 후 전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전주성을 버리고 도주했다. 그래서 <전주성 전투>라는 말도 쓰지 못하고 <전주성 수성의 허망한 이야기>라고 했던 것이다. 일본군은 전주성을 헐어 평지로 만들고, 시장을 열어 10여 일 동안 노획한 물건을 서로 교환했다고 했다.

그래도 이순신 함대는 명량해전과 노량해전에서 일본의 함대를 격파함으로써 7년에 걸친 왜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맺음말

천하수안(天下雖安) 망전필위(忘戰必危)는 동서고금의 전사가들이 강조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진왜란의 교훈으로 만들어진 말인 듯하

다. 도둑놈을 막아내지 못한 것은 우리의 탓이지 어찌 도둑만을 탓하겠습니까. 필자는 난중오적(亂中五賊)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부류의 사람들을 징비하였다.

첫째, 선조 임금과 조정대신들의 가장 큰 죄는 척신들에 둘러싸여 국정을 문란케 하고, 유비무환의 교훈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적의 반간계에 속아 이순신 장군을 파직하고 광재우 장군을 역모로 모는 등 허다한 이적의 죄를 범했다.

둘째, 지역의 방어를 책임진 수령들이 적이 몰려온다는 말을 듣고 성을 버리고 도주하였으니,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그들의 전시 수소이탈의 죄가 작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국방태세를 갖추어야 할 관장들과, 전법을 개발하고 백성들을 훈련해야 할 각급 장수들이 자신도 모르고 적도 모르고 태만하였으니, 지피지기에서 무지의 죄가 작지 아니할 것이다.

넷째, 공이 있는 자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바르게 보고하지 않았으니, 무고의 죄와 질투의 죄를 필설로 다 쓸 수 없어 한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혼란한 틈을 타서 민간무장세력이 봉기를 획책하고 공공재산을 도둑질했으니, 비록 줌도둑이라고 할지라도 난리 중의 국기문란 행위는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용서받기 어려운 짓이다.

그래도 도둑은 도둑놈이니, 도둑의 실체는 이러하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였다. 적대적이라는 뜻에서 왜적(倭敵)이라고 하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우리 조상들은 일찍부터 그들을 왜구(倭寇)요 왜적(倭賊)이라고 했다. 두 말은 모두 도둑놈이라는 뜻이다. 일본은 임진왜란시 침략부대와 별도로 공예부, 포로부, 보물부 등 6개의 특수부를 편성하여 군대를 뒤따르면서 약탈하게 했다.³ 심지어 이릉지변(二陵之變)이라고 하여 선릉과 정릉을 파헤쳐 귀중품을 도둑질했다.

훗날 조선은 국교정상화 전제조건으로 왕릉 도굴범의 인도를 요구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세력을 괴멸하고 권력을 장악한 도쿠가와 막부는 두 명의 청년을 인도했는데, 나이를 역산하는 등의 조사를 하여 그들이 진범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으나, 조선 조정은 그들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정상화의 절차를 밟았다고 했다. 일본군 강제위안부 문제를 두고 오늘날 일본의 권부는 도쿠가와 막부의 도덕성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인정하고 사죄하면 될 것을 돈 몇 푼으로 없었던 것으로 하려고 한다. 돈을 준 것을 보면

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임진왜란사』 274~276쪽.

죄를 인정한 것이 되는데,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들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받을 만큼 문화를 발전시켰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들의 노벨상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문화의 뿌리가 우리나라로부터 도둑질한 것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도둑의 일은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이 다를 리 없고, 언제나 울타리를 넘보는 자가 있기 마련이

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세의 난맥상은 선조 시대의 동인, 서인, 남인, 북인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은 듯하다.

그래도 필자는 정치란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서 외부의 음흉한 나라와 간특한 세력들이 우리 강토를 넘보지 못하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단결하여 일심으로 잘 지켜내기만을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있다. 그런 날에 듣는 보라매의 폭음 소리가 나에게서는 더욱 크고 우렁차게 들린다. ❏

필리핀 GITEC 자원봉사 강사 활동을 마치고...



김원규(11기, 경희대 명예교수)

공사 동문 선배님과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ITEC(Global IT Education Corps—국제 IT 교육
봉사단) 봉사단원으로 필리핀 나보타스 지역에 파
견되어 3개월간 자원봉사활동을 마치고 온 공사
11기 김원규(경희대 명예교수)입니다.

공사 교수, 국과연 연구개발실장을 거쳐 경희
대 교수로서 정년퇴임을 하고 성남시에서 자원봉
사자로서 문화해설사와 판교박물관 전시해설자
로 활동하던 중에 GITEC 필리핀자원봉사 강사
선발에 응모하였습니다.

파견이 결정되었을 때, 한국 언론을 통하여 필
리핀 내부의 치안이 불안하며, 특히나 반한 감정
이 많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많은 분의 우려와
염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빈민밀집지역인 나
보타스(Navotas)시에서 직접 경험해보니 이것은
일부 편향된 보도라고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제
가 경험한 필리핀은 저와 같은 자원봉사자들에게
매우 친절하고 우호적이며 따뜻한 곳이었습
니다.

물론 무더운 날씨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

고 다른 애로사항도 많았습니다. 필리핀의 4월
~7월 기온은 한낮에는 41~43도까지 올라가고
습도도 높습니다. 또한, 교통체증이 심하고 시내
중심을 통과하는데 2~4시간이 걸립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외곽의 빈민밀집지역에는 판자집이
빼곡하게 들어선 것이 마치 우리나라 6.25 전쟁
후의 60년대 초를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3개월간의 교
육봉사활동은 저 스스로에게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두 가지로 기초코딩교육과 네이버의
“모두”(스마트폰홈페이지 제작) 교육이었습니다.

처음에 실시한 기초코딩교육은 필리핀 나보타
스 지역에 있는 2개 학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주 2회 하루 2시간씩, 총 12회를 진행
하였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15명 남짓 되는 6학년 아이들
을 가르쳤는데, 맑은 눈에 순수함을 가진 예쁜 아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을 가르치며 코딩교육에
대해 어려워하지는 않을까, 재미없어하지는 않
을까 고민했었는데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나
도 만족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수업

후 각자 배운 것을 바탕으로 응용하여 배경을 바
꾸거나 무언가를 추가하며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
는 시간도 가졌다. 발표를 시켜주지 않으면 화를
내기도 할 정도로 수업 자체에 흥미를 느끼고 즐
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의 코딩교육은 16명의 학생과 8명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난도가 좀
높은 과제들을 좀 더 많이 다루었습니다. 또한,
함께하신 선생님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
기도 하였습니다. 나보타스 시티(NAVOTAS CITY)
관계자 및 학교 교장 선생님들도 관심이 많아 교
육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먼저 묻고 적
극적으로 지원해주셨습니다. 기초코딩교육은 스
스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해 창의력을 높
일 수 있는 좋은 교육으로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필리핀 마닐라 시내에서 네이버 모두교육도 실
시하였는데, 모두교육은 한글로 제공되기 때문
에 필리핀 한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세 그룹으로 나누어 사업자, 직장인, 학생 등 다
양한 직종의 사람들에게 가르칠 기회였습니다.
한글로만 제공되어 현지인들에게 가르칠 수 없
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하였지만 해외에서 사는



한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좋은 기회였습니다.

3개월간의 필리핀 자원봉사활동은 제게 있어 다시 한번 삶의 열정을 불러일으켰던 아름다운 시간이었다고 자부합니다. IT교육을 통해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심어줌으로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쌓는 발판을 만드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열악한 교육여건과 외부에 노출되는 순간 무덤고 습한 기후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공사10훈의 정신과 공군 생활을 통해서 몸으로 체득한 필승공군의 정신력 덕분에 생각하며 항상 고맙게 생활해가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소개한 필리핀의 이모저모는 마닐라 근교에 나보타스시와 퀘존시를 왕복하는 길거리들의 풍경일 뿐이고, 마닐라시의 상업중심지 변화가인 마카티시에는 뉴욕의 마천루를 방불케 하는 빌딩들이 뻗뻗하고 금융, 무역, 건설 등의 분야에 세계적인 회사들로 꽉 차 있어 이곳을 한번 통과해서 지나가려면 출퇴근 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2~4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한마디로 필리핀은 빈부의 차가 심한 너무나 많은 다양성을 가진 사회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임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며 우리나라는 발전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원대한 뜻을 가지고 GITEC을 발족하신 정 대표님의 뜻에 경의를 표하며 철저한 계획과 교육을 통해 지원해주셨던 김미영 팀장님, 그리고 필리핀 현지에서 적극 지원해주셨던 SIFO 이순주 회장님, 송은경 팀장님 이하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인도네시아에서의 새로운 삶



신영덕(28기,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 객원교수)

내가 인도네시아에 온 것은 2009년 2월 19일이다. 인도네시아에 온 지 거의 8년이 되는 셈이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내가 대한민국 예비역 공군 대령이며, 현재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 교수로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면 매우 신기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해하며 그 이유를 묻기도 한다.

나는 사관학교 교수가 되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육사 교수에게만 해당한다는 것을 아주 늦게야 알게

되었다. 공사 교수의 경우에는 계급 정년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50대 초중반에 전역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어중간한 나이에 전역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어 막막하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외국대학교에서 한국어나 한국학을 가르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외교부 산하에 있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라는 곳에서 한국 대학교수를 선발하여 외국대학교로 파견한다는 것이었다. 선발 평가 기준은 대부분 국어학/국문학 혹은 기타 한국학 박사 학위 소지 여부, 교육 및 연구 경력, 외국어

능력 등이었다.

나는 주저함 없이 이 길을 선택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올바르게 알리는 일은 매우 보람 있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30년 이상 공군에서 근무하느라 외국 구경을 많이 해보지 못한 나에게는 꽤 매력적인 일로 느껴졌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명예전역을 신청한 후 이곳에 지원하였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선발이 되어 인도네시아 대학교(UI)에 객원교수로 파견되었다.

인도네시아 대학교는 자카르타 근교 테בק시에 있는 명문 국립대학이다. 학생들은 대체로 밝고 똑똑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이들의 관심은 매우 높은 편이어서 가르치는 일이 즐겁게 느껴졌다. 그런데 가장 불편했던 것은 언어 문제였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요구하는 외국어 능력은 대개 영어 회화 능력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오기 전에 나는 영어만 준비하였다. 명예전역 신청 후 영어학원에 등록해서 영어회화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보통 일과 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것 같아 새벽반 강좌를 신청했다. 이처럼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였는데, 인도네시아에 와 보니 영어보다는 인도네시아어가 훨씬 많



인도네시아어 과정 수료식에서

이 필요했다. 한국어 수업은 한국어와 영어만으로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한국문학 관련 수업은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이 충분치 않아 한국어와 영어만으로는 의미전달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한 학기 수업이 끝나자마자 인도네시아대학교 내 언어교육원(BIPA)에서 정식으로 인도네시아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방학 동안 운영하는 속성반이라서 그런지 학습 진도가 너무 빨라 따라가기 쉽지가 않았다. 일반 학기에서 넉 달 동안 가르치는 내용을 두 달 동안에 가르쳐야 하니 진도가 빠를 수밖에 없었다. 초보자 몇몇을 제외한 많은 학생은 입학 전 미리 공부하고 와서 그런지 그다지 어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인도네시아어를 처음 배우는 나에게는 두 달 동안의 수업이 정말 힘들었다. 두 달 동안 거

의 매일 숙제하고 복습만 하였다.

인도네시아어를 배우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듣기였다. 잘 들리지 않으니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미리 예습하고 싶어도 대부분의 경우 교재보다는 당일 나누어 주는 프린터 물로 수업을 하였기 때문에 수업시간마다 곤란을 겪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업이 끝난 후에는 같은 반 친구들에게 수업내용에 관해 물어보며 진도를 따라갔다. 중급과 고급 과정은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학에 대해 강의를 하면서 인도네시아어 수업을 들었더니 수업에 빠지는 시간이 많아 따라가기 쉽지 않았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2년에 걸쳐 졸업하게 되었는데,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 아마도 내가 공부 못하는 학생을 연민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된 것은 이때의 경험 덕분이 아닐까 싶다.

언어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생활은 즐거웠다. 종종 인도네시아의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는 그런대로 잘 먹었다. 처음에는 순다(Sunda) 음식이 입맛에 맞아 많이 먹었고, 이후에는 빠당(Padang) 음식도 잘 먹게 되었다. 그리고

두리안, 망고 등 내가 좋아하는 과일들이 많아서 좋았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매우 좋아한다. 이들의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도네시아인들에게 한국문화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곤 하였다.

한국 사람 중에는 인도네시아의 제도나 문화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한국보다 모든 것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열을 내는 사람도 많다. 나 역시 군에서만 32년 이상을 지냈기 때문인지 성격도 급하고 화도 잘 내는 편이었다. 그래서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지내는 동안에 나의 이런 성격을 고쳐보려고 노력했다. 기다림에 익숙해지려고 하는 노력 때문이었는지 지금 나는 인도네시아의 문화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음을 느낀다. 그래서 가끔 한국에 오게 되면 한국 사람들의 급한 성격 때문에 당황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다.

인도네시아 대학교에서 6년간 가르친 후, 나는 인도네시아 대학교에의 파견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계속 인도네시아에 남아 있을 것인지, 다른 나라로 갈지 아니면 한국으로 귀국해야 할지



장학금을 받은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선택을 해야 했다. 고민중이던 어느 날 교사를 양성하는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UPI)에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2013년 인도네시아 교육부에서 한국어를 고등학교의 제2외국어로 공식 지정하였는데 고등학교에는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정식 교사가 없어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에서 한국어교육과를 개설하고자 하니 나에게 와서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이후 대학에서는 한국대사관과 한국국제교류재단에 한국인 교수의 파견을 요청하였고,

재단에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를 선발하기 위해 모집 공고를 하였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지원하였고, 서류 심사와 면접시험, 영어 인터뷰 등을 통해 다시 선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나는 2015년 9월에 반둥시에 있는 명문 국립대학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 객원교수로 파견되어 지금까지 이곳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신 모든 분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이곳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는 인도네시아 고등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정식 교사를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려야 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교수가 되리라. ✕

나의 사랑 파라과이



유원봉(24기)

행복지수 1위 파라과이

2014년 9월 코이카(KOICA) 94기 초등교육 시니어 봉사단원으로 선발된 아내의 동반자로 지금까지 한 번도 밟아 보지 못한 정열의 나라 아메리카의 심장 파라과이로 파견되었었다.

파라과이는 스페인어(Español)와 과라니어(guaraní)를 공용어로 사용하는데, 부유한 집 자녀들은 영어교육과정이 있는 사립학교에 다니지만, 영어를 배울 기회가 없는 공립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영어를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에서 아내



근무지
Ypacarai

는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고, 나는 현지에서 사진 재능기부로 2년간의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 2016년 말에 귀국하였다.

파라과이는 귀에는 무척 익은 나라이지만 눈에 한참 먼 나라이다. 지리적으로 한국의 정반대에 위치하며 파라과이까지 직행하는 비행기가 없다.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미국을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을 포함해서 35시간 정도 걸리니, 멀고 먼 나라임에는 틀림없다. 시차도 -12시간이고, 계절도 남반구에 위치하여 정반대이다. 날씨는 전 국토가 대륙성 아열대 기후를 보이며, 연평균 기온은 22°C이나 지역에 따라 극심한 편차를 보인다. 10월~3월 하계기온은 22°C~42°C (평균 32°C), 4월~9월 동계기온은 3°C~32°C(평균 15°C)이다. 연간 평균 강우량은 1,500mm 정도로 돌풍을 동반한 폭우가 빈번하게 내린다. 도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도가 배수시설이 없거나 취약해서 빗물이 범람하여 도로는 큰 도랑으로 돌변하며, 학교가 휴교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면적은 남한의 4배이나 인구는 690여만 명으로 한국의 1/7 밖에 되지 않고, 산악지형이 거의 없는 평원이다. 1인당 GDP는 \$3,986로 세계 110위 (2016 IMF 기준)이다.

그러나 2014년 9월 미국의 갤럽에서 행한 조사에 의하면 ‘긍정 경험지수(Positive Experience Index, 일명 행복지수)’에서 파라과이가 세계 1위로 나타났다. 현지에서 직접 보니 정말 행복하게 사는 나라라고 100% 공감이 된다.

남녀노소 모두 큰돈 없이도 별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파라과이의 생활환경과 낙천적인 느긋한 성격에서 나오는 것 같다.

금요일 저녁이면 여기저기서 파티를 알리는 폭죽 소리는 그들의 일상이지 특별한 일이 아니다. 1년의 1/3을 온갖 기념행사와 축제(Fiesta)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며 즐긴다. 학생들도 공부보다는 행사를 위한 춤 연습 등으로 방과 후까지 열심히 호흡을 맞추는 것을 보면 우리들의 시각으로 저래도 될까 싶은데, 그렇게 학창 생활을 보내도 의사, 변호사가 되고 선생님도 되어서 학



Lago Ypacarai 축제 공연

생들을 가르친다. 지금까지 세계 80여 개국을 여행하며 많은 곳을 봐 왔지만 살아가기 힘들고 각박한 상황을 주로 느껴온 터라 신기하기만 했다.

여행객으로 잠깐 스쳐간 것과 달리 그들의 삶 속에서 머무르다 보니, 여행 때 경험할 수 없었던 깊은 다른 면들도 볼 수 있었다.

파라과이 생활 중 수많은 행사에 초대되면서 터득한 바로는 행사나 회식 등의 약속 시간이 정해진 시각에 진행이 되고 지켜지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정해진 시각보다 1시간, 어떤 경우는 2시간이 지나서야 행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우리의 정서상 약속시간에 10분만 늦어도 미안한 감이 들었던 나의 삶의 잣대로는 이해가 잘 안 되었다. 행사에 늦게 도착한 사람이나 일찍 도착한 사람이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곳 사람들의 태도가 처음에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찍 도착한 사람들도 행사시작을 기다리는 시간을 아까운 시간 마냥 지루하게 기다리는 표정이 아니고, 소통과 대화의 장으로 즐기는 인상을 받았다. 살다보니 그것이 문화차이라고 긍정적인 생각하게 되었다.

축제나 파티도 한두 시간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정해져 있지 않고 새벽 서너 시까지

진행되어, 우리는 보통 늦어도 밤 12시 정도에 귀가를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춤 파티가 이루어진다. 학교와 학원으로 향해야 하는 우리의 아이들과 달리, 어릴 적부터 많은 축제(Fiesta)에 짙은 화장에 파티복을 예쁘게 차려 입고 경쾌한 음악에 맞춰 춤 연습을 하고, 일반인들도 길거리를 지나가다가도 흘러나오는 음악에 자연스럽게 흥에 겨워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 삶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파라과이와 한국은 1962년 정식으로 수교하여 1965년 2월 파라과이에 이민의 첫발을 디딘 후 금년으로 52주년의 이민 역사를 갖고 있다. 초기에 파라과이는 미주지역으로의 이민이나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로 파라과이를 거쳐 간 이민자 수는 약 25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2015년 3월 현재 약 5천 명의 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동포들의 종사 업종은 의류 관련 비중이 35%로 가장 높고, 식품·식당이 14%로 이민 1세대는 주로 농업에 종사하였으나, 동포 1.5세대 2세대들은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설계사, 토목기사, TV 아나운서 등 다양한 전문 직종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부지런하고 강인한 생활력으로 곳곳에서 중추적인 역

할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한민족의 우수성이 아니겠는가하고 생각된다!

아메리카의 심장

파라과이는 볼리비아와 더불어 남아메리카에 있는 내륙국이다. 파라과이 강이 지나며,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에 둘러싸여 있다. 남아메리카의 한가운데 자리 잡은 나라라서, 때로는 “아메리카의 심장(Corazón de América)”으로 불리기도 한다. 수도는 아순시온(Asunción)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앞면과 뒷면이 다른 국기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파라과이는 지정학적으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같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있다. 때문에 예부터 이들의 침공 위협에 대비하고 자체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강력한 독재정권이 계속되었다. 따라서 파라과이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서 장기 독재 지배에 의한 폐해가 가장 심했던 비극적인 역사를 가진 국가였다.

파라과이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가장 뼈아픈 전쟁은 삼국동맹전쟁(Guerra de la Triple Alianza)이다. 이 전쟁은 1864년에서 1870년까지 남아



이구아수 폭포 '달 무지개(Moonbow)'

메리카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의 삼국 동맹과 파라과이 간에 발발한 전쟁이다.

아메리카 대륙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 중의 하나로 알려진 이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의 의견이 존재한다. 그 중에 파라과이의 대통령이었던 프란시스코 솔라노 로페스(Francisco Solano López)가 라플라타 강(스페인어: Río de la Plata) 유역의 문제에 대해 취한 과격한 정책과 주변 국가 간의 이해가 얽혀서 일어난 전쟁으로 보는 견해가 전통적인 관점이다. 전쟁은, 1864년 브라질과 파라과이의 전투로 시작되었으며, 1865년에는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가 브라질을 지원하면서 삼국 동맹 전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전쟁 전에는 남미에서 가장 광대한 영토를 가진 최강의 국가였지만 전쟁에서 패배한 파라과이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어 전쟁 전 53만 명의 인구가 약 22만 명으로 줄

었다. 특히 남성 인구는 90%가 사망해 단 2만 8천 명에 불과했다. 그래서 모계 중심의 사회가 형성되어 이후 지금까지 막강한 우먼파워를 형성하고 있다.

이 전쟁으로 파라과이는 멸망 일보 직전까지 몰렸다. 원래 모든 지역이 파라과이의 영토였던 이구아수 폭포는 패전으로 인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소유가 되었고 남미 최초로 건설되었던 철도는 파괴되어 지금도 파라과이는 철도



SNS에 소개된 나의 이력

가 없는 국가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폭포인 이구아수 폭포(포르투갈어: Cataratas do Iguazu, 스페인어: Cataratas del Iguazú)는 브라질 파라나 주(20%)와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 주(80%) 국경에 있다. 지금 같으면 이구아수 폭포만으로도 국민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세계적 관광지이기에 이곳을 잃은 파라과이는 땅을 치며 통곡할 일이 아닐까 싶다. 이 전쟁은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사건으로, 정치학의 표본이 되는 역사적인 전쟁으로 알려져 있다. 1954년 부터 1989년까지 집권한 알프레도 스트로에스네르 마티아우다(Alfredo Stroessner Matiauda) 대통령의 35년 동안의 군사독재를 경험한 파라과이는 1992년에 대통령 5년 단임제를 택하면서 대통령의 연임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현재 파라과이는 단임제의 대통령을 연임제로 바꾸려고 하는 현 대통령의 연임 개헌 시도에 반대하는 국민의 격렬한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파라과이 사랑

코이카(KOICA) 단원으로 아내가 근무하는 초등학교(Escuela Basica N°1026 Prof. Rosa Catalina

Ventre)는 공립학교이다. 총 270여 명의 학생들이 수업 받는 학교로 Asunción으로 부터 45km 떨어져 있는 Central 주의 Ypacarai시에 있다. 인근에는 파라과이 국교인 가톨릭의 성지 '까꾸삐(Caacupé)'와 파라과이 최대 호수이자 관광휴양지인 '으빠까라이 호수(Lago Ypacarai)'가 있다. 파라과이의 대부분이 그렇듯 주변 지역에는 주로 목장이 있어 목축업과 마떼(Mate)차인 페레레(Terere)재료 판매, 과일과 야채 행상, 과일잼 제조 판매, 영세한 목공소, 철공소 등 소상공인들이 주를 이룬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 파라과이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다. 이곳 파라과이에 대한 정보와 실정을 전혀 모른 상태이고 군 출신으로 현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특별한 기술이 없던 터였다. 이발 기술을 배워 갈까 생각도 했었는데, 막상 현지에 도착해 보니 이발 기술은 무용지물이 될 뻔했다. 일 년의 1/3이 기념일과 축제일이고 이곳은 생일을 무척이나 중요시하여 성대하게 치르는 곳이라서 미용실(Peluquería)이 서너 집 건너 하나씩 있을 정도이고, 다양한 헤어스타일로 미용 분야가 무척이나 발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생계수단이기도 한데 무료봉사로 간단한 이발을 해준다 했

어도 주민들이 좋아할 리도 없었을 것이다. 파라과이로 떠나기 전 고심한 끝에 그래도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은 사진을 찍어 주는 것이라 생각해서 사진을 현상할 수 있는 소형 사진 프린터와 인화지를 구입해 갔다. 처음 현지에 도착하여 시작한 일이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가족사진을 찍는 것이었다. 거의 매일 생일 집을 찾아다니며 무작정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주고 현상을 해서 주었더니 무척이나 즐거워하는 모습이였다. 처음에는 사진을 찍어 준다고 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는지 알고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했고, 값을 물어보는 사람도 많았지만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사진을 찍어 달라고 요청을 했다. 소문이 나다보니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뽀포(Foto)!'를 연발하면서 사진을 찍어 달라고 다가온다. 생일 같은 가정의 경사에도 초청을 받아 그들의 삶의 모습을 깊숙이 들여다 볼 수가 있어 사진을 선택한 것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다. 관공서나 타 학교에서도 내가 정식 코이카(KOICA) 단원으로 알고 공식 요청 문서를 들고 집으로 찾아오기도 하였다. 주변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각종 축제, 관공서와 학교 행사 사진을 찍어 주다 보니 인화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이 났다. 파라과이 내에서 사진 프린터에 적합한 인화지를 구할 수가 없어 미국 인터넷 마켓인 이



사진을 받고 기뻐하는 주민들



라디오 방송 출연

베이(Ebay)나 아마존(amazon)에서 구입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곳 파라과이는 우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배송받기가 쉽지 않았다. 미국에 사는 손녀가 나에게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를 1년이 지나서야 받을 정도이니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다.

교육지책으로 생각한 것이 페이스북(www.facebook.com/wonbong.yu)이다.

이곳 파라과이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이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를 애용하기 때문에 페이스북(Facebook)에 올려 주는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한국에서도 하지 않던 페이스북(Facebook)을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했다. 서로 친구가 되어 사진과 동영상을 올려서 태그(Tag)를 해주면 다운

로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Facebook) 친구가 최대한 가능한 5천 명을 넘어 지금도 친구 되기를 원하는 700여 명이 나의 수락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족들의 생일이나 행사가 있으면 메신저(Messenger)를 통해서 사진 촬영 요청이 쇄도하여 행사가 겹치기도 해 스케줄을 조정해야만 했다. 규정상 코이카(KOICA) 단원은 자동차를 소지할 수 없어서 늘 대중교통이나 걸어서 이동해야 하므로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집에서 초대할 때는 본인들이 교통편을 제공하기도 했다. 어느 날 같은 지역에 사는 줄 알고 사진을 찍어 줄 수 있느냐는 연락이 왔다. 어디냐고 물어보니, 파라과이 최 동쪽 브라질과의 국경 지역으로 버스를 타고 6시간을 가야 하는 시우달텔 에스페(Ciudad del Este)라는 곳이었다. 부모님 결혼 60주년 기념으로 사진을 꼭 찍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말했는데도 버스로 올 수 있다고 억지를 쓰는 사람도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파라과이 2년간의 생활은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분주하게 뛰어다녔다. 교황 방문 등 국민행사와 국경일 행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문화·스포츠·종교·학교 행사까지도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다. 전국의 주요 축

제나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작년에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1급 행사였던 '독립기념일(Día de la Independencia) 행사'에서 현장 경호원들에게 부탁하여 경호경비가 삼엄하고 허가된 기자들만 올라가는 PRESS 석에 들어가서 근접 촬영을 할 정도로 열정을 가졌던 것 같다. 가서 아무 일 하지 않고 여행이나 하면서 한가하게 보낼 수도 있지만, 그동안 남을 위한 일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나로서는 이번 기회에 좋은 일 한번 해 보겠다는 마음을 단단히 다지고 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공군인으로서 내가 곧 대한민국이라는 마음으로 한 점 부끄럼 없이 행동 하나에도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해외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는 말대로 지금까지 34년간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과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는 일념과 파라과이 사랑이 곧 내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임을 믿으며 열심히 생활했다.

여기서 하는 일이 남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여행과 사진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나의 즐거움을 찾는 행복한 생활이었다. 사진을 하다 보니 파라과이 문화에 가깝게 접할 수도 있었고, 다양한 경

험을 쌓았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외국의 도움을 받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하여 부러움을 사는 나라로 발전한 것은 우리 선배들의 값진 희생 덕분이라 생각한다. 파라과이는 도움을 받는 국가이지만 모든 국민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오히려 내가 배울 점도 많고 나의 삶을 돌아볼 기회도 되었다. 이들에게는 외국인이 무보수로 이곳 사람들의 삶속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열심히 뛰어 다니는 우리의 활동상이 인상 깊게 보였는지, 매스컴(Mass communication)과 소셜 네트워크에도 여러 번 소개되었다.

파라과이를 떠날 때는 Ypacarai 시의회로부터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환대와 파라과이 문화를 세계에 많이 알려줘서 고맙다고 감사패를 받기도 하였다. 국가와 종교행사, 지역 주민들의 가족 행사를 통해 즐거운 마음으로 파라과이를 배우고 또한 알고 싶은 마음에 바쁘게 뛰어다닌 것이 이곳 사람들에게는 고맙다는 느낌을 준 것 같다. 정식 코이카(KOICA) 단원도 아닌 내가 감사장을 받으니 그동안의 활동에 보답을 받는다고 보다는 내가 좋아서 즐겁게 한 일이 오히려 축스럽기도 하다. 2년간의 파라과이 임무를 마치고 공항에서 떠나는 작별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더

니, 992명이 ‘좋아요♡’와 “파라과이에 도움을 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언제든 문이 열려있으니 우리는 당신들이 다시 오기를 고대한다. 앞길에 건강하고 신의 가호가 충만하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의 111개에 달하는 댓글에 가슴 뭉클한 감동을 하였다. 앞으로도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그마한 힘이라도 찾아 보태도록 애써야겠다.

Viva Paraguay! Chau~(만세 파라과이! 안녕!)

이렇게 첫발을 디딘 파라과이에서의 익숙하지 않은 자연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곳에서의 생활이 봉사만 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인연들과의 행복한 만남은 나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삶의 현장에서 땀내음 나는 끈끈한 인간적인 사랑도 받았고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살아온 길을 더듬어 보는 계기도 되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보호와 사랑, 혜택만 받고 살아왔던 나로서는 이번 일을 통해 국가에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은 심정이다.

내가 한국인의 이름으로 이런 활동을 하도록



파라과이 공항을 떠나며~~



Ypacarai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감사장

기회를 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감사한다. 봉사를 많이해보지는 않았지만, 봉사라는 것을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주변의 훌륭한 많은 봉사자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형식적인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얘기가 진리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봉사로 정말로 내 마음이 한없이 행복했고 보람을 느꼈다.

감사한 마음으로 늘 사랑하고 즐기자는 기본을 제대로 잘 실천했다는 생각이 든다. 아울러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느끼게 되어, 앞으로도 나의 일과 사랑을 계속해서 펼쳐 나갈 예정이다.

나는 어제와 오늘도 페이스북을 통해 그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 이 기회에 파라과이에서 따뜻하게 대해주고 가족같이 챙겨 준 크리스텔(Cristel Gomez) 가족과 이웃, 동료, 주민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Querido Paraguay!! Viva Paraguay~ Chau~♡ Hasta siempre~~!

사랑하는 파라과이여 안녕! 만세!!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Haciendo Juntos Un Mundo Mejor!’
우리 모두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

배낭 하나 달랑 메고 다녀온 순례길

- 까미노 데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



김기연(21기)

이른 새벽, 어디에도 인기척조차 없다. 비에 흠뻑 젖은 나그네를 맞이하여 편안하게 쉬게 했던 숙소는 여전히 깊은 휴식 중이다.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영국, 필리핀,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 헝가리 등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순례객들이 식사 후 한바탕 흥겨운 즉석 파티를 열었던 식당도 아직은 깨어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오늘 하루는 또 어떤 광경, 어떤 순례객들과 마주칠지 기대가 가득하다.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맘껏 들이키며 가볍게 발걸음을 옮긴다. 자신도 모르게 감사의 노래가 튀

어나온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매일 25km에서 30km 정도를 계속 걸을 수 있는 건강한 몸, 67세의 나이에도 혼자 장기간 외국에서 도보여행을 시작한 도전정신, 부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 산행과 암벽등반을 통해 몸에 밴 걷기 노하우, 망설이지 않고 갔다 오라던 아내와 아이들의 무한한 믿음,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며 격려하던 친구와 친지들의 지지, 앞서 다녀온 많은 경험자의 기록과 사진,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등등 모든 것이 고맙기만 하다.

‘카미노 데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는 직역하면 ‘별의 들판 산티아고로 가는 길’이라는 뜻이다. 스페인의 서쪽 끝부분에 위치한 산티아고는 예수가 활동하던 시절엔 세상의 끝으로 여겨지던 곳. 예수의 제자 야고보는 그곳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왔다가 제자 중 처음으로 순교를 했다. 제자들이 유해를 스페인으로 옮겼는데, 이슬람의 공격으로 행방이 묘연해졌단다. 먼 훗날 9세기에 별빛이 나타나 숲속의 동굴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보니 그의 무덤이 있었고, 무덤엔 조개껍질로 덮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조개껍질은 순례자들의 상징이 되어 모든 순례자가 조개껍질을 배낭에 달고 산티아고로 향한다. 성 야고보(스페인어로 산티아고)의 유해가 별빛 가득한 허허벌판에서 기적처럼 발견되자 그곳에 성당을 세웠고 자연스레 도시가 형성되었다. 이후 파괴와 재건축 및 증축과 개축이 몇 번 이루어져 현재는 엄청난 규모의 대성당으로 장엄한 모습을 보인다.

대성당을 처음 접하면 누구나 그 큰 규모와 정교하고 아름다운 장식에 놀라게 된다. 그래서 드는 생각, 지나치게 크고 호화롭고 사치스럽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난한 민초들을 가까이하고 재물을 탐하지 않던 예수나 그 제자들과는 너무 동떨어져 보여 오히려 이상하다. 신심이 바탕이 되었겠지만, 당시의 정치적 상황도 작용했음이 분명

해 보인다. 당시엔 이슬람에 대항하기 위한 구심점이 필요했을 것이고, 교회와 야고보 성인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한 이슬람교도와 싸우던 기독교인들에게 야고보는 수호성인이었다. 압도적으로 불리한 전세에서 성인이 백마를 타고 나타나 적을 무찔렀다는 전설도 전해져 내려온다.

순례길은 바로 그 대성당을 향해 가는 까미노(길)이다. 출발점과 경유지에 따라 프랑스 길, 스페인 길, 포르투갈 길, 북쪽 길 등 여러 길이 있고 거리와 지형도 차이가 크게 난다. 가장 많은 사람이 다녀 순례길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프랑스 길은 약 800km로 한 달 이상 걸어야 하고 고도 1,500m 이상의 산도 넘어야 한다. 한편, 포르투갈 길 중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포르투-산티아고 구간은 약 250km로 열흘 정도 걸리고, 최고 고도는 500m가 채 되지 않는다. 어느 것이나 사람냄새 가득한 여행으로 알려져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도 많이 찾는다. 예전엔 종교적 이유가 순례의 주류였다면, 이제는 자신을 찾고 무언가 큰 결단을 내리기 위한 목적의 여행객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방문과 파울로 코엘류의 ‘순례자’가 인기를 끌면서 순례자가 급증했다고 한다. 유럽인들에게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버킷 리스트 중의 하나로 꼽힌다



잔돌 포장 광장

고도 한다.

두 발로 마을과 들판과 산을 가로지른다. 고색창연한 교회와 각양각색의 집들이 마치 경연을 벌이는 듯한 동네와 많은 포도밭과 아름답게 꾸며진 공동묘지도 지난다. 인구밀도가 낮아 비워둔 경작지와 집터가 이방인에겐 무척 아까워 보인다. 큰 교회 옆의 작은 교회는 마을이 형성되던 초기 얼마 안 되는 인구에도 교회부터 세운 선조들의 신심과 그것을 기억하려는 후손들의 정성을 짐작하게 한다.

가끔은 차가 많이 다니는 큰길을 따라 걷기도 한다. 그 옛날에 이미 도로포장을 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단단한 돌을 일정한 크기의 사각형 막대처럼 다듬어 땅에 촘촘히 박은 잔돌 포장. 비가 내려도 질퍽거리지 않고 먼지도 나지 않는다. 넓디넓은 광장이나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 오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든다. 기술이 발달한 지금도 웬만한 포장은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드는 옛날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 또한 그들의 후손답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길을 자동차가 달릴 때면 마치 탱크가 지나가는 것처럼 소음이 심하다. 게다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인도에 설치한 잔돌 포장은 표면이 반들반들 닳아서 미끄러워 자칫 넘어질 수도 있다. 저녁 무렵 햇빛이 반사되면 눈이 시기도 하다. 어쨌거나 얇고 가벼운 운동화를 신었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쉽다. 반드시 바닥이 단단하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등산화가 필수다. 그리고 무게가 조금 나가더라도 목이 발목을 덮을 정도로 길어야 자칫 잘못 디디거나 미끄러져도 발목을 접지를 염려가 적어진다. 장기간 걸을 때는 신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교과서나 성경 구절로만 알았던 현지 역사와 문화를 직접 접한다. 역사 시간에 들었던 교회는 예나 다름없이 신도들이 다니고, 케사르 시대

에 만들었다는 돌다리는 아직도 자동차들이 오간다. 느끼고 체험하는 깊이와 즐거움이 버스를 타고 안내원을 따라 다니는 여행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목적지가 같은 순례자들과 어울려 함께 걷고 먹다가 걸음걸이에 따라 헤어지고 만나기를 반복하노라면 다시 만나는 반가움이 배가 된다. 느낌상 한국 물가의 반의반도 되지 않는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 신선하고 다양한 과일을 고르는 재미도 쏠쏠하다. 때로는 말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친절하고 따뜻한 인심에 사람 사는 맛을 느끼고, 서로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게도 된다.

순례길에서는 각자 체력과 상황에 따라 걷는 거리와 속도를 스스로 조절한다. '알베르게'라고 불리는 순례자 숙소를 하룻밤 만 원 미만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 비용도 저렴하다. 샤워와 세탁은 물론, 인근 시장에서 재료를 사서 자기만의 조리도 가능하니 금상첨화다. 알베르게는 길 중간 중간에 있어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거리의 것을 선택하면 된다. 여행안내소에서 각 알베르게의 위치와 편의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얻어 참고한다. 간혹 성수기에 알베르게가 부족하면 조금 비싸지만 사설 숙소를 이용하거나 호텔에 묵을 수도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번잡한 일상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날 걸어갈 구간을 정하고 오로지 걷는 것에



로마 시대에 만든 다리

만 집중한다. 복잡한 계획 같은 것은 아예 할 필요도 없다. 자신의 능력과 상태에 맞게 걸으면서 주변 식당이나 카페에서 값싸고 질 좋은 순례자용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면 된다. 일찍 걷기를 끝냈다면 세탁을 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인근 마을을 다녀올 수도 있을 것이다. 평상시와는 다른 단순한 일상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하고 놀라기도 하고, 나아가 행복도 느낀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많이 걷는가 보다. 시작하면서부터 칠십 대 순례객을 적잖이 만났



순례길을 안내하는 노란 화살표시

다. 25년을 버르다 왔다는 75세와 73세의 미국 할머니, 6년째 여러 순례길을 다니고 있다는 아일랜드의 76세 멋쟁이 신사, 혼자서 다니는 것이 편하다는 75세의 키 작고 당찬 미국 할머니, 나이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아직도 멋쟁이 기질을 발휘하고 있던 프랑스 할머니, 65세 아내와 함께 31일째 순례 중이라던 72세 미국인 등. 그런가 하면 자신이 직접 벌면서 여행비를 충당하는 젊은이들도 있었다. 이탈리아의 한 고교졸업생과 헝가리의 한 아가씨는 현지에서 일을 해주고 숙식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여행하고 있어서 또 다른 세상을 보는 느낌이었다.

순례길은 노란 화살표시가 계속 표시되어 있어 이것만 따라가면 마지막 목적지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의 대성당까지 이어진다. 화살표시는 때로는 페인트로, 때로는 공예나 조각 등으



산티아고 대성당

로 다양하게 되어 있다. 장소도 길 위나 건물 벽, 바위 위 등에 다채롭게 표시되어 있다. 중간에 간혹 보이지 않더라도 잘 살펴보면 10~20m 내의 어딘가에는 반드시 표시가 있어서 길을 잃어버릴 염려는 거의 없다. 그리고 화살표는 많은 경우에 조개 그림과 함께 있기도 하고, 때로는 조개 그림만 있기도 하지만 언제나 방향을 찾기에는 문제가 없다. 길 찾기에 도움을 주는 무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길에서 벗어날 우려가 없다. 많은 순례객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계속 다니고, 현지인심 또한 순박할 정도로 좋아서 안전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노란 화살표만을 따라 마침내 도착하는 최종 목적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대성당, 오랜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벽찬 환희와 성취감에 하나같이 밝고 환한 표정들이다. 드넓은 광장이 곳곳에선 순례를 끝낸 개인과 단체들이 나름대로 춤과 노래 등으로 마무리 의식을 치른다. 앞드려 기도하거나 환호작약하는 이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다. 그러한 광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큰 감동이다. 조금 떨어진 사무실로 가 긴 줄에 서서 완주 증명서를 받는다. 성야고보의 유해 앞에서 기도하고 순례자를 위한 정오 미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순례의 여정은 끝

난다.

운이 좋거나 일요일이면 높이가 어른 키의 반이 넘는 대형 향로(Botafumeiro) 의식을 볼 수가 있다. 수십 미터 높이의 성당 천장 꼭대기에 굵은 밧줄로 매달려 있는 커다란 향로. 여섯 명의 수사들이 힘을 합쳐 밧줄을 당겼다 놓기를 반복하면 향로는 향을 태우는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성당 천장을 가로지르며 획획 날아 꽤중시계 처처럼 진자운동을 한다. 거의 천장에 닿을 정도로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기를 몇 번이고 반복한다. 다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장관이다. 모두 탄성을 지르며 향로를 따라 연신 고개를 돌린다. 오랜 순례로 땀에 찌든 순례자들을 소독하고 축복하기 위해 중세 때 시작된 전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수녀가 부르는 아름다운 성가와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이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순례를 성공적으로 끝낸 순례자들에게 더 할 수 없는 감동과 흥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모두 할 말을 잃고 가슴이 뭉클해진다.

순례객들은 세계의 곳곳에서 몰려든다. 이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순례길의 즐거움은 배가 된다. 함께 걸으며 부담 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노라면 그것만으로도 흥미롭다. 북한의 김정은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같은 민족이 왜 큰



산티아고 대성당 내부 파이프 오르간

차이가 나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할 기회도 저절로 생긴다. 같은 생선요리에 국가마다 독특하게 소스를 더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전혀 다른 풍미가 난다는 것도 신기하다.

순례를 끝낸 후 완주 증명서를 받으려 할 때였다. 워낙 사람들이 많아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앞에서 영어 하는 사람을 찾는다. 바로 손을 들고 나가니 자원봉사자라며 증명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다. 한국에서 왔다니까 자기도



완주 증명서

오산과 청주에 가본 적이 있단다. 30여 년 전 팀 스피릿 훈련에 미군 헬기 조종사로 참여했던 것. 내가 바로 그 훈련의 계획관이었다고, 그리고 예비역 장군이라고 하자 바로 거수경례를 하며 반가워한다.

처음엔 배낭에 이것저것 넣어 가는 것이 많지만 이내 비우는 미덕을 절감하고 실천하게 된다. 길에 따라 짚개는 열흘, 길게는 한 달 이상 자신의 짐을 스스로 지고 걸어야 하기에 평소라면 아무것도 아닌 무게도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필수품만 챙기고 나머지는 버리게 된다. 배낭의 짐뿐이 아니다. 어쩌면 배낭보다 훨씬 더 무거운 가슴 속 분노와 후회, 원망과 아쉬움 또한 걷는 사이에 그 무게를 털어내거나 저절로 없어지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자리는 성취감과 자신감, 희망과 용기, 감사와 의욕으로 채워진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길을 치유의 길이라고 하는가 보다.

가끔 아무에게나 물어서 길과 식당과 숙소를 찾게 된다. 당연히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겸손이 절로 몸에 배게 된다. 자신을 낮추어서 묻기만 하면 주위의 모든 사람이 천사가 되어 도와주려고 한다. 그리고 보니 곳곳에서 많은 천사를 만났다. 처음부터 일행이 있어 함께 한다면 많은 이야기로 서로를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져 서로에게 천



숲속을 지나는 순례자들

돌아보고 앞날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진다. 지나온 세월을 되돌려 생각하다 보면 고통과 즐거움도 결국 마음먹기에 달렸던 것임을 깨닫는다. 들판을 지나고 산을 넘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지나고 도시를 가로지르면서 걷는 것이 더할 수 없이 재미있고 즐거워진다. 다시 일상이라는 순례길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할 용기와 활력이 생긴다. 한 번 순례길을 맛보게 되면 계속해서 다른 길을 걷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가 보다. 오랜 군 생활을 마치고 성찰과 치유, 새로운 인생 설계 등을 고민하거나 안전한 가운데 저렴한 비용으로 재충전이 필요한 우리 예비역들에게 적극 권장하고픈 이유이다. ☒

사가 될 수도 있다.

심심치 않게 만나는 칠순이 넘는 순례객들은 앞으로의 나날에 참고가 되고 자극제가 될 것이다. 혼자서나 길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누노라면 어쩔 수 없이 지나온 인생을

전역 후 소프트웨어 개발자 되기



김태연(51기)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면 공군 장교가 되어 조종 특기나 다른 특기를 부여받아 근무하게 됩니다. 나 역시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했지만 임관 5년 차에 전역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경력이라 이렇게 글을 쓰게 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이력이라고 한다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현재 메신저로 유명한 회사에서 아이폰 지도 앱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도 시절이나 공사를 졸업하고 '03년도에 임관한 후 전역에 대해서

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동기나 선배처럼 임관 후에 펼쳐질 군 생활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소위 때 비행훈련에서 탈락하고 생도 시절 전공했던 항공공학 덕분인지 항공무기정비 특기를 부여받았습니다. 항공무기정비 장교로 군생활을 하던 '07년도에 애플에서 아이폰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이야 스마트폰이 대세이고 전화만 되는 폴더폰을 찾기 힘들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전화 기능 위주인 폴더폰이나 슬라이드폰이 대세였습니다. '07년도에 미국에서 아이폰을 발표했으나 한국에 들어오지는 않았다. 대신 아

이팟 터치를 구입해서 사용해보는데 유려한 디자인과 반응성을 보여주는 데 충격을 받았다. 여기에 미래가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항공기술을 보더라도 F-4, 5와 F-15, 16의 세대가 다른 항공기 능력 중에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이 항공전자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GPS 기술을 활용한 유도무기로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고, 더욱 먼 거리에서 적기를 레이더로 감지하여 공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면서 구세대 항공기 여러 대를 상대할 수 있는 전투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항공무기 정비장교로 복무하면서 주로 항공전자와 관련된 보직을 받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자 기술 중에서도 소프트웨어의 가능성에 대해서 체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폰 발표를 보면서 전화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GPS 칩을 이용한 위치정보 활용 기능, MP3 기능, 카메라, 미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상용화한 애플과 아이폰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08년도에 애플에서는 아이폰에 앱 스토어 기능을 추가하면서 앱 개발자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었습니다. 개인 개발자가 아이디어를 이용해 참신한 앱을 개발하여 올리고 사용자들은 그런 앱을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

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미 초급 지휘관으로 자리 잡은 무기정비 장교의 길과 미지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길을 비교하다 가끔 전역에 대해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역의 두려움을 떨치게 해준 힘은 생도 시절 받았던 타이트한 교육과 훈련, 절제된 내무생활을 겪고 이겨내며 졸업한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생도 시절 받은 교육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뛰어넘고 나 개인보다는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소속된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리더십을 함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공사 합격 후 정식 입교 전까지 4주간 받게 되는 가입교 훈련은 처음으로 집과 부모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쌀쌀한 날씨에 받게 되는 군사훈련입니다. 입교 전까지만 해도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랐으나 1학년 하계 훈련에 5일 동안 수중생활훈련으로 3m 깊이의 공사 생활훈련장에서 실시한 물에 대한 공포감을 이겨 낼 수 있었다. 직각 보행이나 사역 등 엄격한 내무생활을 하는 1학년 메추리 시절, 아침부터 훈련을 끝내기 전까지 끝없이 PT를 하면서 늘어나는 체력과 11m 높이 막타 위에서 높은 곳에 대한 공포감을 극복하는 3학년 하계 공수훈련, 매주 무용 구보와 주말 퍼레이드 등으로 단련이 되었기에 나 자신을 믿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길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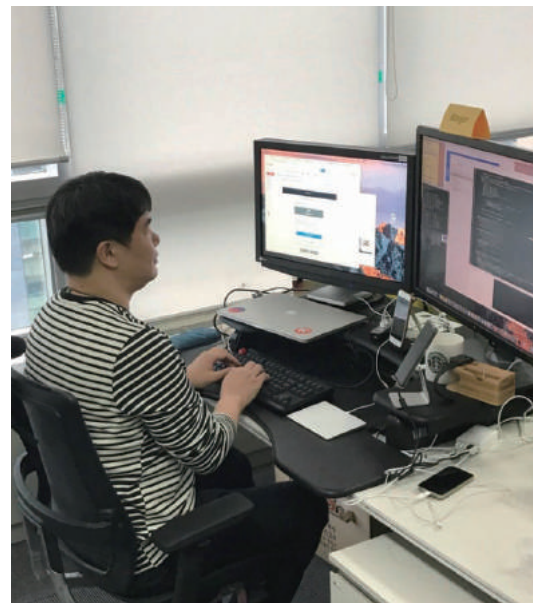
공무기정비는 업무 특성상 일찍 출근해서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하기에 별도로 준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관련 서적을 틈틈이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뛰어난 개발자가 될 수 있는가를 세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서적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경지식을 늘려주었습니다. 많은 책이 도움이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에는 소프트웨어가 없다”는 책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알려주었습니다.

2009년도에 5년 차 전역을 하면서 바로 직장을 갖기보다는 개발자 모임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개발자들은 온라인에서 모임을 정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나 스터디를 하는 것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전공자도 아니고 경력도 없지만, 얼굴을 비추며 현업 개발자와 같이 스터디를 하고 내가 궁금한 점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던 중 유명한 개발자 한 분이 대학원에 진학하라는 조언을 해주었다. 그래서 전공 지식을 체계적으로 얻고 석사 학위 취득 등 장점이 많다고 판단되어 대학원에 진학하였습니다. 매일 대학원 연구실에 출근하며 수업을 듣고, 연구하고 논문을 공부하면서 지식을 습득하고 능력을 키웠습니다.

석사 3학기에 유명한 포털 회사에서 채용공고가 나와서 지원을 했습니다. 크게 기대하지 않았

는데 운이 좋았는지 아니면 내 의지를 좋게 봐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합격하여 졸업 후 갈 곳이 정해지면서 4학기에는 졸업 논문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취직하였고 내가 원했던 부서는 아니지만 배치되어 업무를 시작했다. 신입 개발자는 3년 정도 지나야 쓸만하다고 하는데 서비스 유지보수 및 신규 프로젝트를 하면서 개발 역량을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생도 시절 일요일 저녁 점호에 명예광장에서 외우던 공사10훈 중 특히 성심복종과 책임완수, 신의일관, 솔선수범하라는 내용을 늘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흔히



보기 힘든 공사를 졸업한 장교 출신이기에 책임감을 느끼며 업무를 하였고, 남이 꺼리는 업무를 자진해서 맡아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동료로 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시작 업무는 서버 개발자였습니다. 해당 서버는 담당자가 생기면 1년 내로 퇴사하게 된다는 징크스가 있던 업무였는데 내 의지가 더 강했는지 2년 후 다른 소프트웨어로 대체되기 전까지 내가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도중에 아이폰 개발 업무를 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과감하게 지원해서 주말 밤낮없이 업무를 했습니다. 고생스러운 업무이긴 했지만 열심히 하다보니 아이폰 개발 역량 역시 향상되었습니다.

5년 정도 한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하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정체되는 것 같아 이직하였습니다. 메신저로 유명한 회사로 지도 앱을 개발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기술자가 필요하다는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채용 합격했습니다. 이직 후 내가 원했던 신규 앱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1년 후에 앱을 정식으로 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도 시절 받은 교육이 힘들었지만 내 능력과 의지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된 것처럼 힘든 프로젝트 업무 역시 나를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성장시키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역 후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자리잡기까지 몇 년이 걸리기는 했지만 도전하는 자에게 길은 열립니다. 뜻한 바가 있다면 자신을 믿고 도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Red Flag 훈련 참가 후기



소령 전창범(53기, 제11전투비행단 제102전투비행대대)

1. 개요

한국 공군은 2016년 9월 28일부터 10월 26일까지 미국 알래스카의 아이슬 공군기지에서 실시된 '17-1차 Red Flag 훈련에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F-15K로서는 2008년 벨리스 공군기지에서의 첫 Red Flag 훈련 참가 이후 4번째 훈련이며, 2013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공중급유를 받으며 알래스카를 향했던 이후 3년 만에 Red Flag-Alaska 훈련에 다시 참가하는 것이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F-16 전투기 조종사들

이 알래스카에 다녀왔으며, 우리 공군 전체로 볼 때는 이번 훈련이 12번째의 Red Flag(이하 레드 플래그) 훈련 참가가 되겠다. 이러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30명의 훈련 참가 조종사들을 포함하여 정비, 무장, 지원 요원 등 140여 명의 훈련 요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임무와 책임이 막중한 역할들을 훈련 기간에 수행하였다.

필자는 이번이 2013년에 이은 두 번째 참가였으며, 이번 훈련에서 6대의 F-15K를 알래스카까지 무사히 가져가고 돌아오는 FERRY 임무의 임무편대장과 공격편대군 MC(Mission



아이슬스 기지 및 대대 건물의 RED FLAG 마크

Commander)의 교관 역할 등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인이 수행했던 FERRY 임무 및 편대군 임무를 중심으로 준비과정과 전반적인 내용 및 느낌점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2. Red Flag 훈련 소개

레드 플래그 훈련은 미 태평양공군 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공군의 연합 합동 전술 공중전투 훈련으로서, 미 공군과 해군, 해병대, 주 방위군의 항공 전력뿐 아니라, 동맹국의 항공전력도 부정기적으로 참가한다. 레드 플래그 훈련은 베트남전에서 미 공군 전투기의 피격률이 급격히 상승하자, 실전적 공중전투기동 훈련의 중요

성을 절감하여 1976년에 시작되었으며, 훈련은 청팀(이군)과 홍팀(적군)으로 나뉘어 상호교전, 전술폭격 등의 실전적 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가상 적기를 담당하는 비행대대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이번 훈련은 통상적인 기간대로 2주간 실시되었으며, 현지 전개 및 사전 훈련 기간을 포함하여 약 1개월간의 훈련이 이루어졌다. 미 공군의 F-15C, F-16CJ/CM, E-3, KC-135를 비롯하여, 미 해군의 FA-18과 호주 공군 및 한국 공군의 전력이 동맹국으로 훈련에 참가했다.

3. Red Flag 훈련 준비과정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선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사전 훈련 및 계획이 필요하다. 11비는 비행단 준비팀을 구성하여 작사와 공군본부의 담당자들과 협력하여 수개월 전부터 훈련 참가를 위한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훈련 준비과정을 점검 보완하였다. 또한 최초(IPC) 및 최종계획(FPC)회의에 참가하여 미 공군과 세부사항들을 협의하였으며, 미 공군의 연합훈련 참가 요구조건인 ECL(English Comprehension Level Test) 85점을 충족하기 위해 수개월 전부터 영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조종사들의 영어 능력이 향상되도록 힘을 썼다. 특히 알래스카까지 전투기를 타고 가야 하는 조종사들은 10시간이 넘는 알래스카까지의 장시간 비행을 위해 장시간 체공훈련과 야간 공중급유 훈련을 수행하며 정예화에 매진했다. 또한, 레드 플래그를 대비하여 전 조종사들은 비행단 자체 공격 편대군 훈련, Max Thunder 및 Buddy Wing과 같은 연합 편대군 훈련에 참가하여 사전에 공격 편대군 훈련의 여러 경험을 쌓도록 하였다. 조종 분야뿐 아니라 정비사들 또한 제한된 인원과 물자로 최상의 항공임무 지원을 하기 위한 훈련과 무장이나 항공기 부품 같은 물자를 적재하는 훈련을 진행하였다.

4. FERRY 임무 수행

가. 사전 훈련

알래스카까지의 장시간 비행을 위한 사전 훈련은 지상에서의 10시간 동안의 시뮬레이터 탑승 훈련, 야간 정예화 공중급유 훈련 그리고 7시간 동안의 장시간 체공훈련 순으로 이어졌다. 시뮬레이터에서나 실제 좁은 조종석에서 긴 시간 동안 움직일 수 없는 것이 큰 고충이지만, 이번 FERRY 임무 시 조종사들에게 가장 심적 부담이 되었던 부분은 길어진 야간비행 시간이었다. 도착지인 알래스카의 아이슬스 기지에 주간에 도착하기 위해선 9월 말 출발 기준으로 새벽 01시에 출발해야 하며, 대략 3시간 30분 동안의 야간 비행시간 동안 4회 정도의 야간급유를 해야 했다. 또한, 이러한 심야 시간대의 비행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장시간 체공훈련뿐만 아니라 실제 FERRY 전개 3일 전부터 조종사들은 시차 적응을 위해 밤낮이 바뀐 일과시간을 따로 적용하여 생체리듬을 맞추고자 노력했다.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를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CASE STUDY와 토의를 통해 비상시 역할 설정 및 비상처치를 숙



공중급유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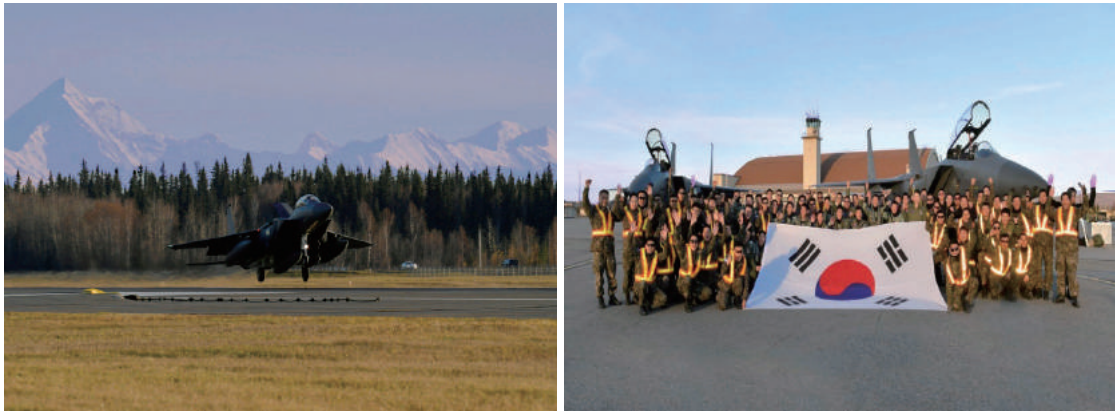
달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이제껏 다년간의 FERRY 경험을 통해 많은 Know-How가 축적되어 있었고 우리 F-15K 정비사들의 능력과 항공기의 안정성을 신뢰하였기에 임무 조종사들은 큰 두려움은 없었으나, 태평양 한가운데서 혹시 모를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긴장감을 지닌 채 FERRY 당일을 기다렸다.

나. FERRY 전개 및 복귀

이번 레드 플래그 훈련 참가를 위한 FERRY 전개 및 복귀는 지난 여러 해와 마찬가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진 않았다. FERRY 전개 및 복귀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임무에 영향을 주는데, 그러한 요소에는 한국군 항공기와 조종사들의 상태뿐 아니라, 미 공군 공중급유기의 상태, 기상여건 등이

포함된다.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한 번의 훈련으로 진행되길 많은 이들이 바라지만, 결국 우리의 바람과 달리 미 공군 공중급유기의 정비와 지원 문제, 항로상의 기상 문제 등으로 인해 전개일과 복귀일이 계획보다 2일씩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계획했던 일정보다 48시간이 지난 FERRY 전개 당일. 지금도 필자에겐 전개일 새벽, 6대의 F-15K의 이륙 후 공중급유기와 첫 만남이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때 그 긴장감 속에 보았던 야간의 전경, 구름과 별들을 배경으로 보였던 급유기 모습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약간의 난기류와 구름, 급유기의 자동항법 시스템의 문제 등으로 인해 첫 급유부터 전 비행편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야간의 구름이 있는 상황 속에서 NVG(Night Vision Goggle, 야간 투시



아일슨기지 도착

경)를 착용하고 밀집대형을 유지하면서 조종사들의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비행 중 만난 화산재로 인해 잠시 동안 비행 편조원들이 흠어졌던 상황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순간들이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9시간 동안의 전개 비행을 마치고 우리는 아일슨 기지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지상에서 태극기를 들고 있는 동료들을 볼 때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던 것은 나 혼자만의 느낌은 아니었다. 항공기 좌석에서 이탈한 동료 조종사들의 눈 또한 다소 축축이 젖어있었으며, 지상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 준 본대 훈련 요원들의 얼굴엔 하나같이 왠지 모를 뿌듯함이 보였다. FERRY 전개를 안전하게 수행한 후 하나 된 팀워

크을 토대로 우리는 본 훈련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전개 경험으로 복귀 시엔 편서풍의 영향으로 길어진 11시간의 비행조차 오히려 더 자신감 있게 완수할 수 있었다.

5. 현지훈련

가. 친숙화 훈련

한국에서 미국 현지 비행 절차 및 레드 플래그 훈련 자료는 미리 조종사들이 학습한 상태였지만 현지에서도 미 공군 주관으로 지상학술의 시간을 또 한 번 갖게 된다. 이는 레드 플래그 훈련이 미 공군을 중심으로 동맹국 공군이 주기적으로 참가하며 미국 측도 현역뿐 아니라, 주 방위군



알래스카에서의 비행훈련

및 타군이 아일슨 기지에 전개하여 훈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습 시간 이후 공역과 기지 입출항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관속 비행과 친숙화 훈련을 1주일간 실시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비행훈련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한국 공군 또한 이러한 시간을 통해 기지에 대한 친숙화 훈련을 수행하며 원활한 입출항 절차 숙달 및 기지 특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본 훈련

친숙화 훈련 이후 본격적으로 훈련에 돌입하면 공격편대군 훈련을 기본으로 X-INT(긴급항공 차단 작전), CAS(근접항공지원 작전), CSAR(전투탐색 구조), 실무장 훈련 등의 다양한 임무들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이번 훈련에선 보통 청

군(Blue Air) 30~40대, 홍군(Red Air) 14~16대의 수준으로 실시되었으며, 이는 각 차수별 참가 전력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항공기가 동일 시간대에 이착륙 해야 하므로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임무감독관(AIR BOSS)의 전체 주파수(GUARD FREQ) 이용한 전파 및 브리핑 내용을 잘 숙지해야만 했다.

레드 플래그 훈련에서는 비행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수행되는 임무계획 및 브리핑/디브리핑이 훈련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임무계획의 전반적인 흐름은 최초계획 회의에서 지휘관 의도, 기상, 정보 상황 및 ATO(항공임무명령서) 수정, 필요 사항 점검 후 임무편대장(Mission Commander) 주관하에 편대군별 임무계획 방향 및 지침이 전달된다. 이후 1차 임무편대장 회의에서 편조별 지



브리핑/디브리핑 모습

상황주/이륙시간, 대기 위치/고도 등 편대군간 공간 분리와 시간 분리 등의 협조사항을 재확인한다. 2차 임무편대장 회의에서는 편대군간 세부 임무 자료 및 브리핑 슬라이드가 완성되고, 최종 계획회의에서는 최종 공간분리 확인 및 감독관의 지시사항이 전파되며 세부 임무 자료 검증과 함께 임무계획은 종료된다.

이러한 임무계획을 바탕으로 브리핑 및 비행훈련, 그리고 디브리핑이 진행된다. 특히 브리핑과 디브리핑은 전투기와 급유기 전력에 있는 아이슬란드 기지와 수송기와 C2 전력에 있는 엘멘도르프 기지를 화상회의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통해 훈련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디브리핑 여건을 조성한다. 대규모의 브

리핑실에 설치된 여러 대의 카메라를 이용해 두 가지 간 상황이 이원 생중계되며, 브리핑 슬라이드나 실물영사기 등을 통해 자료를 공유하고 임무 성공 및 실패 원인에 대해 같이 토론할 수 있다. 인상적인 부분은 미 공군은 브리핑/디브리핑 자료작성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으며 A4지 한 장의 기본 양식을 바탕으로 중점사항과 양호/미흡 사항, 교훈 등을 간략히 작성한 후 발표를 통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었다.

다. 훈련 성과와 발전방향

매년 지속해서 훈련에 참가함으로써 한국 공군의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은 신장하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이번 훈련 시 나름의 성과라 할 수 있는



무장지원 및 주기된 항공기와 오로라

것은 우리 공군의 역할 증대라고 생각한다. 알래스카에서의 지난 세 번의 레드플래그 훈련과 국내에서 실시한 Max Thunder, Buddy Wing 등의 연합훈련을 통해 F-15K와 한국 공군의 역량을 선보일 기회가 많았지만, 이번 2016년 레드플래그 훈련에서는 과거 어떤 레드플래그 훈련 때보다도 한국 공군의 우수한 작전 수행 능력을 입증할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특히 이번 공격 편대군 임무 시에 F-15K는 가상 SDB, JDAM, 공대공 미사일의 복합무장을 탑재하여 임무 시간 시작과 동시에 SDB를 적 공대지 미사일 진지에 투하하고, 임무 경로를 따라 침투하여 적의 중심에 JDAM 공격한 후 가상적 비행장 주변에서 공대공 임무를 수행하는 Multi-Role을 수행하였다. 이는 한 공격편대군에서 DEAD-Strike-Escort

임무를 동시에 수행한 것으로 다년 간 한국공군이 보여준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동맹국에서도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레드플래그 훈련에서는 2015년에 처음으로 한국군이 수행했던 임무편대장 역할을 확대하여 2회에 걸쳐 전체 임무편대장 역할을 수행하였고, 각 편대군별 편대장(Package Commander)의 역할도 3회에 걸쳐 수행하였다. 초기 레드플래그 훈련에서 언어의 장벽과 훈련 숙달도를 고려하여 편대군 안에서 주어진 역할만 수행하여야 했던 때를 생각하면 눈부신 발전이라 하겠으며 세계 최강이라는 미 공군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매년 실질적인 적용이 현실화 되고 있는



가상전력 적용은 우리 공군도 생각하고 발전시켜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이번 레드 플래그 훈련에서는 실제 전력뿐만 아니라 두 가지 종류의 가상(Virtual) 전력도 운용하였다. 가상전력은 임무계획 단계에서도 고려 대상이 되며, LINK-16, 데이터 링크를 통해 비행 동안 조종석 안 Display에 시현도 가능하였다. 이러한 가상전력 운용을 통해 현실에서의 제약을 넘어 실제 전장에서 가능한 시나리오 구성이나 실전적인 전장 환경을 제공하고 적용할 수 있었으며 비용 측면에서도 효

율적이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미 공군이 가상전력을 대하는 태도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 중 하나였다. 우리 공군도 가상전력을 단지 War Game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지한 태도로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국내 연합훈련이나 대규모 편대군 훈련에서 실질적인 시나리오 반영이 가능할 것이며 지속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전장 환경이 모사될 수 있을 것이다.

6. 맺음말

우리 공군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전투기를 태평양 건너 알래스카까지 보내 훈련에 참가하는 것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 이러한 다양한 지대공 위협 및 적 ACTIVE 미사일 그리고 EA(전자 공격) 등 고난도 위협의 전장 상황을 모사할 수 있는 연합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실전적인 훈련을 경험하고, 새로운 전장환경에 노출되어 새로운 전술을 익히고 선진 훈련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전투력의 원거리 투사 능력 및 작전 수행능력의 신장을 통해 향후 실시 되는 국내 훈련이 질적으로 발전하고 동맹국들에게 대한민국 공군의 위상을 제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전장에서라도, 어떠한 임무라도, 주어진 임무가 있다

면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조종사들 스스로 가지게 된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미 2017년 레드 플래그 훈련 참가를 위해 군산 및 서산의 훈련 요원들은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땀 또한 귀한 결실을 얻기를 바라며 F-16 조종사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끝으로 이번 훈련뿐 아니라 매년 진행되는 훈련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공군본부, 작사, 비행단 실무자들과 추운 현지에서 따뜻한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지원해주신 한인회 관계자 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참고자료

- 공군 공감 '2016 RED FLAG ALASKA 훈련 참가기'
- 공군 ACE지 제129호 "12-2차 Red Flag-Nellis 훈련 참가 후기", 이형재
- 공군 ACE지 제138호 '16년 RF-A 성과와 과제', 이동영

여성 전투비행대장이 되기까지



소령 박지원(49기, 제8전투비행단 제203전투비행대대)

‘최초’비행대장이라는 신문기사가 나온 지도 어 느덧 3개월, 시간은 참 빠르다고 새삼 느낀다. 과연 이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상변할 때는 쾅쾅 언 차 앞 유리 성에를 제거하며 출근하던 겨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이제는 더위를 느낄 정도로 훈훈한 계절로 바뀌었고, 이 글을 쓰면서 생각하니 벌써 중간 점검을 할 기회를 얻은 듯한 느낌이다.

‘최초’라는 타이틀은 항상 부담스럽지만, 본격적인 부담감은 오히려 사관학교를 졸업하면서가 아닐까 싶다. 가입교식 날 그 많던 기자단을 봤

을 때 드라마 ‘창공Ⅱ’를 촬영하는 줄 알았고(고2 시절, 녹화해 둔 비디오를 많이 돌려봐서 냉동실에 넣어두고 다시 볼 정도로 공군사관학교 입학에 갈망했다), 여생도·여군이라고 굳이 구분하여 불려야 하는지 나름 불만을 가졌던 것이 생도 시절이었다. 이제는 조종사가 되고 차츰 선배가 되면서 부담감에 책임감까지 느끼는 감정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해가고 있다.

솔직히 재작년 말쯤, 비행대장을 하기 위해 전투대대에 계속 있을지 아니면 서울로 보직을 옮



길지 고민 때문에 심적으로 매우 힘든 시절이 있었다. 아이를 친정엄마께 맡겨놓고 주말 엄마 노릇을 한 것도 2년이 되어가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했기 때문이다.

그럴 때 내가 전투대대에 돌아오려 했던 지난 두 번의 순간을 돌이켜보았다. 한 번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위탁 교육 후 교육대대가 아닌 전투대대에 돌아오려고 했을 때이고, 또 한 번은 약 2년 반 동안의 연합사 생활 이후 기종 전환을 하고 싶었을 때였는데, 두 번 다 좋은 조건은 아니었다.

첫 번째는 출산 후였는데, 대대에 복귀한 조종사가 없었던 때라 대대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만 했지만, 다행히 도와주신 분들 덕분에 다시 재자격을 부여받아 4기 리더로 복귀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비행을 오래 쉬었고, 이미 기수가 높은 조종사가 되어버린 때라 다시 작전가

능부터 시작하기에 좋은 조건은 아니었음에도 운이 좋게 다시 조종간을 잡을 수 있었다.

한참 고민을 할 때, 지난 두 번의 순간 내가 얼마나 비행을 하고 싶어 했었는지 생각해 보니 감회가 새롭게 느껴진다. 결국, 가족한테는 한 번 더 미안하게 되었지만, 대대에 남아있기로 하여 비행대장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은 지금 와서 생각해도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비행대장에 상변하면서 다짐한 것은, 더욱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대대 생활을 하는 것이었다. 병사들의 근무여건부터 대대 살림살이, 대대원 컨디션, 총각 조종사들 연애 생활까지 챙겨야 할 게 참 많기도 하지만, 재미있고 보람 있는 부분도 많았다. 상변하면서 대대 전력화 및 신축건물로의 이사 등 바쁘게 돌아갔지만, 대대원들이

미루지 않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재미가 있어 역시 대대 생활이 최고다 하면서 지낸다.

작년 말 비행대장에 상변하면서 나름대로 긴장도 많이 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 막연하게 비행대장의 역할에 대하여 혼자 정의하기도 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니 비행대장으로서 나의 할 일이 대략 세 가지로 정리되는 듯하다.

첫째는 현재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해결하고, 둘째,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것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고, 끝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이는 것을 미리 알아채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그것이다. 단순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는 생각보다는 실수하더라도 배워가는 과정으로 여기고 있다.

비행대장을 하변하기까지 앞으로 9개월이 남아있다는 생각보다는, 상변한지 벌써 3개월이나 지나버렸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아직까지 고마운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지내지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생도 시절 전직 1차 1대대장 생도이셨던 우리 대대장님과 후배 보직 장교들, 그리고 나의 브라더~ 후배들과 남은 9개월도 지금처럼 재미있는 대대 생활을 함께 나누고 싶다.

이기자! 쌍독수리! Twin Eagles! Forever! ✈

서라벌에서 온 편지 7

군사고전과 직업군인의 양성



이종혁(3기, 충남대 군사학부 특임교수)

박형, 그동안 안녕하셨소?

보내 준 편지는 잘 받았으며 박형이 질문한 내용, 즉 “이 교수는 매년 사관학교 4학년 졸업반 생도들에게 특강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동기는 무엇이며 무슨 내용의 특강을 하는지 알려주겠소?”했는데, 우선 동기부터 간략하게 소개하지요.

우연한 기회에 2009년 2월, 57기생에게 군사고전인 『손자병법』(513 B.C.?)과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1832)에 대해 특강을 하고 생도들의 소감을 읽었습니다. 즉

- 사실 나는 아직 『손자병법』, 『전쟁론』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다. 읽다 보면 약간은 멀게만 느껴졌기 때문이다. 과거에 지어진 이 책들에 실린 군사전략이 과연 현대전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이 강의를 듣고 나니 그런 생각이 어리석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 12시간의 특강을 들으면서 나는 평소 나 스스로 군인이라고, 군인이 될 사람이라고 느끼고 말하고 다녔던 것이 부끄러울 정도의 수치심을 느꼈다. 도대체 전쟁이 무엇인지도,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어떻게 수행하

는지도, 어떻게 억제하는지도, 어떻게 연구하는지도 몰랐던 나에게 많은 것을 암시해 주는 시간이 되었다. '군인은 전쟁에 대해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가슴 속에서 메아리쳐 울렸다.

- 핑계라면 핑계지만 나는 전공이 항공우주공학이라서 군사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도 가질 수도 없는 환경이라서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클라우제비츠며 조미니 등의 인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어 특강 시간 내내 얼굴이 붉어질 수밖에 없었다. ...교수님께서 인생은 축구시합처럼 전·후반이 있는 법, 나에게 아직 전반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교육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생각하지만,

다음은 지난 해 12월 20일 65기생에게 실시한 특강 내용을 소개하지요.

1. 직업군인은 왜 군사 고전(軍事 古典)을 읽어야 하나?

나는 1980년 10월 국방대학원에 재직시 「군사학의 이론체계」를 발표하여 군사학의 이론 정립을 시도했고, 2002년 12월 군사학이 학문으로 인정되어 2003년 3월부터 충남대학교에 군사학 석사 그리고 그 후 박사·학사과정이 설치되었고, 현재 군사학 박사를 30여 명 배출했습니다. 직업군인을 양성하는 사관학교에서는 '군사학'을 전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사관학교 설치법」(1955년 10월 1일)에 의하면 '이학사(理學士) 학위의 수여'로 규정되어 있으니 이것은 사관학교

나는 「공사신문(空士新聞)」창간호(1957. 10. 10.)에 「클라우제비츠 장군의 생애와 그의 전쟁원칙」을 발표했고 또한 1967년 사관학교 교수부 군사학과 교관 시절부터 군사 고전을 중점적으로 강의해 왔다. 그런데 미국의 국방대학원(National Defence College)이나, 미 육군 전쟁대학원(U.S. Army College)에서는 1970년대 말부터 군사고전의 강의·연구를 시작했다. 그 이유는, 미군은 베트남 전쟁(1961~1973)에서 전투에서는 승리했으나,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원인을 군사고

전에서 찾고 있었다.

첫째 : 전쟁의 성격과 수행전략은 시간과 상대 측에 따라 반드시 변해야 하지만, 그러나 전쟁의 본질과 전략의 기능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

둘째 : 전쟁의 본질뿐만 아니라, 그 전쟁의 주체인 인간의 본성도 다루고 있으므로 인간세계의 활동에 대한 지혜와 교훈을 제시해 준다.

셋째 : 심오한 철학을 바탕으로 군사이론을 체계화하고 있으므로 생명력과 실용성을 보유하고 있다.

넷째 : 군사고전은 용병술뿐만 아니라, 인생 철학의 지침서요 또한 경영전략의 교과서이다.

다섯째 : 의술(醫術)에 무지한 의사가 환자를 다루는 것이 최악이라고 한다면, 용병술에 무지한 장수가 부하를 이끌고 전투에 임하는 것은 더 큰 최악이다.

2. 손무(孫武)의 『손자병법』(513 B.C?)

손무의 약력은 생략하고, 『손자병법』은 13편 6,100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책에 대한 논평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나는 여러 병서를 읽어보았지만, 손무에 비견할만한 것은 없다. -당 태종(재위 : 62 6~649)
- 『손자병법』의 작은 책에는 내가 저술한 20권 이상의 저서에서 다룬 전략 및 전술의 근본문제를 거의 포함하고 있다. -리델 하트(1895~1970)
- 『손자병법』은 포괄적인 형태로 자문을 받고 싶어 하는 정책 결정자와 전략가들에게 아주 전면적인 전략의 진수를 제공하며, 또한 간결하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전략 교육서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다. -콜린 그레이 (1943~)
- 2,500여 년 전 춘추시대의 『손자병법』은 완전한 경영학 교과서이다. -피터 드러커(1909~2005)

『손자병법』의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전쟁은 국가의 중대한 일이다. 국민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이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니,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다. ... 전쟁은 속전속결로 끝내야지, 장기전은 불리하다.
- 전쟁의 본질과 수행방법을 잘 아는 장수는 국민의 생명을 맡은 사람이요 또한 국가의 안위(安危)를 좌우하는 주인공이다.
- 장수가 유능하고 군주가 간섭하지 않으면 승리한다. ... 패배의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다.

- 적의 능력·의도를 알고, 자신과 아군의 능력과 상황을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知彼知己 百戰不殆).
- 군대의 운용은 물과 같아야 한다. 높은 곳을 피하고 낮은 곳으로 흐르듯, 적의 강한 곳을 피하고 허점을 공격해야 한다.

3.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1832)

『전쟁론』이 난해하고 오해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 『전쟁론』의 방법론적·이론적 기초를 정립함에 있어서 칸트(Kant : 1724~1804)에서 헤겔(Hegel : 1770~1831)에 이르는 독일 관념주의 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철학적 기초지식이 필수적이다.

둘째 : 『전쟁론』은 관점이 전혀다른 ‘절대전쟁’(absolute war : 적의 격멸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과 ‘현실전쟁’(real war : 적국의 국경부근에 있는 적 영토의 일부를 쟁취하려는 전쟁)의 혼작(混作)의 미완성 작품, 즉 현실전쟁의 관점에서 내용에 대한 수정을 완성하지 못했다.

셋째 : 책은 8편 124장으로 구성된 700여 페이지의 대작이다.

『전쟁론』에 대한 논평은 아래와 같다.

- 클라우제비츠 후에 『전쟁론』을 쓰는 사람은 괴테 후에 『파우스트』를, 셰익스피어 후에 『햄릿』을 쓰는 위험을 범하는 사람이다. -독일의 골츠 장군
-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은 그 통찰력이 대단히 심오하고 독창적이기 때문에 후세의 사상가들에 의해 제대로 수용되지 못한 몇 개 안 되는 고전(古典) 중의 하나이다. -미국 전략사상가, 버나드 브로디(1910~1978)
-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은 전쟁과 전략이론에 대해 가장 심도 있는 저서이지만, 그가 뜻하는 바를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매우 세심하게 읽고 또 읽어야 한다. -콜린 그레이(1943~)

『전쟁론』의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전쟁이란 적을 굴복시켜 자기의 의지를 강요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폭력 행위이다.
- 전쟁이란 다른 수단을 가지고 하는 정책의 계속에 지나지 않는다.
- 각 시대는 고유한 전쟁의 형식을 창조한다.
- 승리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아니라면 가치가 없다.
- 전쟁이란 우연(偶然)이 지배하는 세계이다. 전쟁을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의 네 가지 요소, 즉 위험·육체적

고통·불확실성 및 우연 등.

4. 65기 생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첫째 : 배우자를 신중히 택할 것.

서양 격언에는 이런 명언이 있다. 즉 ‘바다로 갈 때는 한 번 기도하여야라. 전쟁터로 갈 때는 두 번 기도하여야라. 그러나 결혼식장으로 갈 때는 세 번 기도하여야라.’

바다로 나가 태풍을 만나면 죽을 가능성이 크니, 한 번 기도하여야라. 전쟁터는 매우 위험하다. 총알이 어디서 날아와서 생명을 빼앗을지 모르니, 두 번 기도하여야라. 그러나 결혼식장으로 갈 때는 세 번 기도하라 했는데, 이것은 결혼이 가장 중대하고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셋째 : 외국어(특히 영어) 학습.

넷째 : 군사학에 대한 전문가가 될 것.

다섯째 : 인생은 마치 축구시합처럼 전·후반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 것.

박형, 나는 육사 화랑대연구소 주최의 세미나에서 「한국 군사학의 발전 방향」(1999. 6. 10.)을 발표했는데, 일부 내용을 소개하지요.

단적으로 말해서 사관학교 교육은 야전에서 적과 싸워 이겨야 하는 초급장교에게 필요한 전문지식이 무엇이며, 앞으로 군사전문가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기초지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의사를 양성하고자 한다면 의학을 전공시키고, 법률가·판사를 양성하고자 한다면 법학을 전공시키듯이 사관학교에서 초급장교를 양성하고자 할 때 전공해야 할 과목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정설(定說)이 없다는 것이 오늘날의 사관학교 교육이 직면한 중대한 문제점이다. 군사학이 무슨 학문인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른다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장차 나라의 간성이 되는 사관생도들에게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전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지식체계, 즉 군사학(Military art and Science)이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하고, 인문·사회 및 응용과학은 보조학문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대학교에서도 학문으로서 군사학을 연구하는 「군사학연구소」가 설치되기를 바란다.

박형, 지난 해 보내준 책 『동북아시아의 전쟁과 평화』(2016년)는 미수(米壽)를 맞이하여 제자·후배들에게 보내는 선물이며, 읽어보고 논평을 해주기 바랍니다.

박형의 건승과 행복을 빌면서! ☒

베테랑(Veteran) 리더십

- 경청과 인정 그리고 칭찬 -



이근재(27기)

우리의 삶은 선택의 과정이고 이러한 선택은 의사결정의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는가는 그에 따른 생산적 결과물(outcome)과 직결되는데,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조직의 생산성에 있어서 동일한 인적/물적 자원을 갖고도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그 일을 처리하는 업무 체계(System)가 어떠한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조직의 리더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하며 리더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날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부대에서 동일한 부대원을 지휘하면서도 지휘관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부대의 사기와 전투력이 명확하게 달랐던 경험들이 있다.

‘과연 리더십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여기서는 리더십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영향요인 중의 하나인 소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2015년도 서적 판매량을 주제 별로 구분했을 때, “대화”와 “소통”을 주제로 다룬 서적이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였다고 한다. 윗

사람과 아랫사람과의 소통, 갑과 을의 소통, 나와 너의 소통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실타래를 푸는 방법 중의 하나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경청으로부터 시작된다.

특히 예비역에게 있어서 경청은 현역 때의 그것보다 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 과거의 나의 지위, 그리고 지금의 나의 나이와 자존심에 얽매어서는 “내가 살아도 너희들보다 더 살았고, 경험해도 더 했고, 연륜이 쌓여도 몇십 년이 더 쌓였는데…….”하는 고정관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생각과 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합리화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러한 심리를 ‘공자’는 일찍이 간파했던것 같다. “사십에 불혹”이라, 나이가 사십 줄에 들어서면 혹자(惑者)의 말에 팔랑귀 같은 흔들림이 없게 된다는 말인데, 이를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사십이 넘어서면 주관이 뚜렷한 탓인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각자의 생각과 소신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는 고집과 아집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노인네의 외골수와 옹고집이 점점 우리의 현실 모습이 되어 가고 있다. 심리적으로는 이러한 현상을 세월이 흐르면서 찾아드는 지적,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등 여러 측면에서 자신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과 그로부터 오는 콤플렉스에서 나를 지키고자

하는 심리적 방어기제의 발동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 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만,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사람이다.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공감하면서 들어주고, 경청할 때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열고 상호 소통이 이루어진다.

LISTEN

- L : Listen (귀담아 들어주기)
- I : Ing (중간에 끊지 않기)
- S : Smile (웃으며 말하기)
- T : Touch (마음으로 공감하기)
- E : Eye Contact (눈 맞추며 대화하기)
- N : Nodding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치기)

그렇다면 왜 경청할 때 소통이 이루어질까?

이러한 질문은 본인 자신에게 자문해 보면 쉽게 그 답을 구할 수 있다.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적당한 리액션(맞장구)을 보일 때에 내가 기분이 좋을까?’ 아니면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이 탄짓을 하고 듣는 등 마는 등 할 때

나의 기분이 좋을까?’이는 말할 것도 없이 상대방이 전자의 반응을 보일 때 말할 맛이 나고, 기분도 좋고 상대방에 대해서 호감도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한마디로 내가 인정(認定, recognition)받고 있다는 사실이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확인되고, 그로부터 나의 존재 이유가 명확해지며 존재가치를 느끼기 때문이다. 인간은 지속적으로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찾는 동물이다. 본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통한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할 때는 심한 경우 부정적인 반응(잘못된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들로 부터 주목받음)을 통해서라도 본인의 존재를 각인 시키려고 한다. 이렇듯 우리는 나를 인정하고 알아주는 사람을 나도 인정하게 되고, 서로를 인정함으로써 상호 소통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인정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칭찬이다. 칭찬의 대상에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따로 없다. 말 못

하는 고래까지도 좋아서 춤추게 하는 것이 칭찬이다. 그 칭찬의 방법에는 언어를 통한 것뿐만이 아니라 태도나 동작을 통한 칭찬의 방법도 다양하다.

그리고 최종 결과만 보고 칭찬하지 말고, 그 과정(過程, process) 중에도 끊임없이 칭찬하자.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은 날카롭고 까칠한 지적보다는 너그러운 칭찬이다. 특히, 나이를 먹은 예비역에게 있어서는 예리한 지적과 나무람보다는 푸근한 칭찬이 더욱 어울리는 덕목이다. 결코, 칭찬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칭찬을 하면서 진솔한 마음이 없는 칭찬은 겉치레 이거나 가식에 불과하다. 설령 상대방이 이러한 칭찬을 듣는다고 해도 마음을 열지 않는다. 즉, 칭찬할 때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팁은 진정성 있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칭찬만이 정신적 보상으로써 진정한 인정을 가져오고, 진정한 인정만이 상호 마음의 문을 여는 활발하고 긍정적인 소통을 낳는다는 사실이다.

특히 예비역들은 연륜이 깊고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신과 주의, 주장이 뚜렷하다 보니 여러 이유에서 내 말만을 일방적으로 하

기 쉽다. 그러나 지혜는 듣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우선 경청을 체질화하는 것이 진정한 포용과 너그러움의 지혜가 아닌가 싶다.

최근에 화두가 되는 소통리더십은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내가 먼저 마음을 다해 공감하며 듣는 경청으로부터 시작되며, 이것이야말로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지금에 우리 예비역에게 요구되는 베테랑 리더십이다. ✕

3대를 이어가는 우정



백승웅(10기)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3대에 걸쳐 이어오는 집안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우리 집에는 출가한 딸 셋과 손주 여섯이 있다. 미국에 있는 친지는 아들딸을 한 명씩 둔 착실한 기독교 집안으로서 딸 이름이 알리시아(Alicia)였다. 옛이야기 같지만 1975년부터 2016년까지 두 집안에서 교차하고 있는 미담을 회상해 보는 것은 오랜 세월의 미련 때문이라기 보다는 지나온 삶의 추억을 더듬어 보고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데 아름다운 소망을 가져보고자 함이다.

잠시 42년 전의 일을 회상해 본다. 알리시아

부모와 나와의 만남은 내가 1975년 초여름에 공군 장교로서 미국 앨버마(Alabama)주 몽고메리(Montgomery) 공군기지에 위치한 미 공군대학(Commend and Staff College)에 입학하여 13개월을 체류하고 있을 때부터다.

당시 그 학교가 매우 학구적인 분위기로서 교육시설이 완비되어 있다는 첫느낌 이었다. 또, 다양한 커리큘럼(Curriculum)과 친절하고도 세련된 교수들의 학습법, 방대한 도서관 시설에 경탄을 금치 못했던 기억들이 다시 떠오른다.

특히 학교 당국에서 시행했던 우방 20여 개

국의 장교들의 생활 적응을 도와주기 위한 스폰서 제도가 펍 인상적이었고, 아직도 많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입학 후 1주가 지났을 때 우리 한국 장교 2명은 포터 셰퍼드(Porter Shepherd) 가족을 소개받았다. 그들의 집은 기지로부터 자동차로 20분 거리인 프랫빌(Prattville)이란 마을에 있었고, 포터는 대 농장 가축협회 간부로서 중요한 일을 맡았으며 교회 장로 직분을 가지고 여러 곳에서 다양한 봉사를 겸한 활동가로서 그 지역에서 명망이 높은 분이였다.

그들은 우리를 한 가족처럼 보살피 주면서 미국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주었다. 주일에는 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점심 때는 온 가족이 함께 만찬처럼 풍성하게 준비한 음식을 즐겁게 나눔으로써 외국 생활에서 오는 외로움을 달래주곤 했다. 가까운 교외로의 여행, 볼링과 골프 등의 취미 생활 그리고 그곳 이웃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교제를 통하여 미국 사회의 생활 전반을 배워 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빠르게 적응해 갈 수 있었다.

포터의 가족은 부인인 수(Sue)와 마리아(Mary) 할머니, 아들과 딸이었다. 마리아 할머니는 음식 솜씨가 좋았는데, 이분이 만들어주곤 했던 비스킷(Biscuit)의 고소하고 감미로운 맛은 일품으로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아들 크리스트(Christ)는

장래 희망이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었고, 딸 알리시아는 당시 13세 중학생으로 우리가 그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마다 말없이 곁에서 조용하게 호기심으로 바라보고만 했던 조용한 성격의 소녀였다.

놀랍게도 포터 가족은 수년에 걸쳐 한국 장교(공사 7, 8, 9, 10, 12기 유학생)들을 뒷바라지해준 참으로 고마운 가정이었다. 이들의 보살핌과 우정 어린 도움으로 미국 생활을 잘 마칠 수 있었다. 1976년도에 귀국한 이후, 매 연말이면 정다웠던 추억을 되돌아보면서 편지나 카드로 소식을 주고받았다. 생각할수록 아름다운 추억과 우정이 아닐 수가 없다.

잠시 우리 집 딸들과 알리시아와의 첫 만남을 돌아본다. 1980년도에 포터 가족이 프랫빌에서 인디애나폴리스(Indianapolis)로 이사했다고 전해 들은 후 내가 1981년 캐나다 수도 오타와(Ottawa) 한국 대사관에 부임하여 근무할 때에는 인디애나폴리스로 이사한 포터 가족들과는 전화로 소식을 가끔 전하는 사이였다.

1983년 들어서 나는 현지 업무와 생활에 다소 익숙해져서 오랜만에 여름휴가를 내어 북미대륙 남북 여러 곳을 탐방해보고 싶었다. 플로리다(Florida)주, 올랜도(Orlando), 디즈니 월드(Disney World) 등에 다녀올 계획이었다. 당시 중·고등학교

교에 재학 중이던 딸들도 바랐었고 매우 좋아할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자동차로 오타와에서 출발해서 시러큐스(Syracuse), 인디애나주, 앨버마주 몽고메리, 조지아를 지나 플로리다(Florida)주 에프코트센터(Epcot Center)를 돌아보고 동부지역으로 북상해서 버지니아 노퍽(Norfolk) 해저터널을 통과해서 델라웨어를 지나 뉴욕시에서 친지들을 만나보고, 미국과 캐나다 국경도시 오그덴즈버그(Ogdensburg)를 경유하는 10일간의 다소 힘겨운 일정을 잡은 후, 포터에게 연락해서 인디애나폴리스를 지나간다는 뜻을 밝혔더니 반갑게도 온 가족이 환영한다면서 꼭 자기 집을 들러가라는 진심 어린 호의를 보여주었다.

우리 가족 5명은 넓은 미국 땅을 종단한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초여름 좋은 날을 정하여 출발했다. 이틀을 달려 이른 저녁때 쯤 인디애나폴리스의 포터네 집에 도착해 가족의 환대를 받았는데 운전의 피로를 잊을 정도로 반가웠다. 그들은 이웃까지 불러서 우리 가족들을 소개하였고, 지난 날의 이야기들을 밤이 새도록 나누면서 1박 2일 간을 참으로 재미있게 보냈던 기억이다.

그때 우리 가족들은 그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 주었던 것 같다.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재회하

기 6년 전 몽고메리에 유학했을 때 우방국 대부분의 장교는 가족을 동반해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당시 형편으로는 우리 유학생들이 가족을 동반할 수 없었기에 그 안타까움을 기억하고 있던 그들에게 가족이 함께 자기 집을 방문한 것을 너무도 대견하게 생각하고 좋아했다.

비록 짧았지만 1박 2일간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한 채로 우리는 다음날 남쪽으로 열심히 차를 몰았다. 광활하고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평화스럽게 보였던 북미 대륙의 진면목을 마음껏 느끼고, 배우고, 즐기면서 무사히 여행을 마쳤던 추억에 지금도 가슴이 설렌다. 이때 우리 딸들과 대학생이던 포터의 딸 알리시아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프랫빌에서 생활하던 그들 가족이 1980년대 초 인디애나폴리스로 옮긴 후 그녀가 대학 4학년 때에 아버지 포터의 소개로 현재 남편 브라이언 데번포트(Bryan Davenport)와 결혼했다. 안정된 직업인 변호사로서 행복한 생활을 하던 부부에게 불임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였었다. 아기를 갖지 못할 것이란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부는 양자를 입양하기로 했다.

알리시아는 어릴 때 자기 집을 드나들던 당당하고 멋있게 보였던 한국 장교들의 인상을 상기해 보면서 한국 출생의 양아들을 맞이하기로 하

고 남편과 상의하여 결정한 것이다. 국제 입양기관에 의뢰하여 당시 생후 5개월이던 릭(Rick)과 수년 후에 두 번째 아들 생후 3개월이었던 자레드(Jared)를 입양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사실 부부가 얼마나 인도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이야기 하고 싶다. 9년 전 2008년도에 서울에서 두 아들의 친부모를 만나기 위해 잠시 방한했었지만 입양한 아들들의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큰 만남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었다. 1970년 중반에 알리시아가 살았던 프랫빌 집을 다녀온 수명의 공군 출신들과 재회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그들 부모로부터 입었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하는 모임이었다.

40여 년 전의 미국 생활을 추억 하면서 포터 세퍼드 가족과 관련된 미 공군대학 출신 예비역 장교 6명은 뜻을 함께해 이들 부부를 초대하여 저녁 식사를 나누며 이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을 준비하여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이듬해인 2009년에 이 부부는 두 아들을 데리고 다시 서울을 찾았다. 첫아들의 부모가 생존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입양한 아들에게 친아버지, 친어머니를 만나게 해주고 싶어하였다. 그러나 입양 절차에 의하면 입양된 아이들이 18세가 된 이후에야 그들 부모를 만날 수 있다는 엄격한

입양 규정에 의해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큰아들 릭은 평소 친부모가 왜 자기를 버렸는지 모르겠다는 원망스러운 불평을 해서 알리시아 부부는 마음이 아팠단다.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뜻을 이루지 못해 매우 섭섭해하며 다음 만날 기회를 꼭 잡아보겠다고 하는 한편, 나에게 릭을 달래서 마음을 안정시켜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했었다. 나는 그 아들에게 비록 이번에 한국의 엄마, 아빠를 만나지 못했지만, 미국의 좋은 환경과 훌륭한 부모 밑에서 안정되게 생활하며 공부하고 있으니, 너야말로 행운아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설득함으로써 그의 마음을 다소 편안하게 해 준 사실도 생각한다. 이때 외국에서 생활하다 귀국한 나의 딸들 세진, 사라와 알리시아의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10대였던 1983년도에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처음 만난 후 33년이 지나고 나서 40대 후반에 어머니의 모습으로 다시 만났다. 긴 세월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여성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했다.

세 번째 방한했을 때에 우리 가족은 이들이 서울에 머무는 5일 동안 최선을 다해 보살폈다. 동대문, 남대문을 비롯하여 서울의 관광 명소를 돌아볼 수 있도록 딸들이 교대로 친절하게 안내를 맡았다. 또한, 릭은 오른팔에 큰 반점이 있어서

평소 제거하기를 원했었는데 다행히 성형외과 전 공인 둘째 사위가 이들 가족이 출국하던 당일 이른 아침에 직접 집도하여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귀국한 일도 있었다.

이들과의 작년 만남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해야겠다. 2016년 6월 초에 알리시아 부부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6월 5일 서울에 도착해서 8일에 큰아들 릭의 친부모를 인천에서 만나고, 15일에 인디애나폴리스로 돌아가는 일정인데, 서울에 머무는 동안 시간을 내서 우리 가족과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교회 수련회에 참석해야 해서 그들이 도착할 때는 교외에 있을 예정이었다. 이메일을 받은 즉시 하얏트(Hyatt) 호텔에 이들의 예약 사실을 확인한 후 바로 전화 연락해 달라는 메모를 남겼다. 18시경에 집에 도착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전화기에 브라이언의 반가운 음성이 들려왔다.

바로 만나자는 제안이었고 다음날 6일 오전 이태원 약속 장소에 갔다. 알리시아 부부는 큰아들 릭, 작은아들 자레드 그리고 자레드의 친구 그레이스(Grace)가 나왔다. 알리시아 가족과 우리 부부는 7년 만에 만난 것이라 큰 기쁨이었다. 어린 시절에 만났던 두 아들은 건장한 미국 청년으로 성장해 너무도 믿음직하였다. 알리시아는 먼저 마리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고 포터 셰퍼드가

노년의 건강관리를 위해 플로리다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특히 브라이언과 첫째 사위 임 서방은 직업이 변호사로 같아보니 서로 할 이야기들이 많은듯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즐겁게 점심을 함께 하면서 그들의 한국에서의 일정을 자세하게 듣게 되었다. 다음날 7일에는 릭의 한국 부모가 인천에서 살고 있는데 만날 예정이고, 8일에는 알리시아가 생일을 서울에서 맞이하게 됨을 알게 된 둘째 딸 세연이가 양가 가족을 이태원 음식점으로 초청하여 축하 자리를 마련했다. 9일에는 일산에 사는 릭의 친누나 부부가 몽매에도 있을 수 없었던 동생 릭의 미국 가족과 인천에 사는 그녀의 부모를 초청하여 그녀의 집에서 잔치를 열었다. 그 잔치에 통역이 필요해서 손녀 재희(Julia)의 친구 애니(Annie)로 하여금 그 역할을 맡도록 했다.

현대인들은 저마다의 일정을 미리 정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별히 우리 부부는 작년도에 결혼 50주년을 맞이했고, 내 개인적으로는 77세 희년으로 의미가 깊은 해였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계획해 왔던 러시아 여행을 6월 10일부터 떠나기로 했기에 일정을 변경하기 어렵고 딸들이 계속 함께할 것이라고 알려 양해를 구한 후에 예정대로 러시아로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 후에 딸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 릭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만났을 때 얼마나 많이 울고 기뻐했는지, 불가피하게 헤어져야만 했던 친부모들의 회한과 슬픔, 미안함, 그리움들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는 후문들을 전해주었다. 그러면서도 장성한 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과 장래 미국 사람으로 잘 성장하길 바라는 벽찬 표정들 또한 보기에 좋았다고 했다. 친부모가 선물로 마련한 한복차림의 양가 가족사진은 너무나 행복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었다.

지난해 이들과의 만남까지 3대째 이어가는 따뜻한 우정 관계는 예사롭지가 않다. 알리시아의 아들 릭과 손자 준섭(Christ)이 사이가 서로 각별한 인연을 갖게 되었다. 지난해 9월에 준섭이가 진학한 LA 소재 바이올라(Biola) 대학은 바로 릭이 졸업한 학교였다. 이들은 바이올라 대학의 선후배가 되어 앞으로 대학 동문으로서 각별한 사이를 유지할 것이다. 손녀 재희는 작년도에 밴쿠버(Vancouver)에 있는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UBC)에 진학해서 국제법에 관심을 두고 공부하는데 로펌(Law Firm)을 이끄는 브라이언은 재희의 진로에 계속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요즘 세상은 태평양을 가운데 두어 멀고도 먼 사이를 가까운 이웃처럼 느끼게 해준다. 지금도 온라인상에서 지구촌 모두가 한 마을

처럼 곁에서 살아가고 있는 느낌이다. 릭과 자레드는 미국 국적으로 대학 생활을 하지만, 졸업 후에는 서울에 관심을 두고 사회생활을 펼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필연코 우리 손주들 세대에서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만나고 협조하고 뜻을 함께하면서 우정을 이어가리라 본다.

지금 한미 교류와 협력이 어느 시기보다 중요함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은 말할 것 없고, 군과 민간의 교류 확대와 강화를 위해 부단하게 노력해 가야 하는 때이다. 각 분야에서 조그마한 인연일지라도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시켜나가서 든든하고 큰 인연으로 만들어야 하겠다. 우리 아들, 딸의 세대와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3대가 아니라 수만 대에 이르기까지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나누는 풍요로운 미래를 기약해 본다.

후기 : 알리시아 부부가 릭의 친부모와 만날 때 통역을 담당했던 애니는 작년 9월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Notre Dame 대학에 입학했으며 지난 추수감사절에 알리시아 부부에게 초청 받아 그들과 함께 잘 보내고 왔으며, 앞으로도 가까이에서 보살피 주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한편 1975년에 미 공군대학의 방대한 도서관

시설에서 받았던 내 마음의 큰 감동은 현역으로 부대를 지휘하던 1987년 기지도서관을 세우는 데 강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때의 꿈이 많은 세

월을 지나 오늘날 선봉도서관이란 이름으로 매년 장서가 늘어나고 이용 장병들과 학생들의 증가로 열람실이 확장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10기 산우회와 하늘사랑 장학재단



김한용(10기)

추던 춤도 명석을 깔아주면 그친다는 옛말이 있다. 10기 산우회가 산행을 시작한 지가 꽤 오래 되었고 근래에도 매주 세 번씩 산행하고 있다. 지금의 산행이라야 서울대공원 외곽도로를 한 바퀴 도는 건데, 그때마다 다녀온 산행 후기를 동기생 카페에 사진과 함께 올리는 일을 내가 맡다 보니 10기 산우회 소개 화살이 내게로 쏠렸다.

1. 십철산우회의 태동

생각해 보니 십철산우회의 시작도 십수 년이 넘은 지 오래다. 혈기가 왕성하던 초기에는 관악산을 넘는 고난도의 산행이 보통이었는데, 점차 난이도가 낮아져 나이가 든 후에는 체력이 부치지 않는 대공원 외곽도로 산행으로 변화되었다. 전역 직후 때만 해도 사회활동을 하고 있거나 골프가 활발할 때라서 산행모임을 자주 갖지 못했다. 그러다가 수년 전부터는 왕성하던 골프모임도 조금 수그러들고 산행모임이 점점 늘어났다.

처음엔 매월 1회씩 시행하다가 다음엔 주 1회로 그다음엔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로 늘리고, 목요일엔 부부동반을 하기로 바꾸었다.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는 월, 목, 토요일 주 3회로 늘렸다. 토요일이 주말이고 해서 처음엔 어떨까 싶었는데 지금은 꽤도에 올라 더 흥미 있는 산행이 되고 있다.

2. 하늘사랑 장학회와 알파인 바 (Alpine Bar)

몇 년 전 어느 날 산행을 하려고 대공원 만남의 장소에서 모여 있는데, 저만치서 좀 초라해 보이는 노인 한 분이 몹시 불편한 거동으로 사력을 다해 걷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이 짠해 오는 걸 느낀 모양이었다. 우린 아직 몸이 성해서 이렇게 매번 산행하는데, 저 사람은 걷는 것조차도 힘들구나 싶었다. 그러던 중에 누군가가 제안을 했다. 우리 산우회원들이 건강하게 산행을 하는 동안만이라도 뜻있는 일을 함께 해보면 어떨까라고.

그래서 의견을 나누는 끝에 산행에 참가할 때마다 천 원씩 내어 모으기로 했다. 이때만 해도 일주일에 두 번씩이니 그리 큰돈이 되지는 않았지만, 정성으로 모은 기금이 어느 정도 모이자 이

기금으로 무엇을 하면 보람 있는 일인지 궁리한 끝에 비록 작지만 뭉치돈이 되는대로 우리 공군의 순직 조종사 유자녀를 돕는 하늘사랑장학재단 장학기금에 보태자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시간이 좀 흘렀는데도 돈이 모이는 속도가 너무 느렸고, 누군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 우리가 산행 후 식사 때마다 반주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집에 보관하고 있거나 해외여행을 하는 기회가 있을 때 양주를 1~2병 기증하면 바를 운영하여 기금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보통은 한 잔에 천원으로 하고 고급주는 2천 원, 3천 원 이렇게 정했다.

그리하여 바 이름을 등산의 의미가 든 '알파인 바(Alpine Bar)'로 명명하였다. 바의 운영은 회원 중 평소 술을 입에도 대지 않던 이가 바텐더(Bartender) 봉사를 자청하여 맡도록 했다. 평소에도 건강을 위해 과음을 막긴 했지만, 목요일엔 가족동반이라 혹시 영감들이 과음은 하지 않나 은연중에 감시하고 있음을 보고, 부인들을 각자의 CCTV라고 이름 지었다. 주량은 이제 나이도 있고 하여 스스로 자제하니 걱정은 없었다.

한동안 잘 운영되던 알파인 바도 시간이 지나니 각자의 건강을 위하여 금주하는 회원이 발생하고, 양주를 기증받기도 어려워져 바의 운영이 곤란해지면서 지금은 일 인당 월 만 원씩 회비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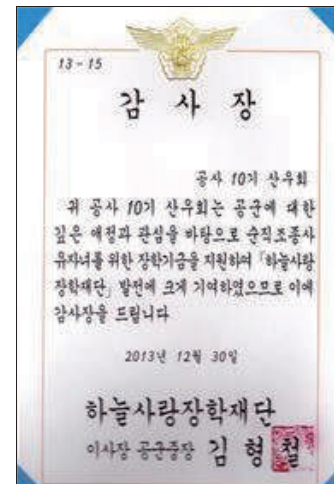
으로 하늘사랑 장학기금을 각출하여 그 기금이 일백만 원 적립되면 하늘사랑장학재단에 기부해 왔다. 지금까지 7차(11년~17년)에 걸쳐 700만 원을 기부하였고, 2018년 1월에 8차 장학기금(100만 원)을 보낼 예정이다. 산우회원 숫자야 겨우 열 명이 조금 넘는 정도라 크게 욕심은 내지 않기로 했다.

장학재단 기금은 회원들이 산행하는 동안은 중단 없이 계속하자는 회원들이 대다수라 상당 기간은 지속하리라고 믿는다.

3. 이벤트

몇 년 전부터 산우회는 매달 산행 후에 뜻깊은 이벤트 하나를 열고 있는데 바로 그달 생일이 있는 회원의 생일잔치다. 달마다 그달의 생일자를 배정하여 그달에 생일이 해당하는 회원은 모든 회원을 부부동반으로 식사에 초청하여 생일기념 만찬을 베푸는데, 마침 고정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회원 수가 열두 명이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일년에 열두 번의 생일잔치를 하고 있다.

산행한 후 근처 멀지 않은 맛집을 골라 점심을 먹는데 식후에 당사자는 특별히 준비한 후식을 제공하고, 때로는 정성껏 준비한 작은 선물을 나누기도 하여 참가한 회원들에게 즐거움을 더해



주기도 한다. 가끔은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참가자 중 자발적으로 축하나 간단한 연주를 할 때도 있는데 잊지 못할 추억거리가 된다.

사실 현역시절이나 전역 후에도 연말연시 아니면 현충일 행사 등 공식적인 모임에서 동기생 가족들이 어울릴 기회가 있지만, 산행을 통해서 더 친밀감을 느끼며 가까워지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된다.

4. 산우회의 규칙

초기에는 날씨가 너무 추운데 또는 너무 더운데 어떻게 하나,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하나, 태풍이 부는데 산행을 하나, 등 회원들의 이런저런 궁금증이 많았지만, 지금은 엄격한 산우회 규칙 적용으로 궁금해하는 회원이 아무도 없다.

산우회의 산행은 연중무휴로 한다. 다음은 산행 장소 변경은 가급적 하지 않는다. 그래야 모임이 오래 유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한 경우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원정 산행이나 맛집 여행, 해외여행 등 색다른 행사를 하기도 한다. 문경새재, 백두산, 구채구, 북해도, 오키나와도 다녀왔는데 모두 사는 맛이 난다고 한다.

다음은 개인적인 감정적 충돌은 절대 금물이다. 반백 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으니 서로 어려움이 없어진다. 가까운 동기생끼리 자주 만나서 접촉하다 보면 사소한 의견충돌이 생기기도 한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둘 중 하나가 무조건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후시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친목 훼손을 미리 막자는 취지이다.

또한, 매일의 식사를 비롯하여 산행 중에 생기는 경비는 회비가 아니고 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식후 커피 등 후식이나 특별한 경우는 지원자가 나서서 모두를 즐겁게 해 주는 경우도 많다. 가끔은 주변에 기쁜 일이 생기면 간단한 점심을 사거나 커피를 사기도 한다. 손자가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거나 입대한 손자 면회를 다녀왔다거나 하여 밥을 사거나 후식을 대접하는 재미도 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도 이렇게 변모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시대를 따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규칙 중 또 하나는 갑자기 집안일이 생겨 산행을 참가하지 못할 때는 가급적 사전에 산우회 단체 카톡방에 불참 예고를 한다.

그래야 먼저 온 회원들이 무턱대고 오래 기다리거나 다른 결정을 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

5. 산행이 왜 좋은가?

노년기가 오면 신체 구조상 과격한 운동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금년에 팔순이 되었거나 대부분이 내년이면 팔순이 되는 나이인데 아직도 골프를 즐기는 동기생들이 없지는 않지만, 골프에서 손 댄 회원이 대부분인 지금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이 산행만 한 것이 없다. 산행이라야 높은 산을 오를 체력도 못 되고 그러니 대공원 외곽도로를 한 바퀴 걷는 것이 가장 적당한 정도다.

걷기 운동은 의사가 권하는 돈 안 드는 처방이며 걸을수록 건강을 저축하는 보약이다. 발은 피를 위로 펌핑해 주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한다. 걷기 운동은 죽음의 4중주로 불리는 내장지방, 고지혈증, 내장기능 장애, 고혈압을 개선해주는 최고의 약이다. 특히 노년에는 달리기 운동보다 걷는 운동이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산행은 건강증진 이외에도 주는 것이 많다. 산행은 친구끼리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 준다. 노년기를 고독하게 지내면 우울증이 온다고 한다. 친구를 만나 이런 저런 얘기들을 부담 없이 주고받다 보면 카타르시스의 효과로 정신건강에 유익하다고 한다. 그래서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삶의 즐거움을 준다. 점점 줄어드는 골프모임을 대체하여 동기생 모임을 활성화해 주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6. 산행과 골프

산행은 골프처럼 부킹이 필요 없다. 그린피나 캐디피가 안 든다. 산행은 티타임이 융통성이 있다. 미리 팀을 짤 필요도 없고 인원 제한도 없다. 비가와도 되고 눈이 와도 상관없다. 산행은 스코어를 따지지 않는다. 발에 맞는 신발만 있으면 비싼 골프채가 없어도 된다.

7. 마무리

평소 산행 중에도 선후배 기수들을 가끔 만나 반가운 인사를 나누기도 하지만, 총동창회에서 매년 대공원에서 개최하는 산행대회는 선·후배 간에 특별한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하여, 이 행사는 중단 없이 지속되기 바란다. 산행이 주는 건강과 즐거움을 오래 누리길 바라며, 보람 있는 삶을 생각해서라도 산행을 오래오래 이어가고 싶다. ☑

Ring Knocker의 유래



정창욱(43기, JCWOOD컨설팅 대표)

흔히들 사관학교 출신들을 Ring Knocker라고 부르는데 이 Ring Knocker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음미해 보고자 한다.

사관학교를 졸업하면 유난히 눈에 띄는 크고 반짝이는 반지를 끼는데, 많은 사람이 그 반지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

Ring Knocker는 말 그대로 “반지로 두드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는 사관학교 출신들이 큰 반지를 끼고 있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여기에는 integrity의 개념이 담겨있는데 integrity는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 단어에 들어있는 함의는 진실, 진정, 성실, 신

뢰, 근면, 정직, 청렴과 같은 뜻이 들어있다. 미군과 미국 사회에서는 책임 있는 직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요구되는 단어이기도 하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무렵, 가장 위험하면서도 고난도의 임무를 수행하는 집단이 있었는데, 바로 미 공군의 폭격기 조종사들이었다. 물론 전투기 조종사들 또한 매우 어려운 고난도의 임무를 수행하지만 폭격기 조종사들의 생존율과 귀환율이 훨씬 더 낮았다.

당시는 육군의 선방어주의의 참호전과 같은 지상전 위주에서 새롭게 공군의 전략폭격론이 고개를 들고 현실화되는 중이었다. 이탈리아의 항공 전략사상가 줄리오 듀헤(Giulio Douhet)의 전략폭격이라는 개념이 발표되고 전 세계 각국에서 공군에 의한 전략 폭격을 연구하게 되면서 항공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전략 폭격이라는 개념이 발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선을 형성하고 선형전투에 머물렀던 전쟁의 양상을 하늘이라는 3차원 공중공간으로 끌어올리고 항공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일깨우면서 항공기의 전략무기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열어준 것이 바로 줄리오 듀헤의 전략 폭격 개념이다.

여기에는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항공기에서 폭탄을 투하하여 적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하고 군수물자, 전쟁 지원물자 등을 파괴하며, 다수의 민간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해 전쟁의지를 말살하는 전략이 들어있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윌리엄 미첼 장군(William Lendrum “Billy” Mitchell, 사후 추서 계급), 영국의 휴 트렌차드(Hugh M. Trenchard) 같은 인물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순수 공군력으로 하늘에서 싸움을 하는 사상적 기초를 만들어 주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적 이론이 현실화되는 데는 많은 대가를 치렀다. 현실에서의 공습에는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 당시의 항공기 기술이 오늘날과 같이 발달하지 못하였기에 내비게이션의 문제와 각종 기상에 따른 제한치가 많았으며, 적의 방공망 구축에 따른 방공포병의 공격, 목표물에 대한 명중률과 항공기 자체의 신뢰성 등의 문제로 생존율이 그리 높지 않았다.

더구나, 초기 미군의 폭격기들은 자체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무장을 하는데, 폭격기의 전방과 좌·우 방어를 위한 기관총, 그리고 후미를 방어하기 위한 기관총 등을 장치하였다. 그런데 문제



는 기체 상부에 달린 기관총은 기체를 중심으로 180도 아래로 총신을 내리지 못하고 기체 하부에 달린 기관총은 기체를 중심으로 180도 위로 총신을 올리지 못하게 만들어졌다.

독일군 조종사들은 몇 번의 조우 끝에 이러한 미군 폭격기들의 결함 사항을 알아냈고 미군의 폭격기가 공습을 위해 날아오면 미국 폭격기의 자체 생존을 위한 기총소사를 피하고자 그대로 미군 폭격기와 수평을 맞추어서 고도를 유지한 후 사격을 하여 폭격기들을 격추하곤 하였다.

후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미군 폭격기들은 자체 방어를 위한 기관총의 조준선 제한을 극복한 개선·개량형이 나오게 되지만, 그 이전까지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되니, 2차 대전 당시 폭격기 조종사들의 스트레스는 극한에 다다랐으며, 생존에 대한 공포감이 상존했다. 특히, 출격 후 돌아오는 귀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 또 돌아올 수 있을지 미지수였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대에 적의 중요 지역에 대한 폭격 임무가 내려지고 대대장은 이 임무가 그 어느 때의 임무보다 더 어렵고 생존이 힘든 임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대대 브리핑실에서 임무에 대한 설명을 한 후 누가 이 임무를 맡을 것인가를 물었을 때였다.

워낙에 어렵고 힘든 임무라서 돌아올 확률이 낮을 것이라는 것은 조종사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 누구 하나 손을 번쩍 들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난 후에....

조용히 자신의 반지를 책상에 “톡톡”하고 두들기는 장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사관학교 출신들이었다. 누구도 손을 번쩍 들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임무에 출선하겠다고 조용히 반지로 두들기는 소리를 내어 임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바로 여기에서 유래하여 사관학교 출신들을 Ring Knocker라고 부르게 되었다.

사실 졸업 반지는 사관학교에서는 최고 학년의 권위를 상징하는 뜻이 있었으며, 반지의 디자인이 몇 종류 있었고, 반지의 알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하였는데 보통은 자신의 탄생석을 박아 넣곤 하였다. 한국의 사관학교 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이어받았기에 이 반지에 대한 전통도 함께 따라오게 되었다. 다만, 집단주의적 사고가 강한 한국사회에서는 자신의 탄생석을 넣기보다는 졸업한 학교를 대변하는 집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리하여 사관학교 출신들은 모두 빨간색의 루비를, ROTC 출신들은 녹색의 에메랄드를, 그리고 OCS 출신들은 각 군의 취향에 맞도록 보석을 선택하게 된다(공군 학사사관후보생은 파란색 사파이어, 해군 OCS도 동일).

Ring Knocker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국가의 위기에서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지는 장교들의 우국충절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

얼굴에 대한 책임



김동기(21기)

얼마 전에 있었던 일로서 좀 주책없는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한다. 일이 있어 밖에 나갔다가 누구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오십 여세는 됴직한 한 귀부인이 다가오더니 공손히 인사하면서 혹시 김 아무개 목사님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약간은 장난기가 발동하여 그렇다고 하니, 부인은 대단히 반가워하면서 저쪽에 앉아 있는 남편으로 보이는 신사 분을 부르더니 정중히 인사를 시키는 것이었다.

아이쿠! 이거 일이 잘못되어 가는구나 싶어 얼

른 정색하고 “죄송합니다. 실은 저는 김 아무개 목사가 아닙니다. 부인께서 물으시길래 얼떨결에 장난기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안경을 써서 눈에 네 개라는 뜻으로 목사라는 별명이 있긴 하지만 목사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초면에 정말로 죄송합니다.”하고 깊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이렇게 대충 마무리를 해 놓고는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다. “그런데 저는 직업상 세상을 험난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싸움질도 잘하고 거짓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잘하는데 어느 모로 제가

성직자인 목사님으로 보였는지요?”하니, “아, 그러시군요! 실은 얼마 전에 모 집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어찌나 감동적인 말씀을 하시던지, 지금도 그분의 음성이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아저씨의 모습이 무척 그분을 빼닮으셔서 도저히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저씨의 얼굴과 눈빛이 참으로 평화롭고 잔잔해 보여 틀림없는 김 아무개 목사님으로 착각했습니다.”하니 그 남편 되는 분도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노라며 맞장구를 쳐주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생긴 용모에 대하여 상당히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다. 키는 작달막한 데다 눈은 납작한 호박씨처럼 작고, 등은 구부정한데다 요즘은 머리털까지 훌렁 벗겨져 볼품없는 영감탱이 모습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던 중 이런 일이 있었고, 오히려 요즘은 어깨에 힘을 주며 살고 있다. 늙어가는 내 모습 어딘가에 온화한 성직자의 모습이 남아 있다는 것은 그런대로 인생을 헛산 것이 아니지 않은가 해서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가 낳은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많은 걸작을 남겼지만 그중에서도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은 걸작 중의 걸작으로 꼽힌다. 그가 이 그림을 그릴 때의 일화다.

그림을 그리면서 다빈치는 예수의 모델을 찾는데 매우 애를 먹었다고 한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피에트로 반디넬리’라는 성가대원을 발견했는데 너그럽고 고상한 용모가 그가 평소에 생각하던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의 이미지에 딱 들어맞는 모델이라 여겼다. 그를 모델로 예수를 그린 후 다른 제자들의 얼굴은 그럭저럭 모두 그리게 되었으나 마지막으로 한사람, 예수를 배반한 ‘가롯 유다’만을 그리지 못하고 있었다. 몹시 흉악하고 타락한 인간이라 생각되는 모델이 좀처럼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다.

마음에 맞는 모델을 찾지 못한 가운데 십여 년이란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다빈치는 로마의 뒷골목을 걷다가 보기도 험오감을 주는 얼굴을 한 거지를 발견했다. 그가 바로 그토록 찾던 유다 모델의 적임자라고 생각한 다빈치는, 그를 데려다 앉혀 놓고 마침내 ‘최후의 만찬’이란 불후의 명작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림을 완성한 다음, 모델료를 지급하고 나서 그의 이름을 물었더니 놀랍게도 그는 바로 예수의 모델이었던 “피에트로 반디넬리”였다.

한때는 예수의 모델이 될 정도로 너그럽고 훌륭한 외모를 지녔던 청년이 십여 년의 세월 동안

에 유다의 이미지로 변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일이지 아니한가? 그동안의 타락한 생활이 그 청년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으로 그의 흉한 모습은 더러운 머리칼이나 남루한 옷차림 때문만이 아니라, 자포자기, 원한, 좌절감, 증오, 자기 혐오 등의 무절제한 독소가 합쳐져 만들어진 결과물일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겉과 속은 별개의 것으로, 속으로야 어떤 생각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겉만 잘 가꾸어 놓으면 멋있게 보일 것이라 여기기 쉽다. 그러나 인간의 내면적인 힘은 외모를 변화하고 좌지우지할 만큼 강력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어느 몹시 추운 겨울날의 저녁 무렵, 미국의 북부 버지니아 주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노인이 강가에 서서 강을 건널까 말까 망설였다. 비록 강물은 무릎 정도의 얇은 깊이였지만 군데군데 얼어 있어서 선뜻 발을 담그고 건너기에는 날씨가 너무 추웠고 물이 차가웠다. 그때, 얼어붙은 길 뒤편에서 따가닥 따가닥 질주해 오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로 보아 일정한 간격으로 4~5명의 말을 탄 사람들이 온다고 여겨졌고, 말을 얻어 탄다면 쉽게 강을 건널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노인은 초조해하며 몇 명의 젊은이들이 말을 타고 모퉁이를 돌아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첫 번째 사람이 앞을 지나가는데 노인은 잠자코 있었다. 뒤따라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갔으나 노인은 무슨 생각인지 가만히 서있을 뿐 도움 청하기를 망설이고 있었다.

마침내 마지막 사람이 다가오자 노인은, 그의 눈을 바라보면서 말을 하였다. “젊은이, 이 늙은이를 강 건너 저쪽까지 태워다 주실 수 없겠소? 걸어서 건너기에는 강물이 너무 차갑구려.” 말의 고삐를 늦추면서 그 젊은이가 말했다. “그렇게 하시지요. 어서 올라타세요.” 노인의 몸이 얼어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 젊은이는 말에서 내려 노인이 말에 올라타도록 도와 주었다. 그리고 노인을 말에 태운 후 몇 킬로미터 떨어진 그의 오두막까지 태워다 주었다.

작고 안락한 노인의 오두막에 도착하여 노인을 내려 주면서 젊은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어르신, 당신은 다른 사람이 지나갈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제가 가까이 가자 저한테 말을 태워 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이유가 궁금하군요. 만일 제가 거절이라도 했다면 어르신은 그곳에 그냥 남겨졌을 것이 아닙니까?”

노인은 말에서 내린 뒤,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다. “저는 이 지방에서 꽤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판에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안다고 믿지요. 저는 말을 타고 오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 처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탁해 봐야 틀림없이 거절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을 보았을 때 저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곤경에 처한 저를 도와주시리라 믿는 것을 알았지요.” 젊은이는 노인의 말에 깊이 감동하였다. 그리고 노인에게 말했다. “어르신이 해주신 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 자신의 생각에 열중하느라 다른 사람들의 불행한 처지를 망각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국의 독립 선언서를 기초한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이야기다.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다. 어릴 때의 얼굴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지만, 불혹의 나이가 지나면 그때까지의 살아온 이력이 얼굴에 그대로 기록된다는 말일 것이다. 지금의 순간들이 모여 하루가 되고, 하루하루가 쌓여 일 년이 되고 일생이 되며, 이러한 연륜들이 쌓여 기록된 것이 지금의 내 얼굴이라는 이야기다. 때문에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얼굴에 이상한 것이 묻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혐오스럽게 이지러지고 있는지 아니면 관대함이 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자신을 채찍질하는 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

신사의 자리



우선희(잡 컨설턴트)

우리나라는 특별한 환경에 놓여 있다. 반세기 이상을 종전(終戰)이 아닌 휴전인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이다. 휴전인 상태에서 다른 나라에 파병을 한 역사를 가진 나라이기도 하다. 2차 대전 이후의 냉전 관계 속에 경쟁하고 질시하던 나라 끼리도 자국의 이해에 따라 관계의 모습과 성격이 변화하는 21세기인데도, 우리의 주적은 60년이 넘도록 여전히 북한이다. 그 북한은 우리와 맞닿아 있고 수시로 위협적인 일을 저지른다.

그러므로 국방과 군인의 의미가 일반적인 다른

나라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 그 국방을 담당할 전문인들에 대한 기대와 양성도 각별한 편이다.

지형학적으로 영토가 협소함에도 세계 200여 개에 달하는 국가 중 경제 규모가 2016년도 기준 현재 세계 11위라고 한다. 육·해·공 국방비는 세계 10위로 약 335억여 달러를 지출한다고 한다. (IHS 보고)

옛날에는 외침을 막는다는 것은 육로와 수로를 잘 지킨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에

는 영토와 영해를 넘어 영공을 잘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적극적인 영역이 되어 버렸다. 1940년 7월 영국 본토를 장악하기 위해 독일이 시도한 항공전에 영국 공군은 다소 열세인 항공기 전력으로 치열하고 끈질기게 맞섰고, 결국은 승리함으로써 독일의 꿈을 무산시켰다. 그 유명한 브리튼 전투(Battle of Britain)이다.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영공에 떠 있던 전투기가 없었다면 2차 대전의 종결은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현대에는 긴급한 시사 이슈에 종종 미사일 공격과 방어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가 첨예하게 다루어진다.

무기의 양상도 바뀌어서, 1차원적이고 평면적이던 전략 병기들이 복잡해졌다. 수륙양용 탱크, 스텔스 기능, 잠수함, 이지스함, 핵무기, 정찰 위성과 미사일 방어체계, 최근에 크게 논란이 되는 사드 요격 체계 등 점점 복잡하고 산업 의존적이며 과학적인 체계로 바뀌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걸 학습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일은 멋지다. 단순히 매뉴얼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언어, 과학, 경제, 심리, 사회적 협응을 망라하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전쟁은 공군과 해군의 중심 역량이

높아져야만 잘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드론과 사물 인터넷이 전쟁에 적용되면 더욱 그러할 것 같다.

한편, 다른 면도 있다. 예전의 군인이 물리적 전쟁과 관련한 한정된 개념이라면 미래의 군인은 산업의 현장에서도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는 예측을 해본다. 내쉬의 균형이론은 수학에서 시작되어 경제학에서 발전하였고, 마케팅과 군의 전략에 적극적으로 적용되었는데, 융합과 협응의 시대에는 전쟁이라는 개념이 더욱 포괄적이며 거시적인 형태로 수행되리라 여겨지는 근거이기도 하다. BMW 등 명차의 유래가 전투기 엔진으로 부터였다는 사실도 상기해볼 만하다.

제복을 입은 늙은 청년들이 바른 자세로 경청하며 배우고 익히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믿음직하다. 사람들은 흔히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멋있다고 생각한다. 나도 그중의 한 사람이다. 제복이라는 딱딱하고 경직된 설정 속에 그 제복을 입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에 담긴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목표에 합당한 신체적인 건장함은 물론 지성, 절제, 협력과 용기를 갖추어 목적에 합치해 가는 여정이리라.

공군 사관학교를 무난히 통과하여 전투를 가정한 직무를 수행하신 분들은, 그러므로 훌륭하다.

나라가 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는, 사관학교의 역할과 사관학교에서 배출한 인재들을 특별하게 여긴다. 또 미래의 방향을 예측해 보면 공군의 역할은 더욱 크다.

공중전 혹은 우주전에 관심이 많아서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다양한 세미나와 학술제, 전시회에서 만난 공군의 모습도 늘 유능하고 좋은 인상으로 남아 있다. 그런 분들의 직무 역량이 더욱 잘 설계되어서, 예편한 이후에도 단절되지 말고 각계 각층의 사회에서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다면 좋겠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산다.’라는 군가를 종종 들을 수 있던 해군의 도시 진해에서 자란 나는, 남녀 차별로서의 사나이다움이라기보다는, 성품과 책임감으로서의 사나이다움과 용맹에 늘 매력을 느낀다. 요즈음은 여자들도 입학이 가능하다고 하니, 서로 돕고 보완하고 경쟁하면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고 믿는다.

나는 공군과 공군 사관학교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 위상이 지금보다 높아지고 전체 국방의 전략 편성과 인재 포트폴리오에서 더욱 비중 있게 자리 잡기를 바란다. 멋있는 사람들에 대한 호

감에 바탕을 둔 개인적인 로망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그러한 전개가 우리나라가 강하게 자리 잡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방향성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요즈음 다루는 시사 문제의 대부분이 결국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가 핵심임을 꿰뚫어 볼 수 있다. 어디 요즈음뿐이겠는가. 과거에도 그러했으며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다.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며 영웅시되거나 비판받는 어떤 사람들의 그룹이 있다. 이른바 자타가 일컫는 ‘엘리트들’이다.

그 그룹으로 여겨지는 학맥이 있고 직업적인 경력이 따라 다녔다. 그렇게 파생한 어마어마한 네트워크를 무기 삼아 사회의 많은 부분을 장악하고 연대를 결속시켜 영향력을 발휘했다. 타인의 진입을 방해하고 이기심을 앞세워 사리사욕을 채우며 엘리트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를 저버리고 물의를 일으킨 일도 많다.

그러한 경향과는 거리를 멀리 둔 집단이 공군 사관학교 출신이라고 본다. 입학에서 졸업하는 데까지 획득한 지성은 물론이지만 이에 앞서 입학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구 조건 자체가 이미 여러 모로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독특한 집단이

다. 인맥을 형성하여 사욕을 채우는 정치적인 모의를 시작하고 동참했다면 못할 것도 없는 데도, 명예를 중시하고 유지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전하여 들곤 했다. 이런 분들이 공사의 전통과 역할을 만들고 있지 않나 싶다. 멋지다.

인생 백 세의 시대에, 예편하신 분들의 생각이 깊으실 줄로 믿는다. 이미 혈액의 DNA는 나라를 아끼는 성분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것 같다. 동시에 한 개인으로의 삶의 영위도 품위와 품격을 존중하시리라 여긴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가진 나라와 산업에 대한 노하우와 방향성 그리고 개인으로서 전파하는 건강한 영향력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 명확히 직시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공사 동문 여러분들이 배우고 이룬 것들을 과거의 영예와 추억으로만 모셔두지 말기를 바라는 편이다. 어른들의 사회와 산업에서뿐만 아니라 꿈을 가진 어린이와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도 비전의 한 맥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나는 군인도 아니고 전쟁을 겪어본 사람도 아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세상의 흐름에 평화와 전쟁의 두 이념이 영속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위 전반을 흐르고 있음을 예민하게 느낀다.

공동체의 의미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바뀌는 와중에도 평화와 전쟁은 늘 우리의 삶 속에 있었다. 냉전의 시대가 종식되었다는 신문의 헤드라인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살벌하게 경쟁하고 있다. 경쟁을 꿰뚫어 들여다보면 암묵적인 전쟁이 도사리고 있기도 하다.

전쟁은 피하고 막아야 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항상 준비 태세가 완벽해야 한다. 거기에 더해 예전의 고전적인 개념으로서의 전쟁이 아니라, 얽히고설킨 결과물로서의 전쟁과 전투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공군은 조직으로서의 비중이 크고 중요하다. 전역 후에 개인들의 사회적 역할도 같은 맥락이라 여긴다. 공군사관학교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영해와 영공을 지키는 것이 먼저인 시대이다. 당연히 우선순위로 필요충분의 조건을 수정해 오고 있으리라 믿는다. 이렇듯 많은 것이 변화한 가운데 ‘공군’ 하면 상상되는 어떤 모습이 있다. 빨간 마후라의 파일럿 복장에다 왼손으로 헬멧을 아무지게 지지하고 오른손으로 엄숙하게 경례하는 모습. 상상한 김에 타임머신을 타고 약 30년 전으로 가 보자. 나는 한창 청춘이었다. 그 시절 나는 한 번도 공사생도나 공사 출신을 소개받은 적이 없지만, 반듯하고 건강

하고 머리가 좋은 남자가 나라를 지키는데, 나라를 지키는 그 남자가 나를 지키겠다고 나선다면, 수줍게 얼굴 붉어질 것 같다.

백발이 되어서도 늙름하고 당당하며 신사가 무엇인지를 말해 주는 그들. 공군사관학교 동문과 가족들의 앞날에 영광과 명예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어설피고 설익은 생각에 시간을 내어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필승!

p.s.

“안녕하세요. 하늘과 자연과 어린이 세계를 admire 해 왔습니다. 80년대 후반, 저는 20대이고 직장 생활 중이었는데, 서울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에서 종종 항공우주 관련 국제 포럼과 국제

학술제가 공개적으로 열린다는 광고가 신문에 크게 실렸습니다.

휴가를 내어 관람·참석했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보이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끈질기게 요식 상의 답변이 아니라 성의 있는 답을 얻거나 나중에 우편으로 자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면 공군 관계자분이나 항공 산업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용기와 날카로움을 격려해 주시면서 공군과 항공 산업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은 면허 조립 단계였는데, 동남아시아 국가 보다 앞서있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저는 기술 이전을 통해 빨리 자주적인 산업안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는 국제 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무대를 추억하며



신현상(학사98기,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응답하라 19XX” 시리즈는 80-90년대 후반을 뜨겁게 살던 청년들의 이야기이다. 첫 번째 시리즈였던 “응답하라 1997”을 보면서 필자는 성무대에서 멋진 사람들과 함께 보냈던 아름다운 시절을 추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7년 3월, 달력은 봄을 이야기하지만 날씨로는 아직 봄을 느낄 수 없는 어느 쌀쌀한 날이었다. 군대 생활을 경험해 보지 않은 못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필자는 ‘기

본군사훈련’이라는 단어가 주는 막연한 두려움 속에 머리를 뻑뻑 깎고 진주 교육사령부에 입소했다.

군복은 입었지만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민간인 반군인 반 신분의 적응기간 일주일을 마친 날, 입고 온 사복을 고이 개어 박스에 넣어 제출하고 카레와 각종 반찬, 왕플레(대형 요플레) 등 푸짐한 점심을 먹으면서 동기들과 “요즘 군대생활 참 좋구나”라며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바로 이어진 사관후보생 98기 입교식 및 체력측정을 빙자한 본격적인 체력훈련과 기합 속에 앉았다 일어서기, 피티, 좌우로 구르기, 토끼땀 등을 반복하는 가운데 동기들의 뺏속에서 미처 소화되지 않은 카레 색깔의 음식물들이 마치 고래 등에서 뿜어지는 물분수처럼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교관의 고성과 후보생의 열의 보고가 난무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신고식을 치르면서 '그럼 그렇지, 군대가 그렇게 만만할 리가 없지'라는 생각을 잠깐 하긴 했지만, 어느새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열심히 움직이는 600명 무리 중의 하나가 되었다. 포지션을 바꿀 때마다 그때 그때 눈에 들어오는 하늘과 땅, 그리고 빨간 모자와 검은 선글라스를 착용한 호랑이 교관들을 바라보며 이 고통의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바랄 뿐이었다.

신고식 이후 구대 배치가 이루어졌고, 지옥훈련(?)이 시작되었다. 3월부터 시작되어 7월 초까지 이루어진 16주 간의 기본군사훈련. 제식, 총검술, 사격, 화생방, 각개전투 등의 기본적 훈련도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600명이 한 방에 모여 서로의 체온으로 강의실을 달구는 가운데 이루어진 정신교육과 이론교육을 받는 시간도 만만

치 않았던 기억이 난다. 훈련으로 피곤한 몸을 오랜만에 의자에 기대어 편안한 가운데 실내온도는 높고 600명이 내뿜는 이산화탄소까지 마시는 상황이었다. 눈을 부라리는 교관들 옆에서 쏟아지는 줄음을 참는 것은 정말 어려웠다.

그래도 매주 금요일 오후에 부대 외곽 순환도로(대략 4~5km)를 한 바퀴 도는 다이아몬드 구보 훈련은 개인적으로 즐거운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맨손구보부터 시작해서 집총구보, 군장구보, 완전군장구보로 이어지는 훈련 가운데 점점 늘어난 체력과 줄어드는 뺏살을 눈으로 보며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훈련을 결산하는 3박 4일의 행군. 이 날을 위해 고이 아껴 두었던 새 군화를 신고 걷는 가운데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따끔따끔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새 신발이라 그렇겠지 하면서 열심히 걸었다. 점심 식사 전 화생방 훈련이 있어서 방독면을 쓰고 한참을 걷고 나서 점심시간에 군화를 벗으려는데 신발이 벗겨지지 않았다. 억지로 벗어보니 몇 주전에 잃어버린 비늘이 군화 속에 빠져 있다가 행군 중에 엄지발가락과 신발에 동시에 박혔던 것이었다. 너무 황당했지만 '걷다 보면 피가 멈추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고쳐된 군

인정신으로 오후에도 씩씩하게 걸었던 기억이 난다.

도저히 오지 않을 것 같던 7월이 왔고 임관일이 되었다. 회계사 생활을 했던 필자는 거듭된 회식과 음주로 인해 입소 전 몸무게가 84kg에 달했으나, 임관하는 날 68kg으로 줄어든 몸무게를 보면서 100일간의 훈련 효과에 대하여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었다.

아마도 행군을 마치고 임관을 준비하던 6월말 무렵이었던 것 같다. 공군사관학교 군사훈련처에서 교관을 뽑으니 석사 학위자는 다 모이라는 방송이 나왔다. 가보니 미남 교관들(장동혁, 김운재, 백운용 예비역 중위)이 와 있었다. 동기생들이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 질문하자, 교관들은 사격, 화생방, 각개전투 등 생도들의 군사훈련을 지도하게 되고 행군도 매년 인솔해야 한다고 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 모인 후보생 거의 대부분이 한숨을 쉬었다. 지금까지 훈련받은 것도 충분한데 3년 더 군사훈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적어도 그 자리에는 거의 없었다.

필자도 전역 후 회계법인으로 돌아갈 생각이었

기 때문에 해산 후 바로 방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 속에 대한민국의 하늘을 책임지는 사관생도들과 연병장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오피스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고 엑셀 파일을 만들면서 3년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보람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황급히 사관학교 교관들에게 돌아가서 군사훈련 교관에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행히도 선발되어 임관 후 7월 한 달은 교육사에서 다른 교육특기들과 함께 직무교육을 받았다. 열심히 교육에 임한 결과 교육특기 전체에서 1등을 차지하였다. 8월에는 다양한 전공의 사관학교 교관요원 20여 명과 함께 대전 공군대학에 배속되어 교관양성교육을 받았다. 1등은 못했지만, 최우수 강의자 3인에 선정되어 뿌듯함을 느꼈다.

나름대로 교관으로서의 스킬 내지 교수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공군사관학교 군사훈련처에 배속되었다. 군사훈련처 자체적으로 신입교관 강의평가회를 가졌는데 장동혁 예비역 중위에게 엄청 깨졌던 기억이 난다. 교육자에게는 스킬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자세와 마인드셋이 더욱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고,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사 47기 200여명의 생도를 대상으로 강당에서 첫 수업을 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수업이 끝나고 나서 생도들이 박수를 쳐주어서 우쭐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주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생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는데, 수업 준비가 부실했는지 아니면 그 날 따라 생도들이 덤고 힘들었던지 200명 중에 한두명 빼고 모두 졸고 있는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 직접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곤혹스러움을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수업을 마치고 자괴감에 빠져 어깨가 축 늘어진 필자에게 장동혁 선배가 다가왔다.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씩 웃으면서 한마디 했다. “교실 전체에서 단 한 명이 강의를 듣고 있다 해도, 그 한 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강의하는 교관이 되어야 한다.”

그 날이 필자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다. ‘단 한 명을 위해서 강의하는 것이 그렇게 보람있는 일이구나. 그 한 명에게 무엇인가 의미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유익한 교육경험을 주는 것이 그렇게 의미있고 중요한 일이라면 내 인생을 교육

에 바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필자가 재직 중 군사훈련처장이셨던 이성만 교수님과 김운수 교수님, 과장이셨던 신유진, 성기문, 이기덕 당시 대위님, 그리고 장동혁, 이상덕, 김운재, 백운용, 서홍욱, 신현철, 박인권, 현광우 등 당시 군사훈련처 교관들이 모두들 생도들을 무척 아꼈다. 돈을 모아 PX에서 과자를 잔뜩 사서 쟁여놓고, 점심시간마다 사무실에 놀러온 생도들과 함께 과자를 먹으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난다. 주말과 방학 때는 생도들과 서울에서 만나 밥도 사주고, 단체 미팅도 주선해 주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청년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자에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평생을 젊은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대학교수가 되어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한번의 전환점은 1999년 가을 학기에 감사하게도 경영학과 오필환 교수께서 ‘경영전략’과목의 강의를 맡겨주셨던 일이다. 석사때 경영전략 및 국제경영학을 전공했기에 나름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강의를 16주 동안 이끌고 나가보니 전공지식이 얇고 미천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전역 후 유학을 가서 제대로 된 박사 공부를 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든 후에 한국에 돌아와 교수가 되어야겠다는 목표가 생겼다.

‘제대를 앞두고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격언을 무시하고 2000년 봄에는 하계군사훈련에서 4학년을 위해 운영할 리더십 과정을 설계했다. 리더십은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소통 스킬 및 역량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때 존경하는 이재강 당시 교수부장님께서 한마디 해주셨다. “신중위, 스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리더의 진정성이네”. 스킬에만 집중하던 초급장교의 마음을 숙연케 하는 귀한 말씀이었다.

2000년 6월 30일. 드디어 전역일이 되었다. 가입교 군사훈련기간 동안 친해진 47기 오충원, 채춘식, 김봉수 생도, 48기 원용창, 임병호 생도를 비롯해 친하게 지냈던 많은 생도들의 마음을 다한 축하를 받았다(기억나는 이름은 많은데 지면관계상 다 거명하지 못해서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그 중에서도 조용히 다가와 불펜을 선물해 준 48기 조혁준 생도가 기억에 남는다.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 그 불펜은 아까워서 아직까지도 쓰지

못하고 고이 모셔놓았다. 가입교 훈련을 시켰던 49기 하유미 생도는 힘든 유학생 시절에 정성스러운 위문편지를 보내주었는데 그때 답장을 못해 주어서 아직도 미안한 마음이다. 하유미 생도를 비롯하여 필자를 기억하는 생도들에게는 식사라도 대접하고자 하니 혹시 이 글을 보면 연락주기 바란다(hyunshin70@hanyang.ac.kr).

필자는 전역 후 미국 유학을 떠나 일리노이대에서 경제학 석사, UCLA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마친 후 뉴욕 롱아일랜드대에서 마케팅 교수로 근무했다. 2013년 귀국 후 이화여대를 거쳐 지금은 한양대 경영대학에서 교수로 근무 중이다. 누군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인생에서 가장 기억나는 순간을 묻는다면 필자는 거침없이 성무대에서 보낸 3년이라고 말할 것이다.

나의 양 어깨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던 계급장, 그리고 내 주위에서 별처럼 빛나던 선후배와 동료들, 생도들과 함께 보낸 그 순간들이 필자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끝없이 내리는 눈을 원망하면서 함께 제설작업을 하던 어느 겨울날, 끝없이 자라는 풀을 불평하면서 함께 제초작업을 하던 어느 여름날마저도

지금은 아름답게만 느껴진다.

곳 성무대에서 보내고 있으리라.

그리운 성무대. 성무대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가장 빛나는 사람들과 함께 그

대한민국 창공을 수호하는 독수리의 산실.
성무대여 영원하라! ✕

LIG넥스원, 볼륨을 높여라

1976년 설립된 LIG넥스원은 육·해·공군에서 운용되는 최첨단 국산무기체계 개발을 통한 자주국방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LIG넥스원은 세계 수준의 R&D 역량과 40여년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내일을 열어갑니다.



유월이 오면



강임구(24기)

유월에는 그 얼굴의 눈동자가 그림다
 나란히 줄 서있는 전우와 눈 맞추고
 가만히
 고개 숙이면
 들려오는 목소리

땅에서 하늘에서 외침과 노한 눈빛
 천둥과 불화살에 비켜선 붉은 무리
 맞대어
 날던 은익은
 깃을 접고 있지만

비구름 몰려오는 캄캄한 지평선 끝
 솟아오른 보라매 보금자리 찾았을까
 한동안
 움츠린 날개
 해울음을 날린다

귀를 찢는 폭음도 숨어버린 산기슭
 찾아왔던 얼굴들 떠나버린 오후 네 시
 하루해
 지는 현충원에
 온 유월이 서있다. ❌

하늘 성城



이영순(19기)

높은 城 벽은
 가파른 산등성이 돌 벽 높게 쌓아
 적군이 쉬 넘지 못하게 견고히 한다.

하늘의 城
 인간접근을 거부하는가?

성곽 접근에 경계 눈초리 삼엄하다
 물통 쏟아붓고, 세찬바람 후리치며
 심기 틀어진 흑한, 폭설 휘몰아 치고
 검은 구름 뒤집어쫓우고, 자욱한 안개피워

앞 못보게 심술부린다.

하늘 나는 鳥人들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다
 성문 드나들기 세심한 눈치 살피야 한다.

도도한 하늘城
 하늘 城門 넘나들며
 하늘심기 거스르지 않게
 감추어진 신비 훑어보며
 삼십육년 간 눈칫밥 먹고 살았소. ❌

독수리에게



조환기(31기, 청주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

남녘 하늘에서 바람이 분다.
 을씨년스런 바람이 분다.
 나무는 견디다 못해 자지러지듯 외친다.
 어린 시절 그 어느 날인가
 하늘 높이 치솟은 그 모습이
 너무도 사랑스러웠다.
 평생 사랑해도 될만큼
 그들은 용감한 모습으로 비상했었다.

푸르른 하늘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작아 보이고
 그 작은 것들로 하여 부질없어 보이지만
 그들은 항상 예측할 수 없이
 그들은 항상 기대할 수 없이
 다른 모습으로 내게 다가왔다.

그는 때로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는 때로 너무나 버거웠고
 그는 때로 너무나 빛나보였지만
 그는 때로 너무나 오만했고
 그는 항상 너무나 무심하여
 세상이 그를 속이고 그가 세상을 속이곤 했다.

하늘 높은 곳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아래 세상은 그저 쉽터처럼
 그리움으로 다시 찾아오지만
 그 많던 사랑하는 이들은 보이지 않고
 이제 남은 건 세상을 바라볼 눈이 부족한
 어린 새싹과 새들의 노래뿐이다.

이제 바람이 또 다시 세차게 불어오니
 그의 지혜와 총명함을 찾아 떠나야지
 넓은 세상의 품에서 살아야 할 또 하나의 삶을 위해
 드높고 푸르른 하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본다.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국내최고 40년 전통의 섬유연구소!

'국방섬유' 연구개발 국내 유일 연구소!

섬유기술 + '국방전력지원체계' → 전투력 향상



원장 문혜강
(예대령, 공사 26기)



41842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36(중리동) Tel: 053-560-6600 / www.textile.or.kr

꿈을 실현하는 일등 공제회

믿음으로 함께 한 33년, 17만 회원들의 꿈과 희망!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한 군인공제회!
앞으로도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더 크고 탄탄하게 키워 나가겠습니다.



17기

전쟁기념관은 '16년 12월의 호국인물로 1953년 강원도 고성지역 351고지와 월비산에서 치열한 격전에서 피격된 기체로 적의 대공포진지를 파괴하고 전사한故임택순 대위를 선정하여 현양행사를 거행하고, 호국인물선정증서를 전달하였다.



5기

임관 60주년을 맞은 5기 동기회(신성희)는 4월 20일 1학년 때 구대장 두 분을 초청하여 함께 오찬을 하며 조출한 축하의 자리를 가졌다. 또한 임관 60주년 기념우표를 발행하여 의미있는 기념품을 소장하기로 하였다.



8기

8기 동기회(팔진회)는 4월 14일 벚꽃이 만발한 서울대공원에서 부부동반 모임을 갖고, 공원 외각도로를 따라 산책과 점심을 함께 하면서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였다.



15기

임관 50주년을 맞이한 15기 사관과 가족 110여명은 5월 27일 모교에서 임관 기념행사를 가졌다. 모교 발전기금으로는 1억 840만원 (15기 동기회 3,840만원, 故김대욱 부인 김상옥, 故최상욱 아들 최용훈, 김주식, 김덕훈, 엄익준, 최성열, 최용환 각 1,000만원)을 전달하였다. 임관행사 3일후인 5월 30일에는 당일로 곤지암 화담숲에서 관광 및 산책을 통해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17기

17기 동기회(봉우회)는 매년 초복 등산과 가을 천렵행사를 갖고 전우애를 다지고 있다. 금년 초복에는 북한산 등산 후 보양식을 함께 하였다. 또한 가을에는 천렵 대신 1박2일 일정으로 주왕산의 단풍, 안동댐 산업시찰에 이어 안동 하회마을 여행을 다녀와 내 조국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함께 느끼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22기

김은기 동문이 2016년 8월 29일 대전 과학기술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김은기 총장은 취임 이후 4차 산업 혁명시대에 꼭 필요한 과학과 기술 융·복합 능력을 갖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3T 정신' 즉, 남이 하지 않는 일을 먼저하는 'First 정신', 남이 다 하는 일에는 최고가 되고자 하는 'Best 정신', 미래를 예측하고 추진해 나가는 'Next 정신'을 강조하는 교육 철학으로 대전 과학기술대를 역동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25기

오창환 동문이 2016년 9월 6일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오창환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예비역들이 갖고 있는 우수한 역량을 백분 활용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함은 물론 예비역들의 든든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0기

'2016년 공군을 빛낸 인물 시상식'에서 심인태 동문이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심인태 동문은 미국 현지에서 안보 세미나와 강연을 통해 6.25전쟁 당시 공군력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재미동포 안보의식 고취에 기여하였다.



40기

‘2016년 공군을 빛낸 인물 시상식’에서 연구분석평가단 강선도 중령이 신지식·정보화 부문을 수상하였다. 강선도 중령은 ‘16년 발생한 항공기 주요 결함 사례에 대한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며 비행안정성 향상에 기여한 군수사령부 항공기술연구소 시험분석실과 EO Electro Optical 광학영상 영상처리기법 개발을 통해 영상 판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미래 항공우주 전투발전 분야별 소요 창출에 기여하였다.



47기

‘2016년 공군을 빛낸 시상식’에서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김진웅 중령이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김진웅 중령은 일본 방위대 최초로 2회 연속 ‘최고연구자상(아마자키상)’ 수상과 함께 AESA 레이더 등 핵심장비 개발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KF-X 개발사업 추진에 기여하였다.



51기

제11전투비행단 102전투비행대대 F-15K 전투조종사 김학선 소령이 2016년 ‘탑건(TopGun)’을 수상하였다. 김학선 소령은 “이번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편조원들과의 팀워크 속에서 함께했던 도전, 가족들과 대대원들의 헌신, 정비 무장요원들의 전문성이 한데 어우러진 공군 핵심가치”라며 “앞으로도 실제 임무가 주어지면 생사를 초월하여 임전무퇴의 의지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히며 대회 상금 150만원을 순직 조종사 자녀들을 위해 설립된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기부하였다.



62기

제17전투비행단 전투조종사 조영욱 중위가 충북 진천군 광혜원고등학교에서 공군 조종사를 희망하는 학생 30여 명을 위한 ‘조종사 진로특강’을 지원하였다. 조영욱 중위는 공군 조종사가 되는 법, 전투 조종사의 생활과 보람, 향후 전망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조종사 장구체험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공군 조종사라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기회가 되었다.



65기

2월 24일 거행된 공사 졸업식에서 이현 소위가 공사 총동창회장상인 성무보라매상을 수상하였다. 이현 소위는 “졸업식날, 어렸을 때부터 꿈으로 생각해오던 하늘이 4년의 사관학교 과정을 거쳐 저희가 활약해야할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 감격스러운 날에 제가 성무보라매 상을 수상하게 되어 한없이 영광입니다. 성무보라매상에는 제 이름이 써져 있지만 이 상은 그간 땀과 눈물을 함께 하며 빛나는 소위계급장을 달게 된 65기 모두에게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상을 대표로 받은 졸업생으로서의 책임감만은 스스로에게 새겨 앞으로의 삶 동안 스스로를 비추어 보는 거울로 삼겠습니다. 이 상을 주신 총동창회장님과 저에게 이 상을 받는 영광을 허락해준 동기, 훈육요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신사 65기 모두의 빛나는 앞날을 기원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65기 동기회(신사)는 최초로 졸업과 동시에 153명 전원이 평생회비를 납부하여 총동창회 발전에 모범이 되었다.



미 서부지회

미주 서부지역에는 몬트레이 거주 이경철(1기) 동문을 포함 40여명의 동문이 거주하며, 1~5기 동문들이 많아 노환으로 공식행사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현실이지만 연 3~4회 친목 모임을 하며 지내고 있다. 2016년 말에는 김상범(25기) 동문이 LA인근 오렌지카운티로 이주를 해왔으며, 2017년에는 전반기 신년모임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주하는 염동진(18기) 동문 환송 모임을 하였다. 또한 공군전우회와 함께 공군안보세미나(1.27)와 한국 공군 안보방문(4.10-16)을 하였으며, 재향군인회와 LA영사관 협조로 6.25행사를 진행하였다. 10월에는 한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와 미주 재향군인의 날 행사 등 군 관련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최근 동문 작고로 모임을 가질 경우 가족에게 공사발전기금 기부를 통해 고인의 이름으로 공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군사관학교 럭비 OB 홍백회

2016년 8월 20-21일 강원도 영월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전국 생활체육 7인제 럭비대회에 27기 전원규 동문 등 11명이 참가하여 장년부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 전투비행대장 탄생



2017년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여성 전투비행대장이 탄생했다. 그녀의 벽을 허문 주인공은 16전투비행단 202전투비행대대 비행대장 박지연 소령(공사49기), 8전투비행단 203전투비행대대 비행대장 박지원 소령(공사49기), 20전투비행단 123전투비행대대 비행대장 하정미 소령(공사50기) 3명으로, 이는 1997년 공사 여생도 최초 입학 21년, 2002년 여성 전투조종사가 처음 탄생한 지 15년 만이다.

이번에 전투비행대장에 보임된 주인공 3명의 면면도 화려하다. 1997년 공군사관학교 최초의 여생도로 입학한 박지연 소령과 박지원 소령은 2002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전투조종사'가 됐으며, 특히 박지연 소령은 2007년 '여성 첫 전투기 편대장'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하정미 소령은 2007년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을 조종하는 최초의 여성 전투조종사가 되어 화제가 됐다.

공군은 2015년 1월 최초의 여성 패트리엇 포대장, 같은 해 12월 첫 여성 수송기 비행대장에 이어 이번에 최초의 여성 전투비행대장 3명을 탄생시키며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최일선에서도 여군들의 활동 폭을 넓혀나가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 블랙이글스 형제 조종사 탄생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형제 조종사가 탄생하였다. 화제의 주인공은 강성현 소령(공사53기)과 강성용 대위(공사56기) 형제다.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들 형제는 어린 시절부터 제주도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조종사의 꿈을 함께 키웠고,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하면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갔다.

먼저 꿈을 이룬 것은 형 강성현 소령으로 2005년 임관한 강소령은 2014년 5월부터 블랙이글스 특수비행 임무를 수행하며, 지난해 2월 싱가포르 에어쇼에 참가하기도 했다. 형에 이어 2008년 임관한 동생 강성용 대위는 2017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블랙이

글스 조종사로서 임무를 수행, 3월에 실시된 2017 말레이시아 에어쇼에 참가했다.

아쉽게도 형 강소령이 2월 블랙이글스 조종사로서의 임무를 마쳐 형제가 함께 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형 강성현 소령은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라면 누구나 꿈꾸는 블랙이글스에서 동생과 함께 팀원이 되어 비행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가슴이 벅차다"고 말했으며, 동생 강성용 대위는 "공군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이곳에서 형의 뒤를 이어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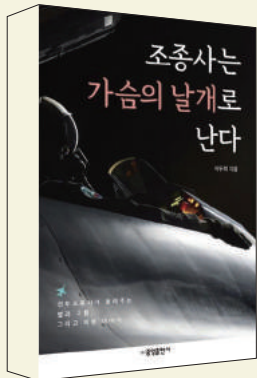


동북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이종학(37기) 저,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이종학 서라벌군사연구소장이 미수(88세)를 맞아 그동안 자신의 연구 성과와 군인·학자로서의 인생을 정리한 단행본을 내놨다.

1부 '동북아시아의 전쟁과 평화'에서는 이 소장이 평생 군사학을 연구한 동기와 평화적 남북통일에 대한 제안, 한민족의 생존전략, 한-일·한-중의 미래관계에 대한 단상,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해 정리했다. 2부 '군사사학으로 본 역사 산책'에서는 여러 분야를 두루 훑는다. 광개토왕 비문의 '왜(倭)' 연구부터 6·25전쟁의 역사적 고찰과 교훈, 초기 공군사까지 폭넓은 분야에 심도 있는 관심을 보여준다. 3부에서는 대학교육과 국방에 대한 이 소장의 의견을, 4부에서는 군사학도로서 한평생을 보낸 이 소장의 학문과 인생을 살펴볼 수 있다. 5부에는 일본에서 발표했던 논문과 세미나 발표 요약문이 일본어 원문으로 실려 있다.



조종사는 가슴의 날개로 난다

이두희(29기) 저, 중앙출판사

이두희 공군사관학교 비행교수가 37년간의 조종사 생활에서 느꼈던 점을 잔잔한 필치로 정리한 책을 내놨다.

책은 회고록이라기보다 하늘을 날며 임무를 수행하면서 깨달은 삶의 아포리즘(깊은 체험적 진리를 간결하고 압축된 형식으로 나타낸 짧은 글)을 담은 수필집에 가깝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이 책은 조종사로서 걸어온 나의 삶과 내가 추구했던 정신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로 지난 8년간 공사 생도들과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는 입문 과정의 학생 조종사들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들이기도 하다"면서 "이 책을 통해 후배 조종사들이 자랑스러운 wings 왼쪽 가슴에 달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은 물론 조종사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하늘에 대한 동경과 공금증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항공 징비록

김덕수 저, 21세기북스

올해 91세가 되는 대한민국 공군 창설 멤버이자 전 공군참모총장인 전쟁 영웅 김두만 공군 대장의 생생한 역사적 증언과 감동의 휴먼 드라마를 김덕수 현 공주대학교 사범대 교수가 대담 형식으로 담담아낸 도서가 출간되었다.

대한민국 1세대 항공인의 헌신과 노고를 담은 『항공 징비록』은 김두만 장군의 인생을 다룬 개인적 평전을 넘어서 우리 근현대사 속에서 공군이 이뤄낸 역할과 의미까지 아우른다. 또한 1927년 일제 강점기 조선에서 태어나 소년병을 거쳐 22년 동안 전투 현장을 떠나지 않은 강골무장의 삶을 객관적으로 기록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와 공군사를 풍부한 자료와 함께 입체적으로 담아낸 통사다.

14개월 동안 2주에 한 번꼴로 김두만 장군을 직접 만나 증언을 기록한 김덕수 저자는 한 번 인터뷰할 때마다 4~5시간을 꽉 채우는 등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 A4 500여 장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쌓았다. 그 자료는 기존의 공군 정사는 물론이고 6.25 참전 조종사들의 증언록과 하나하나 대조한 뒤 역사학계 전문가와 공군역사기록관리단의 철저한 검토까지 거쳐 한 권의 책으로 묶였다. 김두만 장군의 개인 사진첩, 공군 본부, 공군역사기록관리단에서 뽑아낸 귀한 사진 자료까지 풍부하게 실어 김두만 장군의 증언과 김덕수 저자의 설명이 보다 생생하게 전달되도록 구성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공군의 의미와 영향을 제대로 짚어보고 조국 영공 수호에 헌신한 1세대 공군인들의 투혼을 녹여낸 『항공 징비록』은 대한민국 공군 역사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더 풍성한 공군 역사 콘텐츠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다.

공군사관학교 입시제도 소개

공군사관학교 평가관리실

공군사관학교(이하 '공사') 입시제도는 정부의 교육정책과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지속하여 개선되었다. 대표적인 변화는 1997년 삼군사관학교 최초로 여생도를 선발한 것으로, 정부가 여성 인력의 적극적인 사회진출을 추진한 것을 계기로 공사가 모집정원의 10% 이내에서 여생도를 선발한 것이다. 이는 다른 사관학교에도 영향을 주어, 육·해사에서도 여생도를 선발하였다. 공사 출신 여군 장교는 조종 분야를 비롯하여 공군의 전문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2003년 최초로 여군 조종사를 배출한 이래, 2016년에는 여군 조종사가 비행 대장으로 보임되었다. 공사의 여생도 선발은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려는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커다란 변화는 2014학년도(66기) 신입생 선발에서 굴절교정술 적합 검사의 도입이었다. 다년간의 연구와 시험 적용의 성공으로 굴절교정술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공사에 지원 가능한 수험생들의 모집단이 대폭 확대되었다.

[표 1] 최근 5년간 공사 지원 경쟁률

구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경쟁률	25.7 : 1	36.8 : 1	25.6 : 1	32.0 : 1	39.0 : 1

이는 나안시력 0.5 미만의 학생들에게도 공사 입학 문호를 확대한 것으로, 굴절교정술 수술에 적합한 경우 조종 분야 응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시력으로 인해 입학할 수 없었던 수많은 젊은이에게 하늘에의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었다. 그 결과 2014학년도(66기) 공사 지원 경쟁률은 당시 최고 경쟁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공사 지원 가능 수험생의 모집단 확대로 조종 분야 지원자의 성적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2017학년도(69기)부터는 모집인원 전체를 조종 분야로 배정하였다. 또한, 우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 수시로 전원 선발하였다. 이러한 수시 선발을 전면 시행한 것은 수시 선발로 입학한 생도들이 기초군사훈련 적응능력이 뛰어나고 입학 포기율이 낮았으며, 입학 후에도 학과 수업과 생활·훈련분야에서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올해는 더욱 질적인 차원에서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였다. 지역과 소득의 차이를 고려하여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에게 공사의 입학 문호를 확대하였다. 교육의 기회 균등 부여 차원에서 지역과 소득의 차이를 고려한 것이다. 일반대학에서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 농·어촌 지역전형은 1996년부터, 저소득 계층전형은 2008년부터 시행했다. 특히 경찰대학교는 2014년부터 모집정원의 10%를 선발하고 있으며, 입학 이후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속 시행하고 있다. 정부 또한 올해 대입정책에서 '고른기회특별전형'확대를 중점 분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공사도 정부의 정책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고른기회특별전형'을 도입하게 되었다.

'고른기회특별전형'은 삼군사관학교 중 공군사관학교에서 최초로 시행하며, 농·어촌 지역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출신을 각각 5명씩 선발한



1차 시험



2차 시험

다. 농·어촌 지역전형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지원할 수 있다. 고교별 추천 인원은 2명 이내로 제한된다. 지원자격 유형은 2가지로서, 지원자와 부모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 중·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지원자 본인이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로 구분된다. 저소득 계층 학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독립유공자(외)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의 합격 가능성을 높였다. 독립유공자(외)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 특별전형은 2003학년도(57기)부터 시행했으나, 1차 선발시험(국어·영어·수학 필기시험)의 합격 기준을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전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올해 선발 전형에서는 1차 선발 시험 합격 기준을 일반전형 모집인원 대비 150% 수준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1차 시험 가산점을 응시자의 상위 11%에게만 부여하던 것을 합격자 전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수험생은 자신의 1차 시험 성적에 따른 환산점수가 최종 선발 종합성적 산출 시 반영된다.

올해 제70기 공군사관생도 선발 일정은 다음과 같다.

공사를 입학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국어·영어·수학의 1차 필기시험이다. 1차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인성과 체력을 갖추고 있어도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수험생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이기도 하다. 1차 시험은 전국 15개 시험장에서 실시하며, 특히 '고른기회특별전형'신설로 작년 대비 홍성, 안동, 진주에 시험장을 추가하였다. 1차 시험 문제는 육·해군사관학교와 공동으로 출제하며 당해 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범위와 동일하고 유형은 유사하다. 합격 인원은 전체 모집정원의 6배수 내외이며, 8월 8일에 합격자가 발표된다. 합격자 발표 시 예비합격자에게 예비번호가 부여되며, 1차 시험 합격자의 2차 시험 응시율에 따라 두 번의 추

[표 2] 2018학년도(70기) 선발 일정표

구분	모집정원	원서접수	1차시험	2차시험	최종선발
일정	-	6. 23.~7. 3. (11일간)	7. 29.(토) (전국 15개 시험장)	8. 21.~9. 29. (개인별 1박2일)	10. 27.(금) (합격자 발표)
내용	000명 남자 90% (인문 45%, 자연 55%) 여자 10% (인문 50%, 자연 50%)	공군사관학교 홈페이지	필기시험 국어/영어/수학 합격인원 전체 모집정원의 6배수 내외 * 합격자발표 : 8. 8.(화) * 추가합격자 발표 : 1차) 8.22.(화) 2차) 9. 1.(금)	전형요소 - 신체검사(합/불) - 체력검정(30점) - 면접(80점) - 역사·안보관 논술(10점)	전형요소 - 1차시험 30점 - 2차시험 120점 - 학생부 100점 - 한국사 가산점 10점 특별전형 - 여학우수자(5명이내) - 재외국민자녀(2명이내) - 유공자 자녀(3명이내) - 고른기회(10명이내)

[표 3] 최근 3년간 공사 1차 시험 합격자 평균성적(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구 분	남자 인문	남자 자연	여자 인문	여자 자연
2017학년도	267	271	265	265
2016학년도	267	259	262	251
2015학년도	259	264	269	273

가합격이 진행될 예정이다.

2차 시험은 신체검사, 면접, 체력검정, 역사·안보관 논술로 구성되며, 1박 2일 동안 공군사관학교에서 실시한다. 1일차에 신체검사를 하며 당일 합격/불합격이 판정된다. 면접은 성격, 가치관, 희생정신, 역사·안보관, 학교생활, 자기소개, 가정·성장환경, 지원동기, 용모·태도에 대해 평가한다. 체력검정은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오래달리기(남자 1,500m/여자 1,200m)의 4개 종목에 대해 평가한다. 오래달리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거나, 총점 15점 미만인 경우, 또는 4개 종목 중 최하위 등급이 3개 종목 이상인 경우 불합격될 수 있다. 역사·안보관 논술은 우리나라 역사와 국가안보 관련 지문을 읽고 그에 대한 수험생의 견해를 논술하는 것으로, 30분 이내로 1문제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2차 시험의 모든 요소가 중요하지만, 배점 비중과 영향도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이다. 군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호국 간성을 길러내는 사관학교는 인성과 책임감과 같은 기본 자질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면접은 준비를 잘한다고 해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아니다. 면접 시에는 당당하고 분명한 태도를 갖추고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표 4] 종합성적(일반전형 기준)

구 분	1차 시험	2차 시험			학교생활기록부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가산점	합계
		면접	체력 검정	역사·안보관 논술			
점수	30점	80점	30점	10점	100점	10점	260점

* 전형별 세부내용은 공군사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의 '모집요강' 참조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졸업생은 3학년 2학기) 국어·영어·수학·사회(인문계열)/과학(자연계열) 관련 교과목의 전 이수 과목 성적이 반영된다. 등급 간 점수 차이는 2점으로 최고점은 100점, 최저점은 84점이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 고교 1년 이상 수학자는 최종 선발 대상자 중 1차 시험 성적 동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의 평균 성적이 반영된다.

최종 선발은 1차 시험, 2차 시험, 학교생활기록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점 성적을 합산하여 2차 시험 합격자 중 모집단위별 종합성적순으로 선발한다.

공군사관학교는 국가 안보의 핵심 전력인 공군의 정예장교를 양성하는 곳이므로,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 올바른 인성, 강인한 체력을 겸비한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변호사 **고민삼** (법무9기)

고유공동법률사무소는 “Go to You”를 모토로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부산지방항공청 행정처분사건 심사위원, 부산본부세관 징계위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 부산본부세관·부산청년연합회·부산은행 노동조합·부산영양사협회 고문변호사로서 봉사하면서 “크고 강한 공군”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1110호
 전화: 051)506-9988 팩스: 051)506-9320

하늘로 우주로
 더욱 다가가겠습니다.



육·해·공군 현역/예비역 우대
 (일반인 예식 가능)

공군회관 웨딩홀

 **02.844.0336**



제24차년도 운영결과 보고



회칙 제4장 제12~15조에 의거 제24차년도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를 6월 21일 공군회관에서 개최하였다. 17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4차년도 업무를 결산하고,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동창회를 맡아서 일할 제25차년도 회장단을 선출한 후 만찬을 즐기면서 회원 간의 친교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보고 된 지난 일년간의 총동창회 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회무 보고

회원현황

- 임관 총 인원 : 9,897명
- 현재 인원 : 9,046명
- 예비역 인원 : 4,884명

적립기금(평생회비) 현황

구분	금액	비고
기금 인수	902,971,877	23차년도
24차년도 적립	160,601,762	평생회비: 149,525,000 이자수입: 11,076,762
적립 총액	1,063,573,639	

총동창회 알림

- 정기총회
- 회비 납부 안내
- 평생회비 납부 현황
- 공군사관학교 발전기금 현황
- 전역자 현황
- 각 기생회 임원 현황
- 편집후기/기고안내

24차년도 운영중점

‘회원 상호간 친목과 상부상조 및 모교 발전에 기여’

1. 친목 도모를 위한 기존사업 내실있게 추진
2. 다양한 교류와 소통으로 총동창회 발전 도모
3. 전 동문의 자발적 참여 및 자긍심 고취
4. 모교 및 공군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주요 추진사업 현황

1. 부대 격려 방문
 - 가. 상급부대 : 공군본부, 공군사관학교
 - 나. 전방부대 : 제537방공유도탄포대, 제3방공관제대
 - 다. 격려금 전달 및 총동창회 현황소개, 현역 회원들의 적극 참여 유도

2. 성무인 가을축제 (흙커밍 행사)
 - 가. 일시 : '16. 11. 4 (금)
 - 나. 공사 성무제 기간 중 전 동문 참여 축제
 - 다. 주요행사 : 성무의식 (열병분열, 에어쇼 등)
생도 격려품, 공사 발전기금 전달

3. 총동창회 졸업 및 임관 기념행사
 - 가. 일시 : '17. 5. 27 (토)
 - 나. 참가대상 : 15기 (50주년), 25기(40주년), 35기(30주년),
45기(20주년), 55기(10주년)
동문 및 가족 등 약 1,000여명
 - 다. 주요행사 : 1부 행사 - 사관학교 계획에 의거
2부 행사 - 15기 자체행사 지원
 - 라. 모교 발전기금 전달 : 총 1억 3천 4백만원

4. 65기 사관 졸업식 행사 지원
 - 가. 총동창회장상 (성무보라매상) 수여 ('17. 2. 24) : 소위 이현
 - 나. 전 졸업생도 졸업선물 증정 ('17. 1. 24)

5. 순직조종사부인회 초청 위로행사
 - 가. 일시 및 장소 : '16. 12. 2 (수) / 공군회관
 - 나. 참석 : 순조회 회원 / 총동창회 임원 등 50여명

6. 친목 행사
 - 가. 등산대회
 - 서울대공원 ('17. 5. 17) : 220명 참석
 - 나. 바둑대회
 - 공군회관 ('16. 11. 8) : 60명 참석
 - 개인전, 단체전, 다면기 대국

7. 총동창회 네트워크 강화 및 홍보 활동
 - 가. 총동창회장 졸업생도(65기) 특강 ('17. 1. 24)
 - 나. 역대 회장, 사무총장 간담회 ('16. 9. 7)
 - 다. 선배 이사기수 임원 간담회 ('16. 9. 21)
 - 라. 후배 이사기수 임원 간담회 ('16. 9. 27)
 - 마. 현역 후배 간담회 (부대 방문시)
 - 바. 기타 간담회 (수시)
 - 사. 각 기생임원 대상 총동창회 서신 발송 (수시)

8. 조문활동
 - 가. 회원 및 배우자, 직계 사망시
 - 홈페이지 애경사 게시판 공지
 - SMS 전파 (회원 및 배우자 사망시, 상하 10개 기수)
 - 조기를 통한 조문 (114회)

9. 공군·모교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
 - 가. 하늘사랑 장학재단 장학기금 전달 (1,000만원)
 - 나. 공군사관학교 발전기금 전달 (1,000만원)
 - 다.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공군 주요 현안 적극 홍보

평생회비 납부 활성화 결과 보고

1. 인수 당시 현황 ('16. 6월말 기준)

- 가. 적립기금 : 9억 297만원 (평생회비+이자수익)
- 나. 매년 평균 3,500만원 수준 적립 (회비2,000만원+이자1,500만원)
- 다. 23차년도 : 1억 3천만원 확보 (29, 30, 31, 61, 62기 완납)
- 라. 1~31기 완납, 32기 이후 5,435명 미납 (미납 총액 10억 9천만원)

2. 추진 계획

- 가. 32~34기(50%이상 납부 이사기수) : 2017년 6월까지 완납 목표
- 나. 35~60기 : 향후 4년내 완납 추진 (매년 20% 분납가능, 기생별 약정)
- 다. 62기, 64기 : 2년 내 완납
- 라. 65기 : 졸업 시 완납 추진
- ※ 수시 독려 활동 전개

3. 추진 결과

- 가. 32, 33, 34, 59, 65기 완납, 57기 155명 납부 (총 1억 920만원)
- 나. 기타 기수 : 개인별 납부 중 (총 4,000만원)
- 다. 납부 총액 : 1억 6,000만원
- 라. 65기 졸업과 동시 납부 선례, 전통으로 정착 기대

기금 적립 : 9억 → 10억 6천 (+1.6억)

[향후 3년 이내 모두 완납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의결 안건

- 안건 1. 24차년도 적립기금 결산 : '적립기금(평생회비) 현황'참조
- 안건 2. 25차년도 이사기수 의결 : '기별 분담금 납부안내'참조
- 안건 3. 25차년도 임원선출 : 총동창회 소식 '정기총회'참조

운영금 현황

운영금 조성

(단위 : 만원)

항 목	계 획	실 적	비 고
24기 찬조	9,000	9,000	
기별 분담금	1,580	1,580	16~44기 이사기수
회원/특별 찬조금	700	824	
광고비	3,000	4,000	
이월 운영금	200	200	
총 계	14,480	15,604	

회원/특별찬조

(단위 : 만원)

성 명	금 액	성 명	금 액
공군참모총장	600	이계훈 (23기)	100
김준수 (7기)	30	김용주 (47기)	24
윤자중 (17기)	20	천영성 (17기)	10
최홍선 (57기)	10	정지수 (11기)	10
심인태 (30기)	10	전공상유공자회	10
박봉관 (33기)	100 (총동창회 기금으로 적립)		

후원

24기생회	사무용 비품
-------	--------



평생회비 납부 안내

평생 회비 입금 계좌

우리은행 319-239049-01-001
예금주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평생회비란?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적립기금으로 회원 전원이 평생에 한 번 분담하는 회비로서 일인당 200,000원입니다.

현재 거출하고 있는 평생회비는 매년 총동창회 운영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적립기금의 이자로 총동창회를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원금 및 이자까지 은행에 계속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총동창회 연간 운영경비는 기별분담금, 찬조금, 광고비, 운영기수 찬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대부분 운영기수 찬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영기수가 되면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먼 후배 기수를 위하여 선배 기수들이 감수하고 있는 현실임을 이해하고 미납회원은 평생회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요망합니다.

기별 분담금 납부 안내

기별 분담금 입금 계좌

국민은행 650701-01-388727
예금주 : 김영근 (사무총장)

기별 분담금이란?

매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총동창회 운영경비의 일부를 일정액 분담하여 지원하는 당연직 이사기수 연회비로서 운영기수를 기준으로 선배 8개 기수(17~24기)는 40만원씩, 운영기수를 포함하여 후배 21개 기수(25~45기)는 60만원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제25차년도 운영기수는 25기로 이사기수는 17기~45기입니다.

본 회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기별 분담금은 총동창회 운영이 시작되는 매년 7월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회비 완납기수

1~34기, 59기, 61기, 63기, 65기 완납

24차년도 평생회비 납부자 현황

기간 : '16.07.01~'17.06.30

기수	현재 인원	납부 인원	미납 인원	납부자명단
32	164	164	0	강태군, 강태원, 권창률, 김강길, 김경수, 김규석, 김병욱, 김성환, 김승구, 김승표, 김용대, 김태식, 김태욱, 김형래, 김홍섭, 나석진, 남원식, 남정호, 노상기, 노혜균, 류석오, 박동주, 박상웅, 박원박장희, 박재엽, 박정대, 박정호, 박정희, 박종범, 박종욱, 박종호, 박종근, 방장규, 배정곤, 서경한, 서락원, 서흥모, 송영신, 송팔성, 심재성, 심화식, 안기룡, 엄경원, 염기천, 윤금산, 이명규, 이상복, 이승태, 이 용, 이용길, 이재용, 이창호, 이현수, 이호석, 전건욱, 전의홍, 정경수, 정동표, 정병주, 정윤창, 정현택, 지형근, 최성태, 최세현, 최영화, 최우열, 최재승, 최종림, 최종조, 편일범, 함세훈, 황귀남, 황선태
33	171	171	0	강진석, 고승철, 고윤범, 곽영래, 곽은석, 권재원, 권태욱, 김기수, 김명한, 김봉준, 김상복, 김영관, 김영권, 김원곤, 김윤태, 김윤희, 김이두, 김재오, 김재호, 김주환, 김지원, 김창래, 김철수, 김충겸, 김태원, 김평열, 김홍섭, 나병엽, 남한식, 류춘득, 민병주, 박길수, 박명호, 박봉관, 박순영, 박종삼, 백종찬, 서일석, 손용기, 송명철, 송영훈, 송현식, 신호승, 엄기성, 오두원, 왕정민, 원형건, 유충렬, 유형준, 윤삼구, 윤중원, 이근홍, 이기욱, 이기찬, 이남식, 이상문, 이세현, 이영권, 이영준, 이용희, 이용화, 이종원, 이찬홍, 이현기, 이형규, 이희찬, 임용호, 임창근, 임형태, 장동석, 장세현, 장종호, 정광진, 정문수, 정연수, 정용학, 조성산, 조창현, 차주성, 최대호, 최인성, 최장민, 하진덕, 한고희, 한상오, 허 순, 홍익표, 홍창의, 황경구
34	163	163	0	강병환, 강호균, 권순민, 김건식, 김광석, 김상수, 김성관, 김성훈, 김승환, 김용환, 김인태, 김중수, 김창렬, 김중국, 김희철, 박배호, 박석수, 박원서, 박제균, 선문영, 손성래, 손영진, 유재림, 윤봉구, 윤여복, 윤종오, 음승수, 이건성, 이병래, 이봉구, 이용재, 이윤병, 이재현, 이찬규, 이창우, 이호석, 임기억, 장윤익, 정광수, 정기성, 정동준, 최광영, 최주만, 표태훈, 한경용, 홍석권

35	249	44	205	김환중, 오준영, 이건승, 이봉우, 이재길, 장기홍, 장상윤, 정상채, 정연우, 조영식, 차호선, 최석인, 태명철, 한수익, 홍순실
36	263	27	236	이수복, 조덕구
37	255	66	189	김경의, 송영근, 최종택
38	238	51	187	김기영, 김기준, 김봉주, 김봉희, 김승호, 김완룡, 김일규, 김형오, 노은우, 류시영, 박경환, 박삼영, 박상목, 박창규, 성상택, 손인호, 송익상, 송환진, 신명섭, 여호승, 윤병호, 이기석, 이동원, 이원범, 임종표, 정위석, 최재혁, 홍순택, 홍준표, (故 오충현)
39	223	15	208	40 241 20 221 김성민
41	241	8	233	류진산 42 277 29 248
43	271	26	245	구상모, 김정수, 김택, 남보현, 류강원, 박상현, 박수라, 성기모, 이경영, 이경호, 이성진, 정재식, 정창욱, 최원진, 추교진, 표현상
44	221	10	211	45 220 20 200
46	227	3	224	최철호 47 201 4 117
48	192	105	87	49 200 3 197
50	193	4	189	51 203 2 201 김태연
52	202	1	202	53 211 3 208
54	192	0	192	55 186 2 184 염지운, 이영철
56	155	2	153	권기호 58 134 0 134
57	157	155	2	강윤호, 강종형, 강주완, 강태훈, 고영재, 구자훈, 금민석, 김남규, 김남수, 김남영, 김대호, 김민석, 김병석, 김상혁, 김상협, 김선경, 김선형, 김성윤, 김성호, 김승현, 김애리, 김완규, 김우익, 김윤태, 김은수, 김의중, 김재동, 김정도, 김정한, 김주영, 김주영, 김준성, 김태성, 김태우, 김태준, 김태형, 김현승, 김형대, 김혜미, 김홍태, 나순권, 나종현, 남상범, 남현수, 노승훈, 노종부, 노홍수, 박철, 박민호, 박상수, 박성준, 박성필, 박세진, 박세휘, 박수민, 박원주, 박유민, 박정혜, 박주한, 박준형, 박찬일, 배영진, 백창훈, 서용근, 서우형, 송민수, 송성욱, 신상춘, 신소영, 신정훈, 신호인, 안병수, 안종찬, 안준용, 안찬식, 양기훈, 양선열, 여명환, 여성현, 연도형, 오연철, 오원재, 오치목, 오현진, 유승호, 윤동민, 윤재길, 윤지훈, 이완, 이경열, 이경준, 이기문, 이대원, 이동훈, 이명재, 이민혁, 이상익, 이성훈, 이세리, 이소영, 이승규, 이승준, 이승철, 이영재, 이영철, 이영형, 이용길, 이우영, 이재호, 이정훈, 이준범, 이지민, 이진혁, 이진호, 이철수, 이태호, 이항진, 이호정, 이효원, 이희천, 임지선, 장관, 장관석, 장동민, 장명환, 장상기, 장태권, 정다정, 정상현, 정영재, 정인식, 정준영, 정해민, 정현철, 조우진, 조우철, 조윤철, 조재범, 조준희, 진해중, 최금록, 최미나, 최선아, 최슬기, 최승욱, 최형일, 추미정, 한재선, 허상영, 허윤철, 홍성인, 홍호균, 황두환, 황만기, 황성원

59	137	137	0	강명진, 강문희, 강성원, 강원석, 강현동, 고혜준, 구정환, 권영일, 김경원, 김기연, 김대규, 김대룡, 김덕수, 김동규, 김동준, 김민철, 김민현, 김병식, 김상범, 김성석, 김시현, 김신석, 김영범, 김영빈, 김임준, 김지은, 김창섭, 김태완, 김태준, 김태호, 김태훈, 김형진, 남광식, 남연진, 노제경, 류경필, 류지환, 류한석, 문승형, 박기대, 박동석, 박란, 박성태, 박여름, 박제홍, 박종덕, 박종혁, 박준규, 박현주, 박형우, 박희정, 배준오, 백승우, 사근중, 서영도, 서원형, 선유림, 성하정, 손병호, 송민석, 송주영, 송태중, 신기호, 신윤철, 신현명, 신현호, 안은혜, 안재환, 안준용, 안지훈, 안홍주, 오도현, 오만수, 오병준, 오세현, 오승철, 오정민, 오주호, 오지혁, 원도연, 원종식, 유명호, 유윤호, 유진호, 유혜리, 윤재후, 이규녕, 이금강, 이길호, 이상민, 이상범, 이상철, 이수형, 이영준, 이우호, 이재민, 이정우, 이준, 이진호, 이태훈, 이항노, 이희수, 임강혁, 임성천, 장관, 장기왕, 장정훈, 장창우, 전동중, 전병준, 전준배, 정상원, 정서인, 정성우, 정예찬, 정재열, 정혜윤, 조수현, 조일현, 조훈희, 차규식, 차호준, 최선규, 최영욱, 최우석, 최인준, 최준혁, 최지용, 최창은, 최필영, 최한샘, 최홍렬, 하창무, 한재석, 홍창화, 황경록
60	148	1	147	62 145 0 145
64	160	50	110	1,000만원 부분 납부 (2년 내 완납 예정)
65	153	153	0	강성찬, 강지원, 고병우, 권순욱, 권재환, 김경훈, 김관수, 김규철, 김대영, 김민기, 김민석, 김민재, 김범석, 김범수, 김성우, 김승욱, 김승준, 김용성, 김원찬, 김이든, 김인권, 김재운, 김정길, 김정태, 김준환, 김지호, 김지훈, 김진균, 김진수, 김채원, 김태완, 김태호, 김현수, 김현일, 나영중, 남재역, 노민철, 노지수, 노창준, 라현승, 류영근, 문지빈, 민철준, 박규현, 박기현, 박민석, 박범준, 박병열, 박영근, 박재석, 박정규, 박주석, 박지호, 박창윤, 박희건, 백승우, 백진욱, 변재준, 서승희, 서원영, 성경진, 송동재, 송병섭, 송시환, 송은지, 송태현, 송한솔, 신진태, 신희우, 심희석, 안정호, 안진홍, 양성연, 어성태, 오민석, 오세중, 오수비, 왕원호, 원동환, 위대한, 유동연, 유현석, 유규청, 윤동준, 윤서희, 윤철수, 이경한, 이계택, 이근홍, 이다경, 이다운, 이상혁, 이상현, 이선광, 이선규, 이성민, 이소라, 이승환, 이장혁, 이재우, 이재형, 이종연, 이종원, 이종한, 이철, 이현, 이현중, 이홍현, 이효원, 임우선, 장정윤, 전승민, 전유환, 전찬호, 전혁진, 정연우, 정유진, 정윤교, 정윤상, 정중선, 정지아, 정지원, 정현진, 정희태, 조성민, 조용남, 조원태, 조정익, 조찬용, 조찬우, 조현덕, 조현장, 조훈목, 진정민, 채민성, 최선익, 최승완, 최원창, 최정용, 최준환, 하성욱, 한선중, 한승태, 한지웅, 홍건웅, 홍현찬, 황건, 황윤성, 황인태, 황하진
합	현재인원 : 9,088	납부인원 : 4,264	미납인원 : 4,824	

* 입금명 '공사총동창회비'(12.7.27)로 납부하신 회원께서는 기수와 성명을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자 현황

(2016. 6. 30 이전)

기수	납부자명단
32	권혁철, 구자열, 김동수, 김석운, 김성수, 김성재, 김성환, 김연환, 김영권, 김영기, 김영수, 김용진, 김우근, 김장욱, 김정룡, 김재구, 김진식, 김진호, 김창길, 김창석, 김창훈, 김충원, 김태승, 김현곤, 김형식, 남동우, 문정주, 문채봉, 박대홍, 박동성, 박동창, 박세권, 박승룡, 박준수, 박지업, 박천신, 박호영, 부성철, 손형규, 송기표, 송인수, 송재윤, 신영호, 신익현, 심부수, 심정용, 안상훈, 양용규, 원인철, 윤석준, 윤영배, 이건섭, 이권완, 이광준, 이동호, 이문수, 이성우, 이성형, 이일하, 이재웅, 이재환, 이정대, 이종선, 이준행, 이창훈, 이창희, 이한균, 이형걸, 임상섭, 장화용, 전종일, 전진문, 정광선, 정만해, 정영식, 정찬홍, 조용호, 조준로, 천상필, 최원기, 최인영, 최재동, 최재영, 최환중, 탄명훈, 하성룡, 허창희, 황영하, 황인우, 황지홍
33	고성필, 공평원, 권태진, 국 진, 김규순, 김대기, 김동수, 김동욱, 김병삼, 김상규, 김상훈, 김석빈, 김수태, 김순길, 김영진, 김유정, 김유현, 김재권, 김정태, 김조진, 김종도, 김형곤, 남해룡, 노준갑, 노청래, 박광필, 박삼남, 박이창, 박성용, 박수철, 박진용, 박찬혁, 배진민, 백호달, 송경선, 송택환, 신동주, 신용인, 신윤홍, 신한균, 심동섭, 오창규, 오홍재, 유준중, 윤병훈, 윤왕준, 윤준로, 위강복, 이광수, 이병권, 이병우, 이상화, 이성우, 이경재, 이동교, 이재광, 이재홍, 임경수, 장경식, 장경식, 장병노, 장석철, 전용성, 정남진, 정석주, 정영진, 정영철, 정희주, 조광재, 조상용, 조성호, 최근영, 최병호, 최용섭, 최현국, 추상재, 한상균, 한태웅, 허우무, 황성진, 황창수, 홍재기
34	감수봉, 강병철, 강우석, 고광준, 고성경, 김대중, 김성식, 김승수, 김신욱, 김연호, 김영림, 김영표, 김용복, 김용희, 김일웅, 김재범, 김재철, 김정열, 김종규, 김종모, 김종명, 김중범, 김진성, 김진우, 김태재, 김학근, 김학준, 김현수, 김형호, 김 훈, 노승환, 당병규, 류제홍, 박기곤, 박상로, 박 익, 박장수, 박중용, 박중석, 박진형, 박찬형, 박홍식, 배중빈, 백윤형, 서중대, 서희창, 손 경, 송광혁, 송만섭, 송병무, 송중근, 신규철, 심상현, 심재관, 안상철, 안선환, 양재승, 양희중, 오명석, 오승원, 오종찬, 유방우, 윤기철, 윤진철, 윤태준, 이권표, 이근철, 이두원, 이상묘, 이성렬, 이성용, 이성호, 이성희, 이수근, 이수근, 이인석, 이인영, 이재소, 이재한, 이정근, 이종원, 이 청, 이해원, 이희찬, 임도한, 임삼규, 임상수, 임수훈, 임 원, 장기주, 장명수, 장보현, 정병학, 정상길, 정영용, 정찬기, 정찬영, 정창재, 정택근, 조성인, 조현상, 조현출, 조희대, 차선암, 차용재, 차윤근, 최관수, 최상수, 최창식, 최재훈, 최중문, 편완주, 한재수, 한중호, 홍승호, 황치원, 허남희
35	강규식, 강성구, 강정운, 강효석, 강 훈, 권기환, 김부국, 김종은, 김준식, 류영관, 민태기, 서완석, 손환주, 송태섭, 신형철, 엄태화, 온용섭, 유진협, 윤재룡, 이강래, 이동규, 이성룡, 이영배, 이장룡, 이지원, 임채현, 정수성, 조철희, 최병오
36	김남돈, 김보현, 김성규, 김원수, 김응문, 김진우, 김하성, 나문관, 박대광, 박문덕, 박영준, 박종국, 박홍식, 백은성, 오형식, 윤성모, 이강택, 이수성, 이준모, 임이철, 전재용, 정상화, 최성천, 최혁준, 황선남
37	감명식, 강동우, 강봉수, 강순부, 고영록, 곽영상, 구관모, 권오창, 기균도, 기노신, 김복재, 김시철, 김신곤, 김연규, 김정윤, 김종길, 김중환, 김주영, 김준식, 김호동, 나은일, 박상균, 박성률, 박영민, 박찬덕, 박창식, 박학식, 방광선, 배순욱, 서민우, 서석민, 손해용, 송상윤, 신명철, 신현만, 심재호, 오상진, 오승훈, 오재일, 우경준, 윤재훈, 윤택명, 이강희, 이경봉, 이규환, 이동훈, 이두형, 이성희, 이승현, 이용호, 이종호, 이준혁, 이재섭, 임종필, 장경근, 정낙현, 정태성, 지용해, 진광호, 최기명, 최민호, 최윤근, 황 승
38	강재성, 공도현, 구도윤, 김정태, 김성준, 김용운, 박중환, 방정열, 성규철, 신보현, 심재환, 우태하, 윤보정, 윤상보, 이동기, 이동민, 이수만, 이정호, 장창열, 차재훈, 최정현

39	강진구, 권성범, 김순태, 김용희, 김재권, 김정훈, 이재욱, 이창수, 임정구, 임종택, 최정모, 최진원, 최한규, 허윤구, 홍봉선
40	강정현, 김문일, 김재형, 김종기, 김진일, 김현수, 박기태, 박찬근, 서철모, 손정국, 손정환, 이길주, 이도균, 이만우, 이봉세, 이선근, 이현희, 현준호, 황희철
41	김민호, 박종운, 송창희, 이진수, 임장석, 정진광, 주영진
42	강문중, 금기호, 김성덕, 김의택, 김창진, 김태우, 김현준, 민경욱, 박상진, 박세훈, 박윤철, 소상철, 신현규, 심대섭, 심대철, 온재섭, 윤성철, 이강녕, 이기영, 이범기, 이재재, 이지호, 이진수, 임유식, 장희준, 정우건, 천경덕, 최정욱, 한상형, 황수경
43	강현민, 고경덕, 김상진, 김용재, 박용석, 오동식, 이종원, 이종훈, 조진호, 주성규
44	김도현, 김상훈, 고준기, 권기범, 박세순, 박정수, 이강희, 이수훈, 이재욱, 이한기
45	강영운, 곽기훈, 금기호, 김범수, 김종수, 박도준, 선종규, 안영록, 엄성범, 윤혁중, 이규규, 이길영, 이인규, 정치영, 정한영, 정희두, 조총석, 채 원, 하동열, 황성연
46	양솔문, 장범산
47	김호룡, 신범수, 양경주, 이선복
48	강규영, 고관진, 고종진, 구민규, 구본곤, 구필현, 금규태, 길태원, 김강주, 김경민, 김구일, 김년수, 김덕중, 김만중, 김민진, 김범준, 김상준, 김선규, 김성진, 김승현, 김시문, 김인영, 김용숙, 김우현, 김재훈, 김주배, 김창민, 김철한, 김태호, 김홍석, 나정훈, 남택수, 문보연, 민병익, 박경준, 박정수, 박준영, 박찬역, 박한민, 박희수, 사재철, 소영섭, 손성진, 송영권, 송영민, 신 환, 신기영, 안상철, 안효훈, 양함주, 엄일용, 오상원, 원용창, 유 흥, 윤경식, 이광일, 이규동, 이기영, 이대연, 이동수, 이동훈, 이명선, 이무강, 이상준, 이석현, 이순재, 이우열, 이윤진, 이인호, 이정원, 이정훈, 이재영, 이종원, 이종훈, 이창용, 이창중, 이태승, 이형주, 이효성, 임병철, 임병호, 임수홍, 임은수, 임창순, 장균홍, 장성진, 전대만, 전찬삼, 정기만, 정인식, 정재훈, 조정흙, 조혁준, 채 석, 천영호, 최원석, 최규완, 최근수, 최성호A, 최성호B, 최영기, 최재호, 추광호, 한영중, 허석희, 홍문기
49	김선태, 이상현, 이수리, 정기웅
50	안성민, 양정환, 최성신
51	정진규
52	박인철
53	박주문, 문영섭, 최주영
56	이한준
60	이승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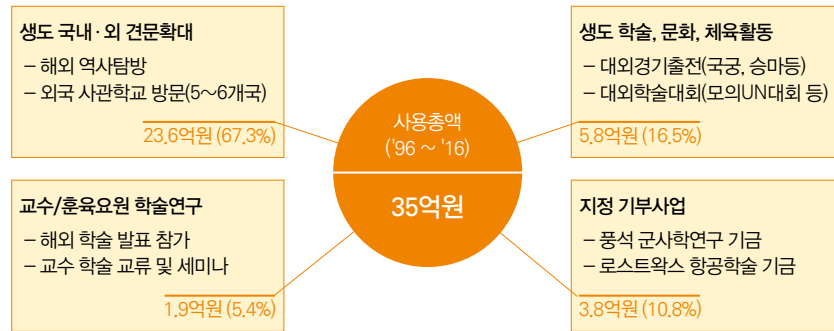
설립목적

생도 교육 및 학교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 국고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지원

발전기금 모금 현황

구분	금액	비고
기업 및 단체	46억원	(주)삼성테크윈 등 81개 단체
동문	36억원	학교 동문 3,600여명
학부모/후원자	4억원	학부모/후원자 등 430여명
합계	86억원	총 4,030명 81개 단체

발전기금 집행 현황



* 기금 원금은 영구 보존, 이자수입(1.89% ~ 4.00%)으로 사업 운영

기부자 예우

학교본부 기부자 현황(사진, 기부금액) 유지, 고액출연자 기금출연행사 등
연말소득공제 혜택 및 학교시설 우선 이용혜택(야외결혼식장 등)

참여안내

무통장입금 (예금주 : (재)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
국민은행 401-01-0662-701 / 농협 303-01-345036
우체국 300038-01-003768 / 기업은행 293-063303-01-011
문의전화 : 043-290-5716~7 / FAX : 043-290-0922

공군사관학교 발전에 도움을 주신 분들

[재]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
총 자산 86억원 ['17.6.28]

1억원 이상 (14)

삼성테크윈(주)(10억1천)	삼양화학공업(주)(7억3천1백)	(주)부영(6억)
대우중공업(주)(5억)	이중학(공사3.2억6천2백)	한국항공우주산업(주)(2억)
최동환(공사27.1억6천)	보잉코리아(1억2천6백)	공군사관학교학부모 모임(1억2천)
공사발전후원회(1억1천3백)	장지량(9대공참총장, 1억5백)	(주)메타바이오메드(1억1백)
한국로스트웍스(주)(1억)	(주)한라이엔씨(1억)	

5천만원 이상 (12)

록히드마틴 글로벌링크	(주)블루니어	손영길(육사11)	(주)원일인터내쇼날
51기 동기회	52기 동기회	53기 동기회	55기 동기회
56기 동기회	57기 동기회	58기 동기회	61기 동기회

1천만원 이상 (131)

강민수(공사9)	공군2사관학교 총동문화	(사)공군발전협회	공사총동창회	곽헌성(공군가족)
국민은행분평지점	국민카드	국제라이온스 협회충북지구	기업은행	김광순(공사9)
김규림(공사12)	김남돈(공군가족)	故김대욱(공사15)	김대중(역대대통령)	김덕훈(공사15)
김도영(공사1)	김무신(공사13)	김상태(공사2)	김상태(공사9)	김선도(광림교회목사)
김양수(공사13)	김영권(공사29)	김용찬(공사11)	김용철(공군가족)	김은기(공사22)
김재환(란스튜디오)	김주식(공사15)	김진수(공사31)	김진호(공사27)	김 현(공사14)
김홍래(공사10)	류조형(공사14)	(주)바이텍정보통신	故박덕희(공사12)	박영민(학사53)
박원석(학사2)	박종철(공사23)	박진숙(공사5)	박준택(공사12)	배양일(공사12)
보라매법당	서동열(공사4)	(주)서로윈	서정욱(학사37)	서진태(공사8)
故석영우(공사14)	소망교회	승진기술(주)	신동열(공사14)	신동윤(공사12)
(주)실리콘화일	안병철(공사13)	안병하(공사13)	안택순(공사14)	엄익준(공사15)
온성철(공사4)	(주)우성플라테크	원불교충북교구	유상신(공사8)	육도석(공사14)

윤대봉(공사8)	이광학(공사11)	이기현(공사13)	이성재(공사25)	이양호(공사8)
이역수(공사14)	이에스더, 장덕봉목사	이영수(공사2)	이일남(공군가족)	이정호(공사13)
임길순(공사14)	임용환(공군가족)	장덕수(공사13)	정성규(공사14)	故최상욱(공사15)
최성열(공사15)	최용철(공군가족)	최용환(공사15)	故최진형(공사56)	태종민(공사13)
하정효 (전경림IMI GAMP회장)	한광희(공사9)	한정구(공사14)	한국치공구공업(주)	한길씨앤씨(주)
해인사 (대한불교조계종)	故허규열(공사14)	허차동(공사11)	홍재학(공사4)	(재)화암학술연구 재단
(주)효광	1기 동기회	2기 동기회	3기 동기회	4기 동기회
5기 동기회	6기 동기회	7기 동기회	8기 동기회	9기 동기회
10기 동기회	11기 동기회	12기 동기회	13기 동기회	14기 동기회
17기 동기회	18기 동기회	19기 동기회	20기 동기회	21기 동기회
22기 동기회	23기 동기회	24기 동기회	26기 동기회	30기 동기회
31기 동기회	33기 동기회	34기 동기회	35기 동기회	36기 동기회
37기 동기회	40기 동기회	41기 동기회	43기 동기회	44기 동기회
45기 동기회	54기 동기회	59기 동기회	60기 동기회	62기 동기회
64기 동기회				

5백만원 이상 (33)

경주전장	故공영화(공사7)	김규태(공군가족)	김락은(공군가족)	김보현(공사36)
김선곤(공군가족)	김용주(공사4)	김인기(공사3)	김재식(공군가족)	박지훈(공군가족)
박찬욱(공군가족)	배양웅(공사15)	신길수(공사15)	안창명(공군가족)	유영국(공군가족)
윤익수(학사37)	이봉운(공사24)	조광제(공사33)	차정열(공사15)	초청노인병원
15기 동기회	16기 동기회	212대대 비행교수회	25기 동기회	27기 동기회
29기 동기회	32기 동기회	39기 동기회	42기 동기회	46기 동기회
47기 동기회	49기 동기회	50기 동기회		

3백만원 이상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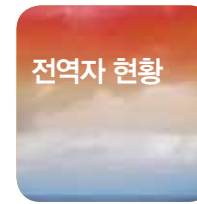
강남서울안과, 평택서울안과	공사성무교회	국제로타리 3740지구	권혁달(공사9)	김경복(공사3)
김광은(군교수)	김동수(공사32)	농협 (청주물류센터지점)	(주)루시건설링	서명교(공사46)

임상훈(공군가족)	전승혜(군교수)	정희두(공사45)	(주)제니엘	조미행(공군가족)
조영식(공사35)	주창성(공사16)	주님의교회	한정렬(공사27)	한주석(공사7)
한주선(독지가)	28기 동기회	38기 동기회	65기 동기회	

1백만원 이상 (312)

강봉민(공군가족)	강석일(공군가족)	강성영(공사19)	강성철(공사23)	강수준(공사22)
강지행(공사23)	강태식(공군가족)	강호석(공사31)	강희간(공사17)	경운대학교
고영섭(공사17)	고종무(공사17)	고준기(공사44)	공군사랑회	공군전우회 청주지회
공사27기지용3편 대원	공사교수친목회	곽갑순(공사13)	곽영달(공사7)	구정희(공사18)
군과원항공과 01졸업생	금기연(공사21)	금학수(공군가족)	김건삼(공사15)	김경중(공사12)
김국환(공군가족)	김 규(육사27)	김기부(공군가족)	김기영(공사46)	故김낙규(공사1)
김덕실(공사19)	김도식(공사8)	김동호(공사3)	김두만(학사5)	김만호(공사27)
김명립(공사19)	김부곤(공사14)	김상직(공사2)	김석우(공사17)	김성근(공사40)
김성덕(공사15)	김성수(공군가족)	김성일(공사20)	김성진(공사18)	김세현(공사50)
김연호(공사34)	김연환(공사32)	김영분(공사29)	김영식(공군가족)	김영주(공사20)
김영준(공사23)	김영철(공사19)	김영환(공사1)	김우태(공사19)	김원규(공사30)
김윤규(공사47)	김윤수(공사31)	김윤주(공사10)	김윤식(공군가족)	김이곤(학사71)
김인택(공사31)	김일강(공군가족)	김일락(근무원)	김장호(공사22)	김재달(공사10)
김재문(공군가족)	김재운(공사18)	김정만(공군가족)	김정현(공군가족)	김종기(공군가족)
김종태(기무사령관)	김준기(공사26)	김준수(공사7)	김진섭(공사3)	김창규(역대총장)
김창욱(공사21)	김태수(공사46)	김해인(공군가족)	김현수(공사40)	김현진(공사19)
김형철(공사28)	김호동(공사20)	김호배(공군가족)	김홍성(공사48)	김희복(공군가족)
남완수(공사39)	(주)다우산업	도성한정식	도재준(공사39)	라지균(공군가족)
류광선(공군가족)	문국진(공사2)	문기철(공사13)	문봉한(독지가)	민정배(공군가족)
박경웅(공사16)	박귀재(공군가족)	박규복(공사19)	박기현(공사40)	박도영(공사46)
박동춘(공군가족)	박명우(공군가족)	박봉룡 (하와이한인회장)	박성국(공사16)	故박성윤(공사10)
박수용(공사46)	박영준(공사36)	박예재(공사4)	박용태(공사5)	박재성(공사2)
박종걸(공사15)	박종선(공사14)	박종화(공사23)	박주경(공사53)	박준범(공사49)
박창권(공사27)	박홍식(공사34)	배기준(공사12)	배창식(공사21)	백낙승(공사3)
백남철(공사15)	백동기(공사16)	(주)비씨카드	서석민(공사37)	(주)서울고속
(주)선우캠텍	설현주(공사41)	성동주(공군가족)	성보경(공사5)	성용경(공군가족)
성일환(공사26)	(주)세일하이텍	손일호(공사46)	손정환(공사19)	송대성(공사17)
송영섭(공사13)	송한복(공사24)	신군상(공군가족)	신문식(공사21)	신성환(공사26)

신영덕(공사28)	故신표근(공사18)	심상철(공사26)	심성용(공사46)	심인태(공사30)
심장섭(공사3)	안병걸(공사20)	안병문(공사11)	안성덕(공군가족)	안영준(공군가족)
양경철(공사46)	양동현(공사46)	양철환(공사29)	엄상영(공사24)	故연양희(공사21)
오윤희(공군가족)	오일근(공군가족)	오정진(공사46)	오정치(공군가족)	오준영(공사35)
오필환(공사23)	온용섭(공사35)	외환카드	위강복(공사33)	(주)윈플로
유병구(공사19)	유병희(공군가족)	유재호(공사3)	유재홍(공사21)	유준중(공사33)
윤경식(공사48)	윤봉수(공사18)	윤상주(공사25)	윤용현(공사25)	윤 우(공사28)
윤자중(공사1)	윤재훈(공사18)	윤차영(공사23)	윤희준(공사46)	이강욱(공사19)
이강택(공사36)	이강희(공사37)	이건완(공사32)	이경란(공군가족)	이경훈(공사30)
이계오(공사19)	이규찬(공사19)	이기동(공사20)	이기택(공사18)	이기호(공사41)
이길영(공사45)	이길우(공사37)	이길환(공사15)	이남진(공사24)	이달호(공사19)
이동식(공사46)	이만섭(공사3)	이명환(공사28)	이문식(공사43)	이문호(공사17)
이상기(공사2)	이상배(공사6)	이상오(공사53)	이상해(공군가족)	이석민(공사46)
이석원(공군가족)	이선미(공사53)	이선희(공사18)	이순웅(공사46)	이승수(독지가)
이승현(공사37)	이영준(공사18)	이영하(공사22)	이영희(공사20)	이윤교 (하와이공군전우회)
이윤우(공사6)	이장호(공사10)	이재선(공사46)	이정석(공사22)	이정욱(공사23)
이정윤(공사45)	이정은(공군가족)	이정일(공군가족)	이종록(공사20)	이종식(공사30)
이진숙(공군가족)	이진학(공사18)	이창일(공군가족)	이철우(공사26)	이태규(공사42)
이태식(공사11)	이태윤(공군가족)	이태윤(공사28)	이한호(공사17)	이호웅(공사45)
이화민(공사21)	이흥기(공군가족)	일진중전기(주)	임남기(공군가족)	임병숙(공군가족)
임정빈(공사16)	임호순(공사24)	장무익(공사4)	장부석(공군가족)	장성문(공사20)
장세현(공사33)	장영수(공사18)	장영익(공사31)	장진수(공사16)	장호근(공사17)
장희천(공사19)	전상윤(공사36)	전춘우(공사6)	전환혜(공군가족)	정경두(공사30)
정계성 (하와이공군전우회)	정귀균(공군가족)	정민우(공사47)	정석환(공사31)	정중구(공사30)
정철호(공사20)	정해일(공사7)	정현욱(공사46)	조규식(공사17)	조영근(공사3)
조옥찬(공사4)	조재찬(공사46)	조정숙(공군가족)	조태환(학사59)	조환기(공사31)
진광수(공사35)	차옥환(공사17)	차종권(공사20)	차홍준(공군가족)	참사랑병원
채관석(공사31)	천기광(공사18)	최광섭(공사15)	최만호(공군가족)	최미락(공사25)
최범식(공사21)	최병삼(공군가족)	최병운(공사22)	최병인(공군가족)	최부용(공사35)
최상근(공군가족)	최성현(공군가족)	최승식(공사46)	최시수(공군가족)	최용준(공사46)
최현국(공사33)	최호준(공사22)	故하만윤(공사22)	하성룡(공사32)	하태웅(공사21)
학사77기 동교회	한고희(공사33)	(주)한드	한봉철(공군가족)	한성주(공사24)
한영규(공사4)	함장환(공군가족)	허원욱(공사20)	홍강표(공사19)	홍성룡(공사27)
홍성민(공군가족)	홍영식(공군가족)	황성연(공사45)	황성진(공사33)	황원동(공사24)
공사44기순직자 (5명)	48기 동교회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역일	계급	성명	기수	전역일	계급	성명	기수
'16.7.7	소령	임덕희	47		중령	박좌룡	45
	대령	이수완	31	'16.9.30	중령	양익준	45
	대령	이준행	32		중령	천문석	45
	대령	최재동	32		소령	김민수	53
	대령	이근홍	33		소령	이구현	54
	대령	박승룡	35		대위	이종길	54
'16.7.31	중령	박준기	35	'16.10.31	대령	김종모	34
	중령	김희규	42		중령	정택근	34
	소령	남궁한균	42		소령	서세경	51
	소령	이민우	42		소령	이영섭	53
	소령	심인보	43	'16.11.30	대령	김재구	32
	대위	이우효	59		중령	오수창	35
	대령	남동우	32		대령	임종운	35
'16.8.31	대령	윤석준	32	'16.12.31	소장	노병균	31
	대령	정영식	32		소장	유병길	31
	중령	김명한	33		소장	정석환	31
	중령	박종용	34		대령	천상필	32
	대령	김성표	35		대령	박이창	33
	중령	엄태화	35		준장	송경선	33
	중령	최택균	35		준장	송영훈	33
	중령	임재열	45		대령	이기찬	33
	중령	한수철	45		준장	백윤형	34
	준장	송택환	33		대령	송종근	34
'16.9.30	준장	이광수	33	준장	윤기철	34	
	준장	장경식	33	중령	이병래	34	
	준장	정영진	33	준장	이병래	34	
	대령	장명수	34	준장	임원	34	
	중령	이재학	35	대령	김환중	35	
	대령	최대우	37	대령	유영규	35	
	소령	이지수	44	대령	이언희	35	
	중령	김현중	45	대령	이영배	35	
	중령	박상욱	45	중령	전상희	35	

전역일	계급	성명	기수	전역일	계급	성명	기수
'16.12.31	대령	박보현	36	'17.2.28	중령	전윤재	45
	중령	문인수	37		중령	연상모	47
	대령	이두형	37		소령	박준영	48
	중령	이근석	39		소령	신용두	48
	중령	이무궁화	42		소령	안상철	48
	중령	이수원	42		소령	장필순	48
	소령	박성문	48		소령	전찬삼	48
	소령	이형석	49		소령	강성민	50
	대위	염대찬	54		소령	강지규	50
	대위	조일현	59		소령	공진호	50
'17.1.17	소령	주민성	47	소령	김기훈	50	
'17.1.31	대령	박동성	32	소령	김동백	50	
	대령	정만해	32	소령	김승원	50	
	대령	차주성	33	소령	김영우	50	
	중령	송재근	35	소령	김응규	50	
	중령	최태석	35	소령	김재근	50	
	소령	이진욱	53	소령	김종길	50	
'17.2.28	대령	김창훈	32	소령	김종하	50	
	대령	부성철	32	소령	김희용	50	
	대령	이건섭	32	소령	박문범	50	
	대령	정동표	32	소령	박주언	50	
	대령	국진	33	소령	박주훈	50	
	중령	김종명	34	소령	백인철	50	
	준장	오종찬	34	소령	손찬욱	50	
	중령	강휘태	36	소령	송준호	50	
	소령	김관수	43	소령	송혁	50	
	중령	김주현	44	소령	양성주	50	
	중령	김의식	45	소령	오민균	50	
	소령	나지훈	45	소령	오창록	50	
	중령	남병호	45	소령	유순웅	50	
	중령	박성열	45	소령	유태영	50	
	중령	유진수	45	소령	유형일	50	
	중령	이승원	45	소령	이동기	50	

전역일	계급	성명	기수	전역일	계급	성명	기수	
'17.2.28	소령	이용화	50	'17.3.31	대령	최재만	35	
	소령	이종욱	50		중령	전용	39	
	소령	이종학	50		소령	이철우	43	
	소령	임대원	50		소령	양의준	45	
	소령	임현중	50		소령	이호용	45	
	소령	장재원	50		소령	진지원	47	
	소령	전진수	50		'17.4.30	대령	김상규	33
	소령	정신화	50			대령	박명호	33
	소령	정철	50			중령	임상길	35
	소령	조광휘	50			중령	김병환	36
소령	조준한	50	중령	전상국		42		
소령	차명수	50	중령	조현구		42		
소령	최병주	50	중령	정태영		43		
소령	최성신	50	중령	백장욱		44		
소령	최창균	50	중령	류재성		45		
소령	황의혁	50	대위	채승용		60		
'17.3.29	소령	황정환	50	'17.5.11	대령	당병규	34	
	대위	김건우	60	'17.5.31	대령	김성환	32	
	대위	문용수	60		중령	류제홍	34	
	대위	이창수	60		중령	김용일	35	
	대위	황현달	60		중령	박정호	35	
	소령	오승현	52		대령	유길희	36	
	'17.3.31	대령	이창훈		32	소령	박상관	44
		대령	이재홍		33	소령	서재경	49
소장		홍재기	33		소령	박상희	50	
중령		김창렬	34	소령	김희태	35		
중령		이재호	35	'17.6.30	대령	김형래	32	
대령		정상채	35					



(17년 06월 현재)

기수	회장	총무	기수	회장	총무	기수	회장	총무
1기	김순경		23기	장창연	김형선	45기	박종서	이길영
2기	명의창	이중선	24기	이윤상	표상수	46기	서정민	
3기	정규혁		25기	최미락	김용전	47기	염인순	송태복
4기	조봉구	유동천	26기	배충영	전영구	48기	송영민	구본곤
5기	정재식	정봉수	27기	허광서	최정근	49기	이정영	
6기	이윤우	손중서	28기	정동학	천홍우	50기	정병식	손다혜
7기	김석천		29기	김규진	김순노	51기	김시호	최호성
8기	홍영규	송재선	30기	우정규	권영창	52기	박준규	추맹철
9기	천왕봉		31기	김진호	이현주	53기	차승주	최영천
10기	장풍길	김완수	32기	안상훈	김우근	54기	이창오	
11기	이관영	김동호	33기	최현국	정영철	55기	염지운	강수정
12기	이종양	박창길	34기	노승환	이재소	56기	권혁준	정신기
13기	강신해	유병각	35기	변철구	이봉우	57기	정인식	김혜미
14기	김광산	김영오	36기	최성천	이경근	58기	이종복	조희상
15기	차정열	최용환	37기	심명철	강동우	59기	김성석	노제경
16기	김회동	양길수	38기	최재혁	최정현	60기	이진용	문찬식
17기	송대성	서정윤	39기	이철희	이상규	61기	이건혁	남용운
18기	손인익	정윤태	40기	박형건	신정치	62기	유은상	황인선
19기	홍강표	박창진	41기	김종수	이충재	63기	한준우	허지민
20기	김호동	김택기	42기	정현기	김은희	64기	김상래	전재영
21기	황호상	안연진	43기	이성진	김현구	65기	박민석	이재형
22기	부중배	김중세	44기	김근원	고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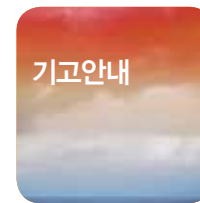
‘삶은 기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록된 삶이야말로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주위에 감동을 줄 수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무지」는 공군사관학교 동문인 성무인들의 삶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 전 제 24차년도 총동창회는 성무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46호 성무지는 의례적인 간행물의 형식을 탈피하여,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의 진정한 문화의 장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각오로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편집후기를 쓰는 지금에 이르러 보니, 여전히 지나온 길에 대한 아쉬움과 회한이 남아있습니다.

그나마 논단에 가치 편향적 주장의 원고는 배제하여 동문간의 논란을 피하고, 원로 동문님들을 위해 활자의 크기를 키우고 시각자료를 활용했다는 점은 아쉬움에 대한 작은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46호 성무지에 사랑의 관심을 보여주신 동문님들과 소중한 삶의 기록을 보내주신 동문님들께 감사드리며, 원고를 꼼꼼하게 정리해 주신 13년 관록의 동창회 사무실 설민진 실장님, 편집과정에서 제 3자의 관점에서 깨알 같은 의견을 주신 도서출판 씨앤텍 윤승재 이사님을 비롯하여 활자의 마력을 발휘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편집인〉



공사총동창회 회지인 ‘성무’지는 연 1회(매년 7월) 발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회원들의 수필, 여행기, 사관학교 시절의 에피소드 및 취미활동 등을 주제로 한 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47호 성무지 원고는 2018. 3. 20에 마감합니다. 많은 기고를 부탁드립니다.

(기고 시 사진 이미지는 원본 파일을 별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 2017. 7. 1
 발행인 : 박종현
 편집인 : 이남진
 발행처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주소 : (우 0694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36길 92
 전화 : 02-823-1091
 팩스 : 02-823-1092
 Home Page : <http://www.kafaaa.or.kr>
 E-mail : 04airfa@hanmail.net
 ISSN 2508-3139 (비매품)





www.seouladex.com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7

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 DEFENSE EXHIBITION 2017

2017년 10월 17일(화)~22일(일) / 서울공항





하늘을 장악하다 최강의 전투기 F-15

최첨단 시스템과 기술을 탑재한 다목적 전투기인 F-15는 압도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향상된 행동반경과 탑재량을 기반으로 최신 F-15는 차원이 다른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 수행 능력을 제공합니다. 최고의 공중 우세 역량을 보장합니다.

 **BOEING**